

ISSN 2383-7829

# 世界桓檀學會誌

Journal of Hwandan History and Culture

12권 1호

세계환단학회

World Society of Hwandan History and Culture

2025. 6

# 世界桓檀學會誌

12권 1호

## 목 차

---

『환단고기』를 통해서 본 열 개의 부여와 부여 천 년의 역사 / 윤창열 .....	3
진번군의 실재성 고찰을 통한 한사군의 허구성 고발 / 안병우 .....	36
〈천부경〉의 논리적 구조와 인간학적 함의 / 유 철 .....	75
『환단고기』의 소도제천문화와 야마토(大和) 전개과정 / 김철수 .....	113

---

세계환단학회

2025. 6

# 환단고기를 통해서 본 열 개의 부여와 부여 천 년의 역사

윤창열\*

- I. 서론
- II. 열 개의 부여
  - 1. 원시부여
  - 2. 대부여
  - 3. 북부여 (해씨부여)
  - 4. 후기북부여 (동명부여, 졸본부여)
  - 5. 동부여(가섭원부여, 하부여)
  - 6. 갈사부여 (북갈사)
  - 7. 동부여후 (남갈사)
  - 8. 서부여 (연나부부여, 낙씨부여)
  - 9. 두막루국 (대막루, 대막로, 달말루)
  - 10. 남부여
- III. 부여사의 왜곡과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부여
- IV. 결론

【주제분류】 한국사

【주요용어】 환단고기, 부여, 대부여, 북부여, 졸본부여, 동부여, 갈사부여

【요약문】 원시부여는 초대 단군이 넷째 아들 부여를 봉한 땅으로 이것이 최초의 부여이고, 위치는 지금의 길림성 농안 장춘 일대이다. 이 부여라는 명칭은 이후 모든 부여 명칭의 근원이 된다.

BCE 425년 단군조선의 44대 구물 단군은 우화충의 반란을 평정하고 장당경아사달에 도읍하여 대부여로 국호를 바꾸었는데, 이것이 단군조선의 제3왕조이다. 47대 고열가 단군이 제위를 버리고 떠나는 BCE 238년까지 188년간 지속되었고, 장당경

\* 대전대학교 명예교수(전자메일: yoency@dju.kr)

은 지금의 요령성 개원이다. 대부여라고 국호를 쓴 이유는 수도를 비록 옮기지만 이전 수도 백악산아사달이 부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다.

부여사의 실질적인 시작은 북부여이다. BCE 239년 해모수에 의해 건국되었고 해부루가 가섭원으로 쫓겨가는 BCE 86년까지 154년간 지속되었으며, 백악산아사달이 있었던 농안 장춘지역이 중심지였다.

한무제가 위만왕조를 멸망시키고 북부여를 침략하자 동명왕 고두막한이 의병을 일으켜 한나라 군사를 격퇴하였다. 이에 BCE 108년 졸본 땅에서 임금의 자리에 오르며 BCE 86년 북부여의 5대 임금인 해부루를 가섭원으로 추방하고 북부여의 정통을 계승하였다. 고무서 단군을 거쳐 고주몽이 BCE 58년 제위에 올라 BCE 37년 고구려로 국호를 바꾸니 이 때까지의 부여를 동명부여 졸본부여 또는 후기북부여라고 부른다.

동명부여의 고두막한의 힘에 밀려 북부여의 5대 임금 해부루가 BCE 86년 가섭원으로 이주하니 이곳은 흑룡강성 통화현이고 이를 동부여라고 부른다. 동부여는 이후 금와왕, 대소왕을 거쳐 CE 22년 고구려 대무신 열제에게 망할 때까지 역년이 108년이었다.

CE 22년 동부여가 멸망할 당시 금와왕의 막내아들이 압록곡에서 해두왕을 죽이고 갈사수 가에 나라를 세웠는데 이를 갈사부여 또는 북갈사라고 한다. 갈사수는 우수리강 유역으로 추정되며 CE 68년까지 3대에 걸쳐 47년간 지속되었다.

CE 68년 북갈사의 3대왕 도두왕이 고구려에 항복하자 고구려에서 혼춘을 식읍으로 주고 그를 동부여후에 봉해 주었는데 이를 남갈사라고 부른다. 410년 광개토열제는 동부여를 정벌했는데, 이 동부여는 혼춘에 봉해졌던 동부여후의 후손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면 동부여후의 역년은 343년이 된다.

서부여는 CE 22년 동부여가 멸망할 때 고구려는 대소왕의 4촌 동생을 개원 서북에 있는 연나부에 봉해주었다. 이후 서부여(연나부부여)는 대릉하 상류로 이동하여 중국과 고구려 사이에서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CE 285년 모용외에게 격파되어 나라가 거의 멸망직전까지 이르렀고 그 후 다시 회복하여 나라를 유지하다가 CE 494년 고구려에 병합되었으니 총 역년이 473년이 된다.

두막루국은 410년 광개토태왕에 의해 멸망한 남갈사의 유민들이 송화강 하류를 건너 그 북쪽에 세운 나라로 추정된다. 726년 대진국과 흑수말갈에 의해 나라가 양분되어 멸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부여는 백제의 26대 성왕이 538년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기면서 일시적으로 사용되었고 성왕 사후 다시 백제로 복구된 것으로 보인다.

## I. 서론

부여는 단군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고리(link)에 해당되는 나라이다. 고구려 뿐만 아니라 신라와 백제 삼국의 건국이 모두 부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되는 나라는 북부여지만 여기에서 파생된 동명부여(졸본부여), 동부여(가섭원부여), 갈사부여, 연나부여(낙씨부여, 서부여) 등 부여의 이름이 들어가는 나라가 대단히 많다. 두막루국豆莫婁國도 옛날의 북부여北扶餘라 하였고, 백제의 성왕이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하면서 국호를 남부여라고 하여 부여라는 국호는 더욱 더 늘어난다. 그러나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는 단편적인 내용만 기술하여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부여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없었다.

오히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학자들마다 중화주의 사관에 경도되어 각자의 생각으로 부여사를 기술하여 더욱 더 후학들을 미혹하였다. 그리고 왜곡된 조선시대 학자들의 주장을 계승하고 일제 식민사관을 계승한 지금의 강단사학계의 부여사에 대한 인식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성립된 시기가 다르고 활동한 영역이 각기 다른 부여를 하나의 부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오류이다. 『삼국지』 「위지 부여전」의 내용은 CE 22년에서 494년까지 요서에서 활동한 서부여의 역사로 문화적으로는 이전 부여와 동질성은 있지만 북부여, 동명부여, 동부여의 역사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환단고기』 속에는 「북부여기」가 들어 있어 우리 역사의 missing link(잃어버린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부여사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북부여기」는 고려시대 말기의 실존인물인 범장范樟의 저술이다. 「북부여기」는 「북부여기」상 「북부여기」하 「가섭원부여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속에는 현 강단사학계

에서 알지 못하고 왜곡해석하는 내용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중 몇가지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부여는 BCE 239년 해모수에 의해 건국되었고 고구려의 건국자 고주몽은 혈통으로는 해모수의 현손자이고 왕통으로는 북부여의 7대 임금이다.

둘째, 동명부여(졸본부여)의 건국자는 고두막한이고 BCE 86년 해모수의 후손을 가섭원으로 추방하여 해부루의 동부여가 성립되었다.

셋째, CE 22년 동부여가 망하면서 갈사부여와 서부여가 성립하였고, 갈사부여(북갈사)는 CE 68년 고구려에 복속되어 동부여후(남갈사)로 봉합을 받았으며, 서부여(낙씨부여, 연나부부여)는 요서지역으로 이주하여 CE 494년까지 존속하였다.

넷째, 한반도 평양에는 최씨낙랑국이 BCE 195년 성립하여 대무신 열제(CE 37년) 때까지 있었으므로 평양과 한반도 북부에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섯째, BCE 194년에서 BCE 108년까지 지속된 위만정권은 북부여의 우익右翼이었던 변조선의 마지막 임금 준왕準王을 쫓아내고 성립하였으므로 단군조선의 계승자가 아니고 북부여와 대립하였다.

여섯째, BCE 194년 상장탁上將卓이 고향 월지月支(익산)에 이르러 중마한中馬韓을 세우고, 변한, 진한의 사람들도 김해와 경주에 이르러 중삼한中三韓이 성립하고 마한의 정령政令을 받들었다.

범장의 「북부여기」는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한 BCE 239년부터 동부여가 망하는 CE 22년까지 261년 간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단군조선의 종말, 북부여의 건국과 전개, 위만왕조의 성립과 멸망, 후기 북부여, 동부여와 서부여의 실상, 갈사부여, 최씨낙랑국, 한사군, 남삼한 등 현재의 사학계에서 풀지 못하고 있는 난제들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보배로운 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단군의 넷째 아들 부여가 제후에 봉해진 원시부여부터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조 대부여를 위시하여 북부여, 후기북부여(동명부여, 졸본부여), 동부여, 갈사부여, 동부여후, 서부여, 북부여의 후예인 두막루국, 그리고 백제 성왕의 남부여까지

10개의 부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부여사의 총 역년은 대부여가 성립한 BCE 425년부터 두막루국이 멸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726년까지 계산하면 1,151년이 되어 천년을 넘고,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한 BCE 239년부터 계산하더라도 965년으로 근 천 년이 된다. 본 논문을 통해 『환단고기』의 가치가 증명되고 인물과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부여로 인식함으로써 미궁 속에 빠져 있던 부여사의 진면목이 새롭게 밝혀 질 것이라고 사료된다.

## II. 열 개의 부여

단군조선을 계승하여 건국된 북부여부터 기술하는 것이 옳지만 부여라는 명칭이 시작된 원시부여와 단군조선의 제 3 왕조 대부여를 함께 기술하여 북부여의 명칭이 유래한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 1. 원시부여

부여라는 말은 초대 단군의 넷째 아들 부여에서 시작된다. 고조선을 건국한 초대 단군은 부루夫婁, 부소夫蘇, 부우夫虞와 막내아들 부여夫餘를 두었다. 부루태자는 단군조선의 2대 단군이 되셨다. 『규원사화』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부소 부우와 막내 아들 부여는 모두 당시 수도였던 하얼빈의 서쪽 땅을 주었는데 이것이 곧 구려句麗, 진번眞番, 부여夫餘 등 여러 나라이다.<sup>1)</sup> 위에서 세 아들을 서쪽 땅에 봉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밝히지 않았다. 『단군세기』에 “우현왕이 좌우의 사람들과 사냥꾼 수 천 명을 이끌고 부여신궁夫餘新宮에서 단군으로 즉위하였다”<sup>2)</sup>는 기록이 있는데 부여신궁은 백악산 아사달로 지금의 길림성 농안農安 장춘 일대이다. 즉 단군왕검께서 넷째 아들 부여夫餘에게 서쪽 땅을 다스리게 하였다고 한 그 땅이 바로 부여가 되었다는 것이다. 부여는 단군조선 초기에는 제후국이었으나 22대 색불루단군 때 고조선의 도읍지가 되고, 44대 구물단군 때는 장당경으로 도읍을 옮긴 뒤 국호를 개칭하여 대부여라

1) 북애 지음 고동영 옮김, 『규원사화』 (서울:한뿌리, 2005), 70쪽.

2)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대전: 상생출판, 2012), 143~144쪽.

하였다. 그리고 이 대부여를 계승하여 옛 백악산에서 북부여가 건국되었다.<sup>3)</sup> 초대 단군의 넷째 아들 부여가 부여후로 봉해진 땅의 명칭이 부여가 되었고, 이것이 최초의 부여이고 원시부여라고 할 수 있는데 이후의 모든 부여의 명칭은 여기서 유래한다.

## 2. 대부여

43대 물리勿理단군 36년(BCE 426)에 우화충于和冲이 반란을 일으켰다. 물리단군은 배를 타고 도망하다가 봉어하였다. 다음 해에 백민성 옥살 구물이 우화충의 목을 베고 모든 장수의 추대를 받아 장당경藏唐京에서 44대 단군에 등극하시고 국호를 대부여로 바꾸고 삼한을 삼조선으로 바꾸었다. 대부여라는 국호를 쓴 이유는 43대 물리단군 때까지 도읍했던 백악산 아사달의 지명이 부여였기 때문에 수도는 비록 옮겼지만 이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부여는 고조선의 제 1왕조 시대인 송화강 아사달시대와 제 2왕조인 백악산 아사달시대를 계승한 제 3왕조의 장당경 아사달시대를 말한다. 장당경 아사달시대는 BCE 425년부터 47대 고열가 단군이 제위帝位를 버리고 떠난 BCE 238년까지 188년간 지속되었다. 장당경의 위치를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서는 『고려사』의 장장평庄庄坪이 단군이 도읍했던 당장경唐藏京의 잘못 전해진 지명이라 하여 황해도 문화현의 동쪽에 있다고 했다. 이유립은 장당경이 지금의 요령성 개원시開元市라고 하였다.<sup>4)</sup> 『동사강목』에 『성경지盛京志』를 인용하여 개원시가 부여국의 땅이고 도성이 있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부여국은 지금 개원현 소재지 경내가 모두 그 땅이다” 하고 또 “그 왕성은 개원현 성 서남쪽에 있는데 요遼에서 통주通州로 고쳤다”라고 하였다.<sup>5)</sup> 요령성 개원에 도읍했던 부여는 대부여가 유일하므로 위의 기록은 대부여에 대한 기록이라 사료된다. 대부여의 존재는 해모수가 북부여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되고, 부여사의 근원이 되므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만 한다.

3)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대전: 상생출판, 2012), 205쪽.

4) 이유립, 『대배달민족사』 (1) (서울: 고려가, 1987), 392쪽.

5) 민족문화추진회 번역, 『동사강목』 IX (서울: 민족문화문고, 1985), 258~259쪽.



### 3. 북부여(해씨부여)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에 북부여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의 강단사학자들이 북부여의 실체를 알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부여라는 말로써 북부여, 동명부여(졸본부여), 동부여, 서부여의 역사를 설명하므로 명쾌하지 않고 모든 모순점들이 생겨나게 된다. 『삼국유사』의 「북부여」조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고기(古記)》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전한서》에 선제宣帝 신작神爵 3년 임술년(BCE 59) 4월 8일에 천제天帝가 오룡거五龍車를 타고 흘승골성紇升骨城(대요大遼 의주醫州 경계에 있다)으로 내려와 도읍을 세우고 왕이라 일컬으며 국호를 북부여北扶餘라 하였다. 스스로 이름을 해모수解慕漱라 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루夫婁라 했는데, 해解를 씨로 삼았다. 왕은 이후에 상제의 명에 따라 동부여로 도읍을 옮겼다. 동명제가 북부여를 이어 일어나 졸본주卒本州에 도읍을 세우고 졸본부여라 했으니, 바로 고구려의 시조이다.”<sup>6)</sup>

위의 내용 속에는 정설正說과 오설誤說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설을 살펴보면 첫째, 북부여가 국호(國號北扶餘)이고, 해모수가 건국하였다는 것이다. 광개토태왕비는 첫머리에서 “옛적에 시조 추모왕께서 나라를 건국하실 때 북부여로부터 나오셨다(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에 出自北夫餘라).”고 기술하고 있다. 고주몽성제가 북부여에서 나왔다고 하였는데, 북부여를 지금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국호가 아닌 부여의 북쪽에 있었던 땅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 또 부여라는 호칭 앞에 동서남북의 방위를 붙인 것은 모두 후세에 붙인 명칭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방위명 부여는 당초부터 이러한 이름은 가졌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도학 『고구려 광개토왕릉비 연구』)

“북부여는 고구려 사람들이 ‘북쪽의 나라인 부여’라는 뜻에서 쓴 것이다.” (『조선전사』 3. 「고구려사」)

6)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서울: 을유문화사, 2002), 55~56쪽.

고주몽이 북부여에서 나온 사실은 5세기 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두루묘지명牟婁婁墓誌銘에서도 “하백의 자손이며, 일월의 아들인 추모성왕께서 원래 북부여에서 나오셨다(河伯之孫이며 日月之子인 鄒牟聖王이 元出北夫餘라)”고 하여 고주몽성제가 북부여에서 나왔음을 거듭 확인해 주고 있다.<sup>7)</sup>

해모수는 왜 나라 이름을 북쪽에 있는 부여를 뜻하는 북부여로 정한 것일까. 이는 고조선의 제 3왕조 시대인 대부여의 강역 중에서 그 땅의 북쪽에서 나라를 열었기 때문에 대자字를 북자字로 바꾸어 북부여라 한 것이다. 대부여의 수도는 요령성 개원시이고, 북부여의 수도는 백악산 아사달로 지금의 길림성 농안 장춘 지역이므로 정확히는 동북 쪽이 된다. 북부여라는 명칭 속에는 기울어가는 대부여의 정통을 계승하여 한민족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해모수 단군의 의지가 표명되어 있다.

둘째, “동명제東明帝가 북부여를 이어 일어나 졸본주에 도읍을 세우고 졸본부여라 했다”라는 것이다. 위의 내용은 대단히 정확한 기술이다. 그러나 『환단고기』의 내용을 참고하지 않으면 위의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 자세한 설명은 후기 북부여조에서 하고자 한다.

잘못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해모수의 북부여 건국은 전한의 선제 신작神爵 3년 임술년(BCE 59년)이 아니고 180년을 더 올려 BCE 239년이 되어야 한다. 「북부여기」에 “해모수 단군께서 23세에 천명을 좇아 내려오시니 이때는 47세 고열가단군 재위 57년(BCE 239년) 임술년 4월 8일이었다”<sup>8)</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학계에서는 이보다 더 앞선 시대에 부여국의 건립을 이야기하면서도 역시 북부여라는 국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부여라는 이름은 기원전 3세기 이전의 지리지사들로 엮어진 『산해경』에 ‘불여’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 불여는 부여와 같은 이름이다. 부여국가가 세워진 시기는 대체로 기원전 5세기경으로 잡을 수 있다. 부여가 가장 강성하였던 기원전후 시기의 영역은 동쪽으로는 읍루족(물길, 말갈)의 지역을 차지하여 연해주지방에 이르렀고, 서쪽으로는 열하 동쪽지방, 즉 고조선 말기의 고조선의 서쪽국경 북쪽계선에 이르렀다. 부여의

7) 윤창열 지음, 『환단고기연구』 (대전: 상생출판, 2023), 67쪽.

8)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대전: 상생출판, 2012), 143~144쪽.

북쪽국경은 송화강 이북의 상당히 넓은 지역을 포괄했다고 볼 수 있으며 남쪽국경은 고조선과 접하였다. 그리고 부여의 중심지(예성)는 오늘의 길림성 부여현의 중심지에 있었다.<sup>9)</sup>

부여국의 중심지는 오늘날의 길림성 부여현이며, 기원전 5세기경에 부여에 선행한 맥족계통의 나라인 ‘탁리국’의 한 세력이 송화강 일대로 이동해 그 곳 원주민을 정복하여 세운 나라라고 보고 있다.<sup>10)</sup>

북한학계에서 부여의 건국을 기원전 5세기로 잡는 것은 대부여의 건국이 BCE 425년이므로 혹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대부여, 북부여, 졸본부여, 동부여, 서부여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나라로 보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이다. 이것은 한국의 사학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남쪽국경을 고조선과 접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셋째, 북부여의 건국지를 『삼국유사』에서 흘승골성이라 하고 주석에서 요나라의 의주醫州 경계에 있다고 하였다. 요나라의 의주醫州는 『중국역사지명대사전』에도 나오지 않는데 요령성의 의무려산 근처에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환단고기』에서도 해모수가 건국한 북부여의 수도를 명확히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단군세기」에서 “해모수가 옛 도읍지 백악산을 습격하여 점거한 뒤에 스스로 천왕랑이라 칭하셨다”라고 하였고, 「고구려국본기」에서 “대부여의 옛 도읍지에서 군사를 일으켰다”라고 한 것 등을 보면 길림성 농안 장춘지역의 백악산아사달 지역이라 사료된다.

넷째, 해부루가 해모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북부여의 왕위 계승은 해모수(BCE 239~195), 모수리(BCE 195~170), 고해사(BCE 170~121), 고우루(해우루라고도 부른다)(BCE 121~87)이고, 고우루 사후 그의 동생인 해부루(BCE 87~48)가 계승하였고 동명왕 고두막한의 압력에 의해 BCE 86년 가섭원으로 이주하여 동부여가 된다. 따라서 해부루는 해모수의 증손자가 된다. 북부여는 해모수의 혈통으로 왕위가 계승되므로 이유립은 해씨부여解氏夫餘라고도 표현하였다.

다섯째, 졸본부여를 세운 동명제가 고구려시조라는 것이다. 동명제는 고주몽이 아

9)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상)』 (서울: 도서출판 오월, 1988), 46쪽.

10) 이교덕, 『조선전사해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61쪽.

니고 동명부여의 건국자인 고두막한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기북부여조에서 상술한다.

북부여의 역년은 첫째, BCE 239년 건국에서 해모수의 혈통이 지속된 해부루가 동부여로 옮겨가는 BCE 86년까지 154년으로 볼 수 있고, 둘째, 고두막한이 세운 동명부여(졸본부여)인 후기 북부여를 포함하면 고주몽이 북부여의 7대 단군으로 등극하는 BCE 58년까지 182년으로 볼 수 있으며, 셋째, 고주몽이 고구려라는 국호를 쓰기 시작하는 BCE 37년까지 연장하면 203년이 된다. 고구려의 건국자 고주몽은 혈통적으로는 해모수의 고손자가 되고, 왕통적으로는 북부여의 7대 임금인 해모수를 태조로 삼아 사당을 지어 놓고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신당서』 「동이열전」 고려조에 다음과 같은 기술이 보인다.

「고구려비기」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구려의 역년이 900년에 미치지 못하여 80세가 되는 대장이 고구려를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고구려는 한나라 때부터 나라가 존재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900년이 되었고, 이적李勣의 나이가 80살입니다. (高麗秘記에 日不及九百年하야 當有八十大將滅之라 한데 高氏自漢有國하야 今九百年이요 勣年이 八十矣니이다.)<sup>11)</sup>

고구려는 북부여를 계승한 나라이다. 고구려의 건국을 해모수의 건국까지 소급해 올라가면  $239+668=907$ 년이 되고 오가가 공화정을 철폐하고 북부여에 귀의한 해로 계산하면  $232+668=900$ 년이 된다.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대총관 이세적(584~669, 바이두에는 594년생으로 되어있다)은 당시 나이가 85세였다. 북부여는 부여사의 실질적인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 4. 후기북부여(동명부여, 졸본부여)

후기 북부여를 기술하기에 앞서 위만왕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삼국유

11) 구양수 송기찬, 『신당서』 (북경: 중화서국, 1991), 6197쪽

사』에서는 고조선에 이어 위만조선을 기술하여 마치 고조선을 계승하여 위만조선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안정복은 『동사강목』 범례에서 “위만은 찬적篡賊인데 『동국통감』에서 단군 기자와 함께 3조선이라 일컬어서 마치 그와 덕도 같고 의리도 같은 것처럼 하였으나, 이제 편출貶黜하여 참국僭國한 예에 따랐다”<sup>12)</sup> 라고 하여 위만을 나라를 찬탈한 도적으로 보았다. 위만이 쫓아낸 준왕은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 아니라 북부여의 우익右翼을 담당했던 제후국 변조선의 임금이었다. 초대단군때부터 21대 소태단군 때까지 진한, 마한, 변한의 삼한관경제를 실시했고, 22대 색불루 단군부터 진조선, 막조선, 변조선의 삼조선으로 분조관경 하였으며, 변조선의 제도가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한 이후까지 지속되어 내려왔던 것이다. 따라서 변조선의 준왕을 쫓아내고 임금이 된 위만왕조는 단군조선의 후예가 아니므로 위만조선이란 말을 써서는 안되고 위만왕조 또는 위만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흥노를 격파한 한무제는 BCE 111년 남월국南越國을 평정하였고, BCE 108년 위만왕조를 멸망시키고, 같은 해 그 여세를 몰아 요동을 넘어 북부여를 침략하였다. 당시 북부여의 4세대단군 고우루는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였다. 이때 구국의 영웅인 고두막한이 의병을 일으켜 단군이라 칭하고, 한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BCE 108년 졸본에서 즉위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동명이어서 나라 이름을 동명국 또는 동명부여라 하였으며, 졸본에 도읍을 하여 졸본부여라고도 불렀다. 세력이 강성해지자 BCE 86년 4세 단군 고우루를 이어 왕이 된 해부루를 제후로 강등시켜 가섭원으로 추방하였으며, 이후 북부여라는 국호를 계승하여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고두막한의 부여를 후기 북부여라고 부른다.

현 한국 사학계에서는 동명왕 고두막한을 알지 못하고 동명왕하면 의례 고주몽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1922년 낙양 북쪽에서 발견된 연남산淵男産(639~701) 묘지명에 “옛적에 동명제께서 기운에 감응되어 사천을 넘어 나라를 여시고 주몽께서 태양 기운으로 임신되어 패수가에 도읍을 열었다”라고 하여 동명제와 주몽이 다른 사람이고 동명제가 주몽보다 앞선 사람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 연산군 때의 문신文臣인 김천령金千齡은 시부詩賦에서 “동명왕이 왕업을 개창하시

12) 민족문화추진회 번역, 『동사강목』 I (서울: 민족문화문고, 1985), 51쪽.

고 주몽이 그 여파餘派를 계승했다”고 하여 동명왕과 주몽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였다.

고주몽을 동명성왕東明聖王이라 한 곳은 『삼국사기』와 이를 계승한 『동국이상국집』에 실린 「동명왕편」 등 국내문헌에 국한된다. 『삼국유사』의 해석도 지금은 동명제를 고구려의 시조처럼 해석하나 “동명제가 북부여를 계승하여 흥기하여 도읍을 졸본주에 세워 졸본부여가 된다.” 까지는 고두막한의 일로 해석하고 이후의 “즉고구려지시卽高句麗之始”를 “이 졸본부여가 곧 고구려의 시작이다”라고 해석하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게 된다.

『삼국사기』 이전의 광개토태왕비(414년 건립), 모두루묘지명(5세기 무렵 작성), 집안 고구려비(4세기 말 이후 건립) 등의 당대의 금석문과 『위서魏書』(554년 편찬), 『양서梁書』(629년 편찬), 『주서周書』(636년 편찬), 『수서隋書』(636년 편찬), 『북사北史』(659년 편찬), 『통전通典』(801년 편찬) 등 중국의 문헌에는 시조의 이름을 각기 추모鄒牟와 주몽이라 하였을 뿐 별도의 왕호를 내세우지 않고 있다. 특히 고구려가 존재하였던 4~5세기 전후한 시기의 금석문에서는 추모왕 내지 추모성왕이라 하는 등 시조의 이름에 왕호를 덧붙이는 방식을 취하였다. 주목되는 사실은 중국 측 문헌에서 주몽은 고구려의 시조로 나오고 있음에 비해 동명東明은 부여 시조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찬자들이 고구려와 부여의 시조를 각기 주몽과 동명으로 구분하여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sup>13)</sup>

「북부여기」를 보면 동명왕 고두막한은 고열가 단군의 후손으로 BCE 108년 졸본에서 즉위한 후 구려하九黎河(서요하)를 건너 요동의 서안평西安平(요나라의 상경 임황부臨潢府, 지금의 내몽골 파림좌기巴林左旗)까지 한나라 군사를 추격하여 쫓아내었다. 이후 BCE 60년에 졸추하였다. 이후 태자 고무서高無胥가 북부여의 6세 단군으로 등극하였고 2년 만에 졸추하자 사위 고주몽이 BCE 58년 졸본卒本에서 7대 단군으로 등극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시조 동명성왕 조에 “주몽이 졸본부여에 이르렀을 때 그곳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주몽이 비상한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의 딸을 아내로 삼게

13)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 고구려본기 시조동명성왕,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다. 7/34



하였으며, 왕이 별세하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는 설도 있다”<sup>14)</sup>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이 『환단고기』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고구려의 역사가 시작되는 졸본卒本을 국내의 학자들은 요령성 환인현에 있는 오녀산성으로 보나 정인보 이유립 등은 흑룡강성 수분하시 동녕시東寧市 수양진綏陽鎭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동명부여(졸본부여)의 역년은 BCE 108년에서 BCE 58년까지 51년이고, 후기 북부여의 역년은 BCE 86년에서 BCE 58년까지 29년이 되며, 고구려로 국호를 바꾸는 BCE 37년까지 계산하면 후기 북부여의 역년은 50년이 된다.

고구려는 북부여를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백제를 건국하고, 그리고 신라의 초대 임금 박혁거세의 어머니 파소가 고두막한의 딸로 추정되고 경주에 자리 잡은 진한의 6촌이 모두 동명부여에서 이주한 사람 (『삼성기상』에서 “BCE 86년 고두막한이 부여의 고도故都를 점령하고 나라를 동명이라 하였으니 이 곳은 신라의 옛 땅이다”라고 하였다.) 이므로 삼국의 뿌리는 모두 북부여이고 특히 졸본부여가 된다.

## 5. 동부여(가섭원부여, 하부여)

『삼국유사』의 동부여조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북부여왕 해부루의 재상 아란불阿蘭佛의 꿈에 천제가 내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도록 할 것이니, 너는 다른 데로 피해 가라  
(동명왕이 장차 일어날 조짐을 말한 것이다). 동해가에 가섭원迦葉原이라는 곳이  
있는데, 땅이 기름져 왕도로 삼기에 적당하다.”

아란불은 왕에게 권고하여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동부여東扶餘라 하였다.

부루가 죽자 금와가 자리를 이어받아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태자 대소帶素에게  
왕위가 전해졌다. 지황地皇 3년 임오년(22)에 이르러 고구려왕 무휼無恤이 정벌하

14) 정민호 현토 주해, 『삼국사기』 3 (서울:명문당, 2023), 19쪽

고 대소를 죽이니 (그 후로부터) 나라가 망하였다.<sup>15)</sup>

위의 내용에서는 북부여의 정통을 계승한 해부루가 가섭원으로 이주해 나가는 이유를 천제天帝가 꿈에 내려와 계시해준 것처럼 각색을 했지만 동명부여의 힘에 밀려서 이주를 한 것이다. 주석에서 “동명왕이 장차 일어날 조짐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여 위협의 주체를 동명왕 고무막한이라는 단서를 남기고 있다. 그리고 국호를 동부여라 했다고 했는데, 『삼국사기』에서도 국호동부여國號東扶餘라고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sup>16)</sup> 그렇다면 동부여가 도읍한 가섭원은 어디인가.

정약용은 『아방강역고』에서 “전한 때에 북부여 왕 해부루가 동쪽의 강릉으로 옮겼는데 강릉을 예濊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sup>17)</sup>라고 하여 동부여의 수도를 강원도 강릉이라 했고, 이병도는 『삼국사기』 주석에서 동부여의 위치를 함경남도 지방에 있던 동예東濊를 이른다<sup>18)</sup>고 했는데, 이것은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이유립은 흑룡강성 송화강 북안北岸 통하현通河縣으로 이곳이 차릉岔陵이 된다<sup>19)</sup>고 하였다. 이설은 대단히 정확한데 고주몽이 BCE 79년 동부여에서 태어나 BCE 59년 엄리대수(송화강)를 지나 동남쪽으로 달아나 모둔곡(목단강시)을 거쳐 졸본에 도착하는데 통하에 있어야만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고주몽이 동남쪽으로 달아났다고 하는 기록은 『환단고기』, 『위서魏書』의 고구려조, 『북사北史』의 고구려조, 그리고 『통전通典』의 고구려조에도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다. 동부여는 BCE 86년 해부루(BCE 87~BCE 48)가 가섭원으로 이주한 이후 금와(BCE 48~7), 대소(BCE 7~CE 22)를 거쳐 108년간 지속되다가 고구려의 3대왕 대무신열제에 의해 망하게 된다.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면 영락 20년(410년) 광개토열제가 동부여를 정벌하는데 지금 말하는 동부여의 후손이 된다. 동부여는 당시 북부여의 속민이었으므로 하부여(『북부여기』하)라고도 불렀다.

15)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서울: 을유문화사, 2002), 56~57쪽.

16) 정민호 현토 주해, 『삼국사기』 3 (서울: 명문당, 2023), 10쪽.

17) 정약용 지음 이민수 옮김, 『아방강역고』 (서울: 범우사, 2004), 216쪽.

18)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서울: 을유문화사, 1987), 264쪽.

19) 이유립, 『대배달민족사』 (1) (서울: 고려가, 1987), 445쪽.



## 6. 갈사부여(북갈사)

『삼국사기』 대무신열제 5년조에 있는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E 22년 고구려 대무신열제가 군사를 동원하여 동부여를 정벌하였다. 동부여의 왕 대소는 전국의 군사를 동원하여 출전하였다. 대소왕은 말을 급히 몰아 진군하다가 진흙 수렁에 빠져서 앞을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게 되었다. 이때 고구려 장수 괴유(怪由)가 칼을 뽑아 들고 고함을 지르며 공격해가니 동부여의 1만의 군졸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버틸 수가 없었다. 이때 괴유가 곧바로 전진하여 부여 왕을 붙잡아 목을 베었다. 부여 사람들은 이미 왕을 잃고 기세가 꺾였으나 그래도 굴복하지 않고 고구려 군사를 여러 겹으로 포위하였다. 갑자기 큰 안개가 7일 동안 끼어 지척에서도 사람을 분별할 수 없었다. 고구려 열제께서 밤을 틈타 군사를 비밀리에 움직여 포위망을 벗어나 샛길로 뚫아냈다. 여름 4월에, <부여>왕 「대소」의 아우가 갈사수(加沙水)가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왕을 자칭하였다. 이 사람은 부여왕 금와(金蛙)의 막내 아들인데, 역사서에는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 처음에 대소왕이 살해되자 그는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자기를 따르는 자 백여명을 데리고 압록곡에 이르렀다가, 사냥 나온 『해두왕』을 죽이고 그의 백성을 빼앗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도읍을 정하였다. 이 사람이 곧 『갈사왕』이다.<sup>20)</sup>

그리고 태조 무열제 16년(CE 68년)조에 “가을 8월에 갈사왕의 손자 도두(都頭)가 항복해 왔다. 도두를 우태(于台)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을 보면 갈사부여는 CE 22년부터 68년까지 3대 47년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갈사부여가 위치했던 갈사수(加沙水)는 어디인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삼국사기』 대무신왕 22년 조의 주註에서는 “본서 권37 잡지6 지리4 ‘삼국유명 미상지분三國有名未詳地分’ 조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본서의 찬자도 그 위치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 따르면 해두국과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하였는데 압록곡에서 해두국왕을 만났다고 하니 압록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여

20) 정민호 현토 주해, 『삼국사기』 3 (서울:명문당, 2023), 60~62쪽.

겨진다”<sup>21)</sup>라고 하였다.

강단사학계에서는 지금의 압록강이 고대의 압록강이라고 생각하나 서요하도 압록하라고 불렀고 송화강도 압록강이라고 호칭하였다. 이유립은 이곳의 압록곡은 흑룡강성 동강현東江縣으로 송화강과 흑룡강이 합류하는 좌우의 계곡이라고 하였고 갈사수는 지금의 우수리강 유역流域이라고<sup>22)</sup> 하였는데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 7. 동부여후(남갈사)

『삼국사기』에서 CE 68년 8월 갈사국의 3대왕 도두都頭가 고구려에 항복하자 그를 우태于台로 삼았다고 하였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이 없다. 그러나 『가섭원부여기』에서는 “태조 무열제가 도두를 우태로 삼아 살 집을 주고 혼춘琿春을 식읍으로 주어 동부여후로 봉하였다”라고 하였다. 현재 혼춘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관할하는 현급시이다.

갈사 부여가 자리잡은 우수리강 유역은 북쪽에 위치 하므로 북갈사라고 부르고 동부여후로 봉해준 혼춘은 남쪽에 위치하므로 남갈사라고 부른다.

광개토태왕비문을 보면 영락 20년(410년) “동부여는 과거 추모왕의 속민이었으나 중간에 배반하여 조공을 받치지 않거늘 왕께서 몸소 정벌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동부여는 어딜까. 동부여는 CE 22년에 멸망했고, 이를 계승한 정치체는 북갈사를 계승한 남갈사의 동부여후가 유일하다.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도두왕이 동부여후가 된 이후 점차 세력을 넓혀 북갈사 지역까지 아우르면서 조공을 받치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자 광개토열제가 정벌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비문에서 동부여가 과거 추모왕의 속민이라 했는데, 동부여는 졸본부여의 힘에 굴복하여 가섭원으로 이주했으므로 후기북부여를 계승한 추모왕과 고구려에서 동부여를 속민이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보면 남갈사의 역년은 CE 68년에서 410년까지 343년이 된다.

21)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갈사국이 세워지다. 1/2

22) 이유립, 『대배달민족사』 (1) (서울:고려사, 1987), 447쪽.

## 8. 서부여(연나부부여, 낙씨부여)

서부여라는 말은 그 위치가 북부여와, 동부여 또는 고구려의 서쪽에 위치하므로 구분하기 쉽게 부르는 말이고 연나부부여 또는 낙씨부여라고도 부른다. 서부여의 출발점에 대해서 『삼국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가을 7월에 부여왕의 종제가 백성에게 “우리 선왕이 별세하고 나라가 멸망하여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고, 왕의 아우는 도망하여 갈사에 도움을 청하였으나, 나 역시 불초하여 나라를 부흥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만여 명을 데리고 귀순하여 왔다. 왕이 그를 왕으로 봉하여 연나부에 있게 하였다. 그의 등에 낙絡무늬가 있다 하여 성씨를 「낙絡」으로 정하여 주었다.<sup>23)</sup>

연나부의 위치에 대해 『삼국사기』 「잡지」 제6 지지4 ‘삼국유명 미상지분三國有名未詳地分’에 연나부가 포함되 있어 김부식은 연나부의 위치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환단고기』에서는 “대소의 종제從弟를 왕王으로 삼아 연나부에 안치했고 뒤에 자립하여 개원開原 서북에서 백랑산白狼山 계곡으로 옮겨가니 연燕나라와 가까운 곳이 이었다.”라고 하여 연나부의 위치를 요령성 개원시開原市의 서북쪽으로 기술하고 있다. 연나부가 옮겨간 백랑산은 백록산白鹿山, 대양산太陽山이라고도 부르는데 요령성 객좌현성에서 남서쪽으로 26km 떨어진 대릉하의 서쪽 강변에 있다. 이후 연나부부여는 중국의 후한, 삼국의 위魏나라, 진晉나라 등과 교류하면서 나라를 유지하였다.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三國志』 『진서晉書』 등에 기술된 부여전은 모두 이 서부여에 대한 기록이다.

서부여는 고구려와 중국의 사이에 위치하여 중국사료와 우리나라의 사료에 그 기록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서부여는 백랑산으로 이주한 이후 중국, 고구려와 일면 싸우고 일면 화친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신장시켰다. 후한, 삼국의 시대를 거쳐 쯔나라에 이르러 CE 285년 모용외慕容廆에게 격파되어 왕 의려依慮가 자살하였고, 자제들은 옥저로 달아나 나

23) 정민호 현토 주해, 『삼국사기』 3 (서울:명문당, 2023), 62쪽

라를 보전하였다. CE 286년 부여의 후왕 의려依羅는 진짚의 교위校尉 하감何龕에게 구원을 요청하였고, 그의 도움으로 나라를 회복하였다.<sup>24)</sup> CE 347년 영화永和 3년 모용황은 연왕세자 모용준과 모용각을 파견하여 17,00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부여를 기습하여 승리한 후 부여의 왕 및 백성 5만여 명을 사로잡아 돌아갔다.<sup>25)</sup>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되다가 CE 494년 명운을 다하게 된다. 『삼국사기』를 보면 “문자명왕 3년(494년) 2월에 부여의 왕과 왕비, 왕자가 나라를 들어 항복해 왔다”<sup>26)</sup>라고 하였으니, 이는 서부여가 고구려에 복속된 것을 의미한다. 『북부여기』에서는 “문자열제 명치明治 갑술甲戌년(494년)에 이르러 나라가 고구려에 굴복하여 들어가니 연나부 낙씨가 마침내 망했다”<sup>27)</sup>라고 하였다. 서부여는 CE 22년부터 494년까지 473년간 지속되었다. 대부여가 성립된 BCE 425년부터 계산하면 919년이 되고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한 BCE 239년부터 CE 494년 까지를 계산하면 총 역년이 733년이 된다.

## 9. 두막루국豆莫婁國(대막루大莫婁, 대막로大莫盧, 달말루達末婁)

부여계통의 나라로써 두막루국이 있다. 『위서魏書』 「두막루전豆莫婁傳」에서 “두막루국은 물길국勿吉國 북쪽 천리에 있는데 옛적의 북부여이다”<sup>28)</sup> 라고 하였고 『신당서新唐書』 「유귀전流鬼傳」에서 “개원 11년(723년) 달말루達末婁 달구達垢 2부의 수령이 조공을 받쳤다. 달말루는 스스로 북부여의 후예라고 말한다. 고구려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자 유민들이 나하那河를 건너 그곳에 살았다. 혹 타루하他漏河라고도 부르니 동북쪽으로 흘러 흑수로 들어간다”<sup>29)</sup>라고 하였다. 그리고 『위서』 「두막루전」의 내용이 『삼국지』 「부여전」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고 이 가운데 육축六畜으로 관직의 이름(우가, 마가, 구가, 저가, 계가, 양가)을 삼았다고 하였으니 두막루국이 북부여의 후예인 것은 의

24) 방현령등 찬, 『진서』 (북경: 중화서국, 1991), 2532쪽.

25) 방현령등 찬, 『진서』 (북경: 중화서국, 1991), 2532쪽.

26) 정민호 현토 주해, 『삼국사기』 3 (서울:명문당, 2023), 257쪽

27)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대전: 상생출판, 2012), 273쪽.

28) 魏收, 『위서』 (북경: 중화서국, 1992), 2222쪽

29) 구양수 송기찬, 『신당서』 (북경: 중화서국, 1991), 6210쪽.

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두막루국은 언제 건국되어 몇 년동안 지속되었는가. 『위서』 「물길전」을 보면 “물길이 항상 두막루등의 나라를 경시하였다”라고 하였고 “9년(북위 태화太和 9년으로 485년이다)에 다시 사신 후니지侯尼支를 보내 조회하고 방물을 바쳤고 다음해(486년)에 다시 공물을 바쳤다. 그리고 물길국 근처에 대막로국大莫廬國.... 우진후국羽真侯國 등 12국이 있는데 이를 전후하여 각각 사신을 보내 조회하고 방물을 바쳤다”<sup>30)</sup>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485년 이전에 두막루국이 있었다는 명백한 내용이 된다. 서부여는 494년에 고구려에 복속되었다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보면 두막루국은 서부여가 망하면서 그 유민들이 이주하여 세운 나라가 아니다. 물론 서부여가 존속해 오면서 여러 번 국가가 망할 위기가 있었다. 이때 일부의 세력이 북동 쪽으로 이주하여 두막루국을 세웠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필자는 두막루국은 410년 광개토태왕에 의해 멸망한 동부여후의 후예가 이주하여 세운 나라라고 사료된다.

그 이유는 첫째, 『신당서』 「유귀전」에서 자신들을 북부여의 후예라고 했는데 당시 동부여후는 북부여의 옛 땅에 살고 있었고 혈통적으로도 금와왕의 막내아들이기 때문에 해모수의 후예라는 의식이 강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서부여는 요하 서쪽에 나라가 있었고 혈통적으로도 의심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낙왕絡王을 대소의 종제라고 하였다. 이는 금와왕의 형이나 동생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돌 속에서 주워온 금와왕에게 형제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혹 있었더라도 해모수의 혈통이라는 의식이 약했을 것이다.

둘째, 「유귀전」에서 고구려에게 망한 나라의 유민들이 세웠다고 했는데 동부여후는 광개토태왕에게 멸망 당했지만 서부여는 494년 고구려에 귀순할 때까지 고구려에 의해 망한 적이 없다.

셋째, 나하 또는 타루하를 건너가서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다. 이 나하나 타루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강이 동북 쪽으로 흘러 흑수(흑룡강)로 들어간다고 했으니 동류 송화강의 하류가 나하나 타루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서부여는 요하의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너가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북갈사 지역인 오소리강 유역에서 서북 쪽으로 이동하면 송화강의 하류가 되므로 이를 건넜다는

30) 魏收, 『위서』 (북경: 중화서국, 1992), 2222~2223쪽

「유귀전」의 기록과 일치하게 된다.

넷째, 410년 광개토태왕의 동부여 정벌시 도성을 함락시키고 64개의 성을 깨트렸다고만 하였지 그 임금을 잡아왔다는 기록이 없다. 이를 보면 이때 동부여의 수장이 무리를 거느리고 북서 쪽으로 도망쳐 송화강(나하)을 건너 두막루국을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두막루국의 건국은 광개토태왕이 동부여를 정벌한 영락 20년 즉 410년일 가능성이 크고 나라가 위치했던 곳은 눈강의 동쪽, 동류 송화강의 북쪽, 아무르강(흑룡강)의 서쪽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두막루국은 언제 멸망했는가. 『책부원귀』 「외신부外臣部」 20 포이제삼褒異第三에 “12년 당현종(개원 12년 즉 724년) 달말루의 대수령 낙개제諸皆諸가 내조來朝했다.”<sup>31)</sup>라고 하여 이때까지 두막루국이 존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두막루국의 기록은 역사에 나타나지 않는다. 유태용은 두막루국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A.D. 726년에 당은 흑수말갈 지역에 흑수도독부黑水都督府를 설치하게 되자, 발해의 무왕武王은 흑수말갈이 독자적으로 당과 직접통교를 하는 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무왕은 당이 흑수말갈과 공모하여 발해를 공격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돌궐의 지원아래 동생 대문예大門藝와 장군 임아상任雅相으로 하여금 흑수말갈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의 군사적 실력을 익히 알고 있는 대문예가 이를 거부하자, 무왕武王은 대일하大壹夏로 하여금 대문예大門藝를 대신하게 하였다. 당시 발해는 제1송화강의 중류를 경계로 하여 흑수말갈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두막루국은 이때 제1송화강 상류북쪽과 눈강 중하류를 근거지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두막루국은 당-흑수말갈과 돌궐-실위-발해로 대치하는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거의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A.D. 726년까지 제1송화강 유역에서 발해군을 이끌고 북진정책을 지휘하고 있던 대문예(저자의견: 대일하 또는 임아상으로 고쳐야 한다)군과 흑수말갈군 사이에서 두막루국은 세력을 잃고 국토가 두 나라에 양분된 것으로 보인다.<sup>32)</sup>

31) 유태용, 「두막루국 흥망사 연구 시론」, 백산학보 제 70호, 154쪽.

32) 유태용, 「두막루국 흥망사 연구 시론」, 백산학보 제 70호, 156쪽.



이상의 내용으로 보면 두막루국은 410년에서 726년까지 317년간 존속하였다. 부여의 총 역년은 북부여가 건국된 BCE 239년부터 두막루국이 망한 726년까지 계산하면 965년이 되고 대부여가 성립한 BCE 425년부터 726년까지 계산하면 1,151년이 되어 천년을 훌쩍 넘게 된다. 끝으로 두막루의 뜻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처럼 나라 이름으로 쓰인 경우와 인명으로 쓰인 경우가 있는데 21세 단군때 우현왕 고등高登을 두막루라고 했고, 동명왕 고두막한도 두막루라고 불렀다.

두막루의 두묘는 두頭(머리, 으뜸)의 뜻이다. 고구려의 두대형頭大兄처럼 가장 높은 것을 나타내는 접두어이다. 막루는 고을 또는 고을의 우두머리(마루)를 의미한다. 고을의 뜻일 때 두막루국豆莫婁國은 최고의 나라라는 뜻이 된다. 고을의 우두머리란 뜻일 때 여러 고을을 다스리는 총수, 또는 우두머리 중의 우두머리, 최고 지도자라는 의미가 된다.



남부여를 제외한 9개 부여의 위치

## 10. 남부여南夫餘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의 26대 성왕聖王(523~554)은 “16년(538년) 봄에 도읍을 사비泗比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다”<sup>33)</sup>라고 하였다. 백제의 시조 온조왕은 아버지가 고주몽이고, 어머니가 북부여의 6세 단군 고무서의 딸 소서노이다. 고주몽이 북부여의 7대 단군이 되니 백제의 뿌리는 부여가 된다. 그리하여 백제의 왕족은 부여라는 성을 사용했다. 『삼국유사』에서 “백제왕의 성이 부씨扶氏”<sup>34)</sup>라고 했는데 이는 부여씨의 오류이다. 중국 사서에서 백제의 왕족 장군을 여고餘古, 여력餘歷, 여고餘固, 여기餘紀, 여곤餘昆, 여류餘流, 여루餘婁 등으로 기술<sup>35)</sup>한 것은 성과 이름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성왕이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면서 남부여라는 국호를 사용한 것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무령왕 소가계 집단의 우월성을 내세워 다른 귀족 세력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강종원, 사비천도의 단행과 왕권 중심의 지배체제 확립, 2007), 한성에 기반을 둔 남래귀족들의 지지와 부여를 멸망시킨 나라는 무도無道한 나라가 되며 백제는 부여를 남쪽에서 부흥시킨 정통 왕조로 인식하게 하여 중국 남조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정재운, 백제의 부여계승의식과 그 의미, 2008) 백제가 마한의 땅에 자리 잡았지만 부여족의 정통성을 주장하여 한성지역의 회복의지를 위한 왕족과 귀족들의 결정을 위한 것으로도 보는 견해 등이 있다.<sup>36)</sup> 남부여라는 국호는 천도후 사용되다가 성왕 사후 다시 백제로 복구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10개 부여를 도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33) 정민호 현토주해, 『삼국사기』2 (서울: 명문당, 2023), 182쪽.

34)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서울: 을유문화사, 2002), 207쪽.

35) 문정창, 『백제사』 (서울: 인간사, 1988), 46쪽, 189쪽.

36)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 백제본기, 성왕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칭하다. 2/3.



환단고기를 통해서 본 열 개의 부여와 부여 천년의 역사 / 윤창열

번호	명칭	시기	내용
1	원시부여	• 초대 단군 이후	초대 단군이 넷째 아들 부여를 부여후로 봉해준 땅에서 기원. 농안 장춘지역. 최초의 부여로 이후 부여라는 명칭의 기원이 됨
2	대부여	• 44세 구물단군 ~ 47세 고열가단군, BCE 425~238(188년)	단군조선의 제3왕조 시대, 장당경아사달(요령성 개원)에 도읍한 이후 고조선이 끝날 때까지. 부여의 위치가 백악산 아사달 지역이므로 비록 수도를 장당경으로 옮기지만 백악산아사달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다.
3	북부여 해씨부여	• 해모수가 건국한 해부터 고주몽이 7세 단군이 된 해까지. BCE 239~58 (182년)	해모수가 건국한 BCE 239년부터 해모수의 혈통이 계승한 BCE 86년까지 154년 간을 전기북부여라 하고 고두막한이 계승한 BCE 86년 이후 고주몽이 등극하는 BCE 58년까지 29년 간을 후기북부여라 한다
4	졸본부여 동명부여 (후기북부여)	• 고두막한이 의병을 일으켜 즉위한 BCE 108년에서 북부여를 계승한 86년까지(23년)	동명왕 고두막한이 의병을 일으킨 후 졸본에서 즉위하여 졸본부여라고도 하고 스스로를 동명이라 불러 동명부여라고도 부른다. 후기북부여 시대(BCE 86~58)까지도 이 명칭이 함께 쓰였다고 본다.
5	동부여 가섭원부여 하부여	• BCE 86~CE 22년(108년)	고두막한의 세력에 밀려 해부루가 제후로 강등되어 가섭원(지금의 흑룡강성 퉁하현)으로 이주한 기원전 86년부터 3세 대소왕이 고구려 태무신열제에게 죽은 해(CE 22년)까지.
6	갈사부여 (북갈사)	• CE 22~68 (47년)	대소의 막내 동생이 CE 22년 4월 압록곡에서 해두왕을 죽이고 갈사수(우수리강) 강변에 세운 나라. CE 68년 고구려 태조무열제에게 항복.
7	동부여후 (남갈사)	• CE 68~410?(343년)	북갈사의 3세 도두왕이 항복하자 고구려에서 도두왕에게 우태라는 직책을 내리고 혼춘을 식읍으로 주고 동부여후에 봉해줌. 410년 광개토태왕의 정벌에 의해 멸망된 것으로 추정된다

번호	명칭	시기	내용
8	연나부부여 낙씨부여 서부여	• CE 22~494년 (473년)	CE 22년 7월 대소의 종제가 고구려에 항복하자 연나부(요령성 개원 서북)에 살게 하고 왕으로 봉해 줌. 그 뒤 백랑산(객좌현성 남서쪽)으로 이주하여 중국과 고구려 사이에서 나라를 유지하다가 494년 고구려에 항복.
9	두막루 대막루 대막로 달말루	• CE 410?~726 (317년)	고구려가 동부여후(남갈사)를 멸망 시키자 그 유민들이 나하(那河)를 건너 건국한 나라이다. 726년 대진국 광종 무항제때 멸망하였다. 위치는 눈강 동쪽 송화강 북쪽이다. 자신들을 스스로 북부여의 후예라고 말하였다. 410년은 광개토태왕비문에서 태왕이 동부여를 멸망시킨 해로 기술되어 있다.
10	남부여	• CE 538~554	백제 성왕이 538년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하면서 일시적으로 이 명칭을 씀. 그의 사후 명칭이 없어졌다고 사료됨.

### Ⅲ. 부여사의 왜곡과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부여

필자는 위에서 10개의 부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원시부여와 고조선의 끝자락인 대부여, 그리고 두막루국과 남부여의 4개의 부여를 제외하더라도 해모수의 북부여 건국(BCE 239년)에서부터 졸본부여·동부여(갈사부여, 동부여후)를 거쳐 서부여가 명운을 다하는 CE 494년까지 733년 동안 비록 부여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각기 다른 시기에 위치를 달리하여 부여는 존재하였다.

한국사에서 부여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환단고기』에 범장이 쓴 「북부여기」가 존재하여 모든 부여를 계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었다. 이를 통해서 보면 한국과 중국의 사서에 단편적으로 기술된 모든 부여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 수많은 사서가 있지만 지면상 『아방강역고』에 기술된 부여 관련 내용을 통해 부여사에 대한 무지와 왜곡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약용은 『아방강역고』에서 부여는 넷이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하나는 북부여北扶餘이고, 《후한서後漢書》·《위지魏志》·《진서晉書》에 모두 본전本傳이 있고, 고구려·백제의 역사에 사실이 모두 자세하니 지금 다시 쓸 것이 없다. 다만 《위서魏書》에 "주몽의 증손 막래莫來 때에 부여를 쳐서 복속시켰다."고 했고, 《북사北史》·《수서隋書》도 모두 여기에 좇았는데, 만일 그러하다면 북부여가 고구려에 통합된 것이 한漢나라 광무제光武帝의 건무建武 말년의 일이 된다. 그러나 《한서漢書》에는 헌제獻帝 때에 북부여 왕이 현도에 아주 복속되었다고 했고, 《위지》에는 관구검關丘劍이 고구려를 치자 부여 왕이 그들의 군량을 제공했다고 했으며, 〈진서〉에는 모용외慕容廆가 부여를 쳐서 깨트리니 그 왕 의려依慮가 자살하므로 황제가 조서를 내려 그 남은 무리들을 찾아 나라를 회복하게 했다고 한다. 이 두 가지 설을 살펴보면 〈위서〉, 〈북사〉의 말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고구려사를 살펴보면 문자왕文咨王 3년에 부여 왕이 나라를 들어 항복했고, 그 이듬해에 시신을 보내 위위僞魏에 조공을 드리고 부여가 물길勿吉에게 쫓겨난다고 했으나, 북부여가 망한 것은 원위元魏 경명景明 4년의 일이 틀림없다. 둘째는 동부여東扶餘이니, 고구려사에 북부여 왕 해부루解夫婁가 가섭원迦葉原으로 옮겨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했다. 셋째는 졸본부여로, 고구려가 처음 차지했던 터이다. 네번째 사자부여泗沘扶餘는 남부여南扶餘라고도 하며, 백제의 옛 도읍인 지금의 부여현扶餘縣이 곧 그 땅이다.<sup>37)</sup>

위의 기술은 많은 오류와 왜곡 그리고 분명하지 않은 곳이 있다.

첫째, 북부여를 이야기하면서 『후한서』, 『위지』, 『진서』에 모두 본전이 있다고 했는데 중국사서에 있는 부여전은 모두 서부여에 대한 내용으로 북부여와 관련이 없다.

둘째, 이어지는 『위서』, 『북사』, 『수서』, 『위지』, 『진서』에 기술된 모든 부여 관련 내용도 북부여와는 관련이 없고, 모두 서부여의 역사이며, 간혹 두막루국에 관한 내용이 있다. 전기북부여는 BCE 239~BCE 86년까지 존속하였고, 후기북부여는 BCE 58년 고주몽이 북부여의 7대 단군이 되면서 고구려로 계승되어 위의 역사서가 기술될 당시

37) 정약용지음 이민수 옮김, 『아방강역고』 (서울: 범우사, 2004), 155~156쪽.

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셋째, 『위서』 「고구려전」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여 “부여가 물길에게 쫓겨났다고 했으니 북부여가 망한 것은 원위 경명 4년의 일이 틀림없다”고 했는데 경명 4년은 503년으로 결코 북부여가 망한 해가 아니다. 물길에게 쫓겨난 부여는 두막루국이고 이때 망하지 않고 726년까지 지속되었다.

넷째, 북부여·동부여·졸본부여 등을 말했지만 인물과 시대를 구분하지 않아 혼동을 불러 일으킨다.

다섯째, 졸본卒本의 위치를 같은 책에서 개원開原시 동남쪽 또는 흥경興京(저자보충: 요령성 무순시 신빈현 서쪽. 혁도아랍赫圖阿拉. 누루하치가 거병한 1583년부터 1621년 요양으로 천도할 때까지 후금의 본거지) 북쪽의 물 건너 땅, 동부여의 위치를 강릉 등으로 잘못 비정하여<sup>38)</sup> 후학들로 하여금 혼란만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왜곡된 역사를 계승하고 식민사학을 추종하고 있는 현 사학계의 부여사 인식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교과서들이 대동소이하고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두 종류만 살펴보고자 한다.

만주 송화강의 평야 지대에 자리 잡은 부여는 왕이 중앙을 다스렸고 여러 가(加)들이 사출도를 관할해서 지배력을 행사하였다.<sup>39)</sup>

부여는 송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1세기 초 부터 왕호를 사용하였고 왕 아래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 여러 가加 들이 있었다. 이들은 사출도라고 부르는 독자적인 영역을 다스렸다. 또한 흉년이 들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물어 왕을 교체하기도 하였다.<sup>40)</sup>

38) 정약용지음 이민수 옮김, 『아방강역고』 (서울: 범우사, 2004), 157~158쪽, 2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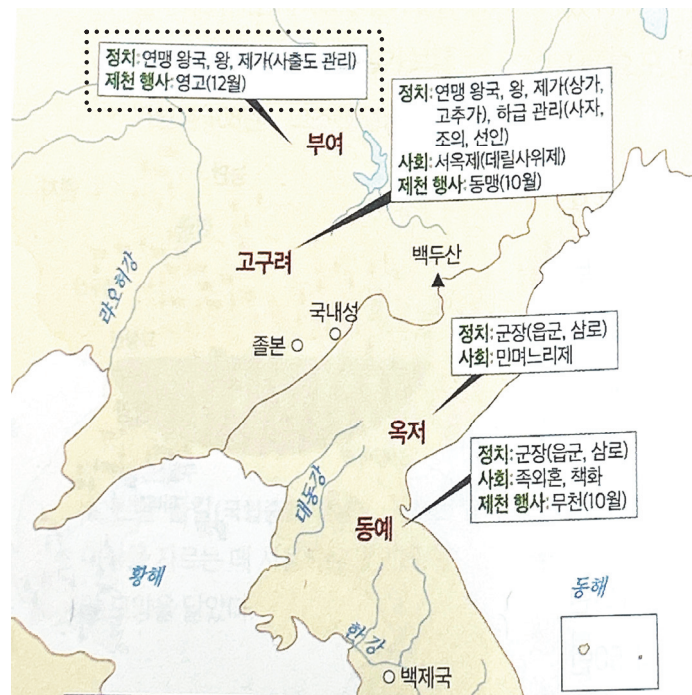
39) 도면희 외 7인 『고등학교 한국사』1 (서울: (주) 비상교육, 2005), 10쪽.

40) 김보림 외 7인, 『고등학교 한국사』 1 (서울: (주) 리베르스쿨, 2025), 14쪽.

환단고기를 통해서 본 열 개의 부여와 부여 천년의 역사 / 윤창열



비상교육 교과서



리베르스쿨 교과서

위의 잘못된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기 다른 부여와 시대구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마치 하나의 부여만이 있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둘째, 송화강 유역에 있었던 부여는 전기북부여(BCE 239~86) 뿐이고 서부여(CE 22~494)가 있었던 곳은 대릉하 상류 이북이다. 위치는 송화강을 이야기하면서 내용은 중국 사서에 있는 서부여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어 시대와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부여에 대한 거의 모든 설명이 진수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내용에 따라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하고 가축이름의 관직명을 썼고, 사출도가 있었고 순장을 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서부여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북부여·졸본부여·동부여 등의 부여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질성은 있을 수 있지만 서부여 이외의 부여와는 관련이 없다.

부여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 의해 어디에서 언제 건국되어 몇 년간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 인식이 중요하다. 인물 및 나라가 위치했던 장소, 그리고 존재했던 기간 등을 모두 무시하고 하나의 부여라고만 인식하는 폐단이 사라져야만 한국사의 잃어버린 고리 부여사는 올바르게 정립이 될 것이다.

## IV. 결론

『환단고기』를 통해서 본 열 개의 부여와 부여 천년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원시부여는 초대 단군이 넷째 아들 부여를 봉해준 땅으로 이것이 최초의 부여이고 위치는 지금의 길림성 농안 장춘 일대이다. 이 부여라는 명칭은 이후 모든 부여 명칭의 근원이 된다.
2. BCE 425년 단군조선의 44대 구물 단군은 우화충의 반란을 평정하고 장당경아사달에 도읍하여 대부여라고 국호를 바꾸었는데 이것이 단군조선의 제3왕조이다.



47대 고열가 단군이 제위를 버리고 떠나는 BCE 238년까지 188년간 지속되었고 장당경은 지금의 요령성 개원이다. 대부여라고 국호를 쓴 이유는 수도를 비록 옮기지만 이전 수도 백악산아사달이 부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다.

3. 부여사의 실질적인 시작은 북부여이다. BCE 239년 해모수에 의해 건국되었고 해부루가 가섭원으로 쫓겨가는 BCE 86년까지 154년간 지속되었으며 백악산아사달이 있었던 농안 장춘지역이 중심지였다.
4. 한무제가 위만왕조를 멸망시키고 북부여를 침략하자 동명왕 고두막한이 의병을 일으켜 한나라 군사를 격퇴하였다. 이에 BCE 108년 졸본 땅에서 임금의 자리에 오르고 BCE 86년 북부여의 5대 임금인 해부루를 가섭원으로 추방하고 북부여의 정통을 계승하였다. 고무서 단군을 거쳐 고주몽이 BCE 58년 제위에 올라 BCE 37년 고구려라고 국호를 바꾸니 이 때까지의 부여를 동명부여 졸본부여 또는 후기북부여라고 부른다.
5. 동명부여의 고두막한의 힘에 밀려 북부여의 5대 임금 해부루가 BCE 86년 가섭원으로 이주하니 이곳은 흑룡강성 통하현이고 이를 동부여라고 부른다. 동부여는 이후 금와왕, 대소왕을 거쳐 CE 22년 고구려 대무신 열제에게 망할 때까지 역년이 108년이였다.
6. CE 22년 동부여가 멸망할 당시 금와왕의 막내아들이 압록곡에서 해두왕을 죽이고 갈사수 가에 나라를 세웠는데 이를 갈사부여 또는 북갈사라고 한다. 갈사수는 우수리강 유역으로 추정되며 CE 68년까지 3대에 걸쳐 47년간 지속되었다.
7. CE 68년 북갈사의 3대왕 도두왕이 고구려에 항복하자 고구려에서 혼춘을 식읍으로 주고 그를 동부여후에 봉해 주었는데 이를 남갈사라고 부른다. 410년 광개토열제는 동부여를 정벌했는데 이 동부여가 혼춘에 봉해졌던 동부여후의 후손으로 추

정된다. 이렇게 보면 동부여후의 역년은 343년이 된다.

8. 서부여는 CE22년 동부여가 멸망할 때 고구려는 대소왕의 4촌 동생을 개원 서북에 있는 연나부에 봉해주었다. 이후 서부여(연나부부여)는 대릉하 상류로 이동하여 중국과 고구려 사이에서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CE 285년 모용외에게 격파되어 나라가 거의 멸망직전까지 이르렀고 그 후 다시 회복하여 나라를 유지하다가 CE 494년 고구려에 병합되었으니 총 역년이 473년이 된다.
9. 두막루국은 410년 광개토태왕에 의해 멸망한 남갈사의 유민들이 송화강 하류를 건너 그 북쪽에 세운 나라로 추정된다. CE 485년을 전후하여 북위에 사신을 보냈고 724년에도 당나라에 조회한 기록이 나온다. 이후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데 726년 대진국과 흑수말갈에 의해 나라가 양분되어 멸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막루국은 CE 410년에서 726년까지 317년간 존속한 것으로 보인다. 부여라는 나라의 총 역년은 북부여가 건국된 BCE 239년부터 두막루국이 멸망한 726년까지 계산하면 965년이 되고 대부여가 성립된 BCE 425년부터 계산하면 1151년이 되어 천년을 넘게 된다.
10. 남부여는 백제의 26대 성왕이 538년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기면서 일시적으로 사용되었고 성왕 사후 다시 백제로 복구된 것으로 보인다.
11.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여사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지속에서 왜곡되어 왔다. 그러나 『환단고기』에 「북부여기」가 있어 부여사가 회복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다.
12. 부여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부여를 건국한 인물, 각기 다른 부여가 존재했던 기간, 그리고 그 부여가 위치했던 지리적인 위치 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 참고문헌

### (논문 및 단행본)

- 구양수 송기찬, 1991, 『신당서』, 중화서국(북경).
- 김보림 외 7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 (주) 리베르스쿨.
- 김원중 옮김, 2002,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 도면희 외 7인, 2005, 『고등학교 한국사』 1, (주) 비상교육.
- 문정창, 1988, 『백제사』, 인간사.
- 방현령 등 찬, 1991, 『진서』, 중화서국(북경).
- 북애 지음 고동영 옮김, 2005, 『규원사화』, 한뿌리.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8, 『조선통사』(상), 도서출판 오월.
- 안경전 역주, 2012, 『환단고기』, 상생출판.
- 魏收, 1992, 『위서』, 중화서국(북경).
- 유태용, 「두막루국 흥망사 연구 시론」, 백산학보 제 70호
- 윤창열, 2023, 『환단고기연구』, 상생출판.
- 이교덕, 1994, 『조선전사해제』, 민족통일연구원.
- 이병도 역주, 1987,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 이유립, 1987, 『대배달민족사』 (1), 고려가.
- 정민호 현토 주해, 2023, 『삼국사기』 (3), 명문당.
- 정약용 지음, 이민수 옮김, 2004, 『아방강역고』, 범우사.

### (웹 자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 고구려본기, 시조 동명성왕,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다. 7/34
-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갈사국이 세워지다. 1/2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 백제본기, 성왕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칭하다. 2/3.

## The ten branches of Buyeo and the millennium history of Buyeo as interpreted through *Hwandangogi*

Yun Chang-Yeol\*

Primitive Buyeo referred to the land granted by the first Dangun to his fourth son, Buyeo. Located in the present-day Nong'an Changchun region, it became the origin of all subsequent names bearing the Buyeo. Great Buyeo (425–238 BCE) was established during the third royal dynasty of Dangun Joseon and had its capital at Jangdanggyeong Asadal, which corresponds to present-day Kaiyuan in Liaoning Province. The substantive beginning of Buyeo history is generally traced to Northern Buyeo. It was founded by Hae Mosu (239–58 BCE), and was named for its location north of Great Buyeo. Its capital was established in the Baekaksan Asadal region, corresponding to present-day Nong'an Changchun region.

Dongmyeong Buyeo (also known as Jolbon Buyeo, 108–86 BCE) was founded by King Go Dumak, who defeated the invasion of Emperor Wu of Han. In 86 BCE, he expelled the descendants of Hae Mosu and succeeded Northern Buyeo, which was referred to as Later Northern Buyeo. It continued to exist until Go Jumong founded Goguryeo. Eastern Buyeo (86 BCE–22 CE) was founded by Hae Buru, who had been expelled by King Go Dumak, and established its capital in Tonghe County, Heilongjiang Province.

North Galsa (22–68 CE) was established by the youngest son of King Geumwa in the region along the Ussuri River. South Galsa (68–410 CE) emerged in 68 CE, when King Dodu, the third ruler of North Galsa, was installed in Hunchun as the Lord of Eastern Buyeo after he surrendered to Goguryeo. West Buyeo (Yeonabu Buyeo, 22–494 CE) emerged in 22 CE, when a fourth cousin of Daeso surrendered and was subsequently installed in the Yeonnabu region, which later developed into an independent state. Dumaeklu-guk (410–526 CE) was a state established in the north of the Songhua River by the remnants of South Galsa after its destruction by King Gwanggaeto the Great. South Buyeo (538–554 CE) was a temporary name used by King Seong of Baekje when he relocated the capital from Ungjin to Sabi in 538 CE.

환단고기를 통해서 본 열 개의 부여와 부여 천년의 역사 / 윤창열

Key words: Hwandangogi(환단고기), Buyeo(부여), Daebuyeo(대부여), Northern Buyeo(북부여), Jolbon Buyeo(졸본부여), Eastern Buyeo(동부여), Galsa Buyeo(갈사부여)

\* Honorary Professor,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접수일: 2025. 5. 2. / 심사완료: 2025. 5. 20. / 게재확정일: 2025. 5. 21.

# 진변군의 실재성 고찰을 통한 한사군의 허구성 고발

안병우\*

- I. 들어가는 말
- II. 단군조선에 관한 이해와 오해
  - 1. 단군조선의 실재
  - 2. 단군조선과 삼한관계
  - 3. 삼조선과 기자조선
- III. 진변의 실체
  - 1. 서론
  - 2. 진변의 유래
  - 3. <조선열전> 속 진변의 위치
  - 4. 진변군의 실존문제
- IV. 한사군의 허구성 고발
- V. 맺음말

【주제분류】 한국사

【주요용어】 기자조선, 단군조선, 변조선, 삼한관계, 위만조선, 진변, 진변군, 한사군

【요약문】 한사군의 하나인 진변군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진변에 관한 주요 기록을 남긴 『사기』 <조선열전>을 분석하였다. 『사기』는 조선에 관한 기록을 남겼으나 그 조선은 단군조선이 아니고 위만조선이다. 『사기』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단군조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단군조선은 진한, 변한, 마한이라는 삼한관계의 나라였다. 하나의 조선이지만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각기 진한, 변한, 마한이라고 했고, 이것을 삼한관계라고 했다. 단군이 직접 통치한 나라는 북만주에 있었던 진한으로 2,096년간 47대의 단군이 통치하였으며, 삼한의 중심이었다. 변한은 오늘날 중국 대륙의 동부에 위치해 있었던 나라로서 중국 사료에 언급되는

\* 충북대학교(전자메일: bwahn@cbu.ac.kr)

조선이었다. 조선의 수도가 험독이라는 기록은 변한의 수도를 말하는 것이며, 기자가 조선으로 왔다는 것은 변조선으로 온 것을 말한다. 준왕은 변조선의 마지막 왕이며, 진한과는 무관하다. 이처럼 삼한의 역사를 따로 구분해서 보아야 함에도 삼한관경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보니 단군조선의 진실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사기』 〈조선열전〉은 전국시대 연나라의 침입으로 조선이 진번지역을 빼앗겼다고 했다. 이것은 『위략』과 『사기』 〈흉노열전〉에 나오는 진개의 조선 침략사건 때 일어난 일을 말한다. 그때 빼앗긴 강역은 그후 진나라를 거쳐 한나라에서 계속 관할하였다. 한나라는 연왕 노관으로 하여금 그 땅을 지키게 하였는데 이때 한나라와 변조선의 경계는 패수였다. 진번은 말하자면 패수를 경계로 서쪽지역에 속해 있었다. 노관이 흉노로 도망가자 그의 무리 중 한 명이었던 위만은 패수를 건너 동쪽에 있는 변조선으로 와서 상하장에 거주하면서 있다가 1년 후 도성을 침입하여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세워진 위만정권은 그의 손자 우거왕에 이르러 한무제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된다. 위만이 변조선을 침탈하고 위만조선을 세운 후 한무제에 의하여 멸망할 때까지 한나라와의 국경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위만조선이 있던 자리에 한사군을 두었는데 진번군은 논리적으로 위만조선의 강역에 있을 수가 없다. 진번군은 진번이 있던 곳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인데, 패수의 동쪽에 있는 위만조선 강역에 패수의 서쪽에 있었던 진번이 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번군은 허구라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한사군은 신뢰할 수 있는가. 『북부여기』에 따르면 위만조선을 멸한 한무제는 그 자리에 한사군을 설치하고자 여세를 몰아 북부여로 진격하였다. 이때 고두막한이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하여 창 의기병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건지게 되는데, 북부여와 한나라 간의 전쟁은 무려 22년간 이어졌다. 이 대전쟁은 북부여의 승리로 결말이 났으며, 그 결과로 고두막한은 북부여의 제5세 단군이 되었다. 전쟁에서 참패한 한무제는 이러한 치욕의 역사를 모두 지워버렸고, 사마천은 다만 위만조선을 멸한 사실을 적으며 머리속 계획에 불과하였던 사군설치를 마치 사실인양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코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사군의 이름은 남기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I. 들어가는 말

진번군은 한무제가 위만정권을 멸하고 그 자리에 두었다고 하는 소위 한사군의 하나이다. 진번군이 등장하는 최초의 문서는 반고의 『한서』 〈조선전〉이다. 반고의 『한서』 〈조선전〉에 나오는 진번군은 『사기』 〈조선열전〉에 등장하는 진번을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서』 〈조선전〉은 『사기』 〈조선열전〉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껴 쓴 것으로 보이는 바, 『사기』에서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두었다’<sup>1)</sup>고 한 것을 『한서』에서는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진번, 임둔, 낙랑, 현토 사군을 두었다’<sup>2)</sup>고 사군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고는 무엇을 근거로 사군의 이름을 넣을 수 있었을까? 사마천은 서기전 145~서기전 86년에 생존하였으므로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했다고 하는 당시의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위만조선 멸망의 결과로 설치했다고 하는 한사군의 이름을 적지 못했다. 사마천 자신도 한사군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왜 몰랐을까? 한군현으로도 불리는 한사군은 사실 4군인지 자체가 애매한 구석이 많다. 『삼국유사』 〈고조선〉에는 『당 배구전』을 인용하면서 “한이 조선 땅에 삼군을 나누어 설치하였는데 현토, 낙랑, 대방이라고 하였다”고 했고, “『통전』에서도 이러한 설을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 주석에서는 “『한서』에서 진번, 임둔, 낙랑, 현토 사군이라고 하였으니 군현의 숫자와 이름이 다른 것은 무슨 까닭인가”<sup>3)</sup> 하고 의문을 표한 바 있다. 기실 한군현의 갯수에 대해서 사서마다 제각각이어서 한군현의 갯수는 물론 사실성 자체에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사마천은 『사기』 〈흉노열전〉에서도 “이 무렵 동쪽으로 예맥과 조선을 함락시켜 군郡으로 삼았다.”<sup>4)</sup>라고 그냥 군郡이라고만 했지 그 이름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사군 중에서도 낙랑과 현토의 경우 사료에 빈번히 등장하고 있어 존재에 대한 객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진번과 임둔의 경우 역사나 위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1) 『사기』 〈조선열전〉. 遂定朝鮮爲四郡

2) 『한서』 〈조선전〉. 遂定朝鮮眞番臨屯樂浪玄菟爲四郡

3) 『삼국유사』 〈고조선〉. 周以封箕子爲朝鮮 漢分置三郡 謂玄菟樂浪帶方(北帶方) 通典亦同此說(漢書則 眞臨樂玄四郡 今云三郡名又不同 何也)

4) 『사기』 〈흉노열전〉. 是時漢東拔穢貊 朝鮮以爲郡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진번이라는 존재의 실체와 진번군의 허구성, 나아가 한사군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문제점 등에 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 II. 단군조선에 관한 이해와 오해

### 1. 단군조선의 실재

진번에 관한 기사는 『사기』 〈조선열전〉에 처음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진번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고조선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선열전〉에서 말하는 조선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알아야 〈조선열전〉에서 전하고 있는 사실史實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위서魏書』에 이르기를 2천 년 전에 단군왕검이 계셔서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하시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 하였다.<sup>5)</sup>

(B) 『고기古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왕검王儉의 아버지는 단웅檀雄이요, 어머니는 웅씨왕熊氏王의 따님이다. 신묘(서기전 2370)년 5월 2일 인시寅時에 박달나무가 우거진 숲(檀樹)에서 태어나시니, 신인神人의 덕이 있어 원근 사람들이 모두 경외敬畏하여 따랐다. 14세 되던 갑진(서기전 2357)년에, 웅씨왕이 그 신성함을 듣고 비왕裨王으로 천거하여 ‘대읍국大邑國’의 국사를 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무진년 당요唐堯 때에 단국檀國에서 돌아와 아사달의 박달나무가 우거진 터(檀木之墟)에 이르시니 온 나라 백성이 천제의 아들로 추대하였다. 구환족九桓族을 합쳐서 하나로 통일하시고 신성한 덕화가 멀리까지 미치니 이 분이 단군왕검이시다. 성조께서 비왕으로 24년, 제왕으로 93년 동안 재위하셨고 그 수壽는 130세였다.<sup>6)</sup>

5) 『삼국유사』 〈고조선〉. 魏書에 云 乃往二千載 有檀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 與高同時.

6) 이암, 『단군세기』. 古記云 王儉父檀雄 母熊氏王女 辛卯五月二日寅時 生于檀樹下 有神人之德 遠近畏服. 年十四甲辰 熊氏王聞其神聖 舉爲裨王 攝行大邑國事 戊辰唐堯時 來自檀國至阿斯達檀木之墟 國人推爲天帝子 混一九桓 神化遠暨 是謂檀君王儉. 在裨王位二十四年 在帝位九十三年 壽一百三十歲.

『삼국유사』와 『단군세기』에 의하면 단군조선은 단군왕검이 서기전 2,333년에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세운 나라이다. 최근 학계 일각에서 단군이 조선을 개국한 시점이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A)에서는 단군이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고 했고, (B)에서는 당요무진년이라고 했다. 더욱이 『삼국유사』의 찬자 일연도 분명히 단군조선이 당나라 요임금 무진년에 나라를 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7)</sup>

단군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삼국유사』 〈고조선〉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중국사서 『위서』를 인용하여 단군왕검의 존재, 조선의 건국장소, 건국시점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A)), 다음으로 우리의 전통사서인 고기를 인용하여 단군조선의 소자출에 해당하는 환웅의 배달국 개창의 역사를 기록한 부분(생략),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단군조선의 전체 역사를 간략히 기술한 부분이다.

당唐나라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이 되던 경인庚寅년(요가 즉위한 원년은 무진년이므로 재위 50년은 정사년이지 경인년이 아니므로 이것이 사실인지 의심스럽다)에 평양성(지금의 서경)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는데 그곳을 궁홀산弓忽山, 또는 금미달이라고도 하니 이곳에서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기묘己卯년에 무왕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니, 이에 단군이 장당경으로 옮겨 가셨다가 뒤에 돌아와 아사달에 은거하여 산신이 되시니 수가 1,908세이셨다(이하 생략).<sup>8)</sup>

7) 무진戊辰년은 초대 단군왕검께서 38세 되시던 해로 당唐나라 요임금 25(BCE 2333)년이다. 이 단군기원 원년에 대해서는 문헌 기록상 ‘당요무진唐堯戊辰歲(BCE 2333)’과 ‘당요 즉위 50년 경인庚寅歲’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경인歲’는 『삼국유사』의 기록만 보더라도 ‘당요 50년’은 정사丁巳년이 되므로 잘못임을 알 수 있다. ‘당요 무진歲’는 다시 ‘당요 즉위 원년 무진歲’과 ‘당요 25년 무진歲’로 나누어진다. 이 무진년은 똑같이 BCE 2333년이므로, 요임금의 즉위 연대에 차이가 날 뿐이다. 단군왕검의 즉위 원년(고조선 개국연도)을 ‘당요 즉위 원년 무진年’으로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서로는, 『삼국유사』에 인용된 『魏書』, 이승휴의 『帝王韻紀』, 권람의 『應製詩註』, 조선의 『世宗實錄』 등이 있다. 그리고 ‘당요 25년 무진歲’를 채용하고 있거나 해석상 이 기년紀年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서로는 『환단고기』를 비롯하여 『揆園史話』, 『檀奇古史』, 『東史年表』, 『東國通鑑』, 『東史綱目』과 그 외 20여 종이 있다. 중국의 정사正史에서는 당요 즉위 원년으로 무진년이 아니라 갑진甲辰(BCE 2357)년을 통용해 왔는데, 이 기년은 중국의 표준 기년과도 합치되는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이상시, 『단군실사에 관한 문헌고증』). 이 갑진년에 단군왕검께서 대읍국의 비왕으로 봉해지셨기 때문에 “조선을 개국한 것이 당요와 같은 때이다(開國號朝鮮, 與高同時)”라고 한 것도 맞는 말이다.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189쪽, 상생출판, 2012.에서 인용)

8) 일연, 『삼국유사』 〈고조선〉. 以唐高即位五十年庚寅(唐高即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 疑其未實), 都平壤城(今西京),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一作方)忽山, 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虎王即位己卯,



찬자가 당요무진년에 조선이 개국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첫 문장에 나타나 있다. 그가 인용한 사료에는 요임금 재위 50년이 경인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협주를 통하여 ‘요임금 재위 원년이 무진년이므로 재위 50년은 경인년이 아니라 정사년’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평양성에 도읍을 정한 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겨갔다가 이곳에서 1500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다시 장당경으로 옮겨갔는데, 그때가 서기전 1122년이고,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한 것이 그 이유이다. 서기전 2333년(당요무진년)부터 서기전 1122년까지는 1,212년이므로 백악산 아사달 1,500년설은 일단 성립되지 않는다. 단군이 1,908세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단군조선의 역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단군조선은 서기전 2333년부터 서기전 426년까지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록은 단군조선이 1908년 동안 존속하면서 도읍지를 2번 옮겼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만, (최초 도읍지인 평양성에서 머문 기간과 백악산 아사달로 옮겨가서 머문기간을 모두 합쳐도 1,500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500년 설은 잘못이다. 그리고 기자 때문에 장당경으로 옮겨갔다면 총 1908년의 역년 중 1,212년이 경과한 시점에 가서 장당경에서 머문 기간이 696년이 되므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는 최초의 기록은 『사기』 〈송미자세가〉에 나오는데, 원문에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으나 신하로 삼지는 못하였다”고 되어 있어서 기자조선 설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기자조선 문제는 다시 고찰하겠지만 윤내현은 기자조선이 있었다는 입장에서 기자조선이 고조선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어왔던 고조선의 강역 서쪽에 고조선과 별개로 기자조선이 존재했으며, 그러한 사실이 잠부론 지씨성조의 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고 주장하여 주목된다<sup>9)</sup>. 『잠부론』 〈지씨성〉의 해당기사는 다음과 같다.

옛날 주선왕 때 또한 한후韓侯가 있었으니 그 나라는 연燕과 가까웠다. 그러므로 시경에서 말하기를 “커다란 저 한성韓城은 연나라 군사들이 완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후 한의 서쪽에서도 또한 성姓을 한韓이라 하였는데 위만에게 공벌당한

封箕子於朝鮮，壇君乃移於藏唐京，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壽一千九百八歲。

9) 윤내현, 『삼국유사』와 『잠부론』의 고조선인식, 단군학연구, 제22호, 297~313, 2010.

바 되어 해중으로 옮겨가서 살았다.<sup>10)</sup>

여기서 한후韓侯는 주나라의 제후국 한나라가 아닌 또 다른 한韓나라의 왕인데, 이 한韓나라는 연나라 가까이에 있었고, 한韓나라의 서쪽에 성姓을 한韓으로 하는 또 다른 왕이 있었는데 그가 위만에게 공벌당하고 바다 건너 다른 곳로 쫓겨가서 살았고, 그가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 준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자조선의 동쪽의 한韓나라는 『삼국유사』 〈고조선〉에서 말하는 고조선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조선의 서쪽에 있었던) 기자조선이 망하고, 위만조선이 그 뒤를 이었고, 또 위만조선을 이어서 다시 한사군이 들어섰으므로 이들은 모두 고조선의 서쪽 지역에 있는 별개의 존재라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의 국통이 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듯이 고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한사군-열국시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조선에서 열국시대로 바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상에서 말한 사료들은 고조선이 실재했음을 말하고 있음에도 일제식민사학의 영향으로 『삼국유사』에 기술된 단군에 관한 기록이 신화라는 이유를 들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류사학계의 현실이다.

## 2. 단군조선과 삼한관경

그렇다면 『잠부론』에서는 고조선을 왜 한韓으로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고대에 지식인 사회에서는 단군조선을 한韓으로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단군조선은 본래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린 삼한관경제를 국가통치의 기본 제도로 삼았다.

초대 단군왕검은 신교의 삼신사상에 따라 하나의 나라 조선을 셋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삼한관경제라는 독특한 제도에 따라 대단군이 중앙의 진한을 다스리고 두 명의 부단군이 대단군의 통솔 아래 변한과 마한을 각기 맡아 다스렸다.<sup>11)</sup>

10) 왕부, 『潛夫論』 卷9 〈志氏姓〉, 昔周宣王, 亦有韓侯, 其國也近燕, 故詩云, 普彼韓城, 燕師所完, 其後韓西亦姓韓, 爲魏滿所伐, 遷居海中

11)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해제 35쪽. 상생출판, 2012년.

단군은 삼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제사장을 의미하고, 왕검은 정치적 군왕을 의미하는 바, 단군조선은 삼신에게 천제를 지내는 것을 국가의 큰 행사로 여기는 제정일치 국가였다. 이암李嶠(1297-1364)은 『단군세기서檀君世紀序』에서 삼신은 한 분이지만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라는 삼신으로 존재한다는 삼신일체의 도에 대하여 깊이 있는 철학적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대한 강역의 조선이라는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이러한 삼신의 존재원리에 입각하여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다스렸다는 위의 주장은 새겨들을 만하다.

단군조선이 원래 삼한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사료가 다수 있다. 『고려사』〈김위제전〉에 소개된 『신지비사』는 단군조선의 수도가 세 군데임을 저울에 빗대어 “저울대는 부소량이요, 저울추는 오덕지이며, 저울판은 백아강”이라고 말하고 있다.<sup>12)</sup> 『태백일사』에 따르면 『신지비사』는 옛적에 삼신께 제사를 지낼 때 서원하던 글로서,<sup>13)</sup> “『신지비사』에서 저울대 부소량이라 한 것은 진한의 옛 수도를 말한 것이니 곧 단군조선의 도읍지인 아사달이며..., 저울추 오덕지라 한 것은 변한의 옛 수도를 말하며, 그곳은 지금의 개평부 동북쪽 70리에 있는 탕지보이고, 저울판 백아강이라 한 것은 마한의 옛 수도를 말하는데 지금의 대동강으로...”<sup>14)</sup>라고 나온다. 단재 신채호도 『신지비사』의 부소량, 오덕지, 백아강을 대단군의 삼경三京이라고 하였고<sup>15)</sup>, 『전후삼한고前後三韓考』에서도 삼한은 신한(진조선), 불한(변조선), 말한(막조선)의 전삼한과 후삼한으로 구분되는데 전삼한이 바로 단군조선임이라고 주장하였다.<sup>16)</sup>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마한, 진한, 변한은 후삼한인데, 이는 전삼한이 망하고 그 유민들이 한반도로 들어와서 정착된 새로운 체제이다. 그중 신라는 본래 진한인데 『삼국사기』에서는 신라가 조선의 유민들이 내려와서 진한이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때의 조선이 단군조선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12) 如秤鍾極器 秤幹扶疎樑 鍾者五德地 極器百牙岡

13) 神誌祕詞 檀君達門時人 神誌發理所作也 本三神古祭誓願之文也.

14) 其曰秤幹扶疎樑者 是謂辰韓古都 亦即檀君朝鮮所都阿斯達 是也... 其曰鍾者五德地者 是謂番韓古都 今開平府東北七十里所在湯池堡 是也. 其曰極器百牙岡者 是謂馬韓古都 今大同江也.

15) 신채호 저 박기봉 역, 『조선상고문화사(외)』, 초판(4쇄), 71쪽, 비봉출판사, 2016년., 신채호 저 박기봉 역, 『조선상고사』, 비봉출판사, 초판(13쇄), 108~109쪽, 2012.

16) 신채호 저, 『조선상고문화사(외)』(위의 책), 383~443쪽.

이보다 앞서 조선朝鮮의 유민이 산골짜기 사이에 나누어 살면서 6촌六村을 이루고 있었는데, 첫째는 알천閼川 양산촌楊山村 둘째는 돌산突山 고허촌高墟村, 셋째는 취산觜山 진지촌珍支村 혹은 간진촌干珍村이라고도 한다., 넷째는 무산茂山 대수촌大樹村 다섯째는 금산金山 가리촌加利村 여섯째는 명활산明活山 고야촌高耶村으로, 이들이 바로 진한辰韓의 6부이다.<sup>17)</sup>

『후한서』〈동이열전〉한조와 『삼국지』〈위서〉〈동이전〉에서도 삼한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남삼한에 관한 것으로 그 근원이 진국이라고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韓은 세 종족이 있으니,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진弁辰이다. 마한馬韓은 서쪽에 있는데, 54국이 있으며, 그 북쪽은 낙랑樂浪, 남쪽은 왜倭와 접해 있다. 진한은 동쪽에 있는데, 12국이 있으며, 그 북쪽은 예맥濊貊과 접해 있다. 변진弁辰은 진한辰韓의 남쪽에 있는데, 역시 12국이 있으며, 그 남쪽은 왜倭와 접해 있다.... 동쪽과 서쪽은 바다를 경계로 하니 모두 옛 진국辰國이다.<sup>18)</sup>

한韓은 대방帶方의 남쪽에 있다. 동쪽과 서쪽은 바다를 경계로 하고, 남쪽은 왜와 접하였으며, 사방 4천 리쯤 된다. 한에는 세 종족이 있으니, 첫째는 마한이요, 둘째는 진한이요, 셋째는 변한이다. 진한은 옛 진국이다.<sup>19)</sup>

한에는 마한, 진한, 변진(또는 변한)이 있는데 모두 ‘옛날의 진국辰國’에서 왔다고 하고 있다. 단군조선이 삼조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을 모두 진국辰國이라고 했다는 것을 『태백일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다.

17)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시조박혁거세〉. 先是, 朝鮮遺民分居山谷之間, 爲六村, 一曰閼川 楊山村, 二曰突山 高墟村, 三曰觜山 珍支村 或云干珍村, 四曰茂山 大樹村, 五曰金山 加利村, 六曰明活山 高耶村, 是爲辰韓六部.

18) 『후한서』 권85 〈동이열전〉 75 韓조. 韓,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 弁辰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東西以海爲限, 皆古之辰國

19) 『삼국지』 권30 〈위서〉〈오환선비동이열전〉 韓, 在帶方之南. 東西以海爲限, 南與倭接, 方可四千里.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辰韓者, 古之辰國也

이를 총칭하여 단군관경이라 하니 이것이 곧 진국辰國이다. 역사에서 일컫는 단군 조선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sup>20)</sup>

『위략』에서는 위만의 손자 우거가 역계경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자 역계경이 동쪽의 진국辰國으로 갔다고 했다. 위만조선의 동쪽에 또 다른 나라인 진국<sup>21)</sup>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처음에 우거가 격파되지 않았을 때에 조선상 역계경이 간언하였으나, 우거가 받아들이지 않자, 동쪽으로 진국辰國에 갔다. 이때에 백성으로 그를 따라가 그곳에 산 사람들이 2천여 호나 되었는데, (진국은) (위만)조선과 함께 (한에) 조공하는 번국과는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sup>22)</sup>

이병도는 위만조선이 평양 주변에 있는데 동쪽에 있는 진국으로 갔다는 위 기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는지 『조선사대관』에서 동쪽을 남쪽으로 자기 멋대로 바꾸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국사교과서에 남쪽의 진국으로 바뀌었음은 물론이다.<sup>23)</sup> 비뚤어진 역사관이 빚어낸 촌극이 아닐 수 없다.

『태백일사』〈삼한관경본기〉는 단군께서 나라를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마침내 삼한으로 영토를 나누어 다스릴 때 진한辰韓은 천왕께서 친히 맡아서 통치하셨다. 도읍을 아사달에 세우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하니, 이분이 바로 1세 단군 이시다.<sup>24)</sup>

20) 『태백일사』〈삼한관경본기〉. 總之名曰檀君管境 是則辰國 史稱檀君朝鮮是也

21) 진국은 원래 단군조선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지칭하는 진국은 시기적으로 볼 때 단군조선을 계승한 북부여가 된다.

22) 『삼국지』 권30 〈위서〉〈오환선비동이전〉 韓 趙 魏略曰 初, 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 亦與朝鮮, 貢蕃不相往來

23) 이덕일, 김병기 저,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 30~31쪽, 초판 2쇄, 역사의 아침, 2006.

24) 『태백일사』〈삼한관경본기〉. 遂與三韓 分土而治 辰韓 天王自爲也 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 是爲一世檀君

이때 단군왕검께서 치우천황의 후손 중에서 지모와 용력이 뛰어난 자를 택하여 변한왕으로 임명하고 험독險瀆에 수도를 세우니, 지금은 왕검성王儉城이라 한다. 치두남은 치우천황의 후손이다. 용맹과 지혜로 세상이 소문이 자자하였다. 단군께서 불러 만나 보시고 기특하게 여겨 곧 변한 왕으로 임명하고 아울러 우순虞舜의 정치를 감독하게 하셨다.<sup>25)</sup>

단군왕검께서 천하를 평정하고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릴 때, 웅백다를 마한왕으로 임명하셨다. 도읍을 달지국에 정하였는데, 백아강이라고도 불렀다.<sup>26)</sup>

진한, 변한, 마한은 동시대에 이름과 공간을 달리하며 존속했던 나라들이다. 따라서 삼한은 나름대로 각기 역사가 따로 있다. 진한은 진한대로, 변한은 변한대로, 마한은 마한대로 그 역사를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단군조선에 관한 한국사학계의 가장 큰 병폐는 삼한으로 분리되어 있는 조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단군조선을 초대단군왕검에서 시작해서 준왕에서 끝이 난 나라인 줄 알고 있는 것이다.

단군조선의 관경을 삼한으로 나누었을 때 단군이 친히 통치한 중앙정부를 진한辰韓이라고 했다. 『단군세기』에 의하면 진한은 47대의 단군이 있었고, 2,096년간 존속한 나라이다. 서기전 2333년에 송화강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초대 단군왕검부터 21대 소태단군까지 1048년간 머물렀다. 서기전 1285년 22대 색불루단군 때에 백악산 아사달로 천도한 후 43대 물리단군까지 860년을 머물렀다. 이후 서기전 425년 44대 구물단군 때 다시 장당경 아사달로 수도를 옮겨서 나라이름을 대부여로 바꾼 채 188년간 존속하다가 서기전 238년에 이르러 2096년의 역사를 마감하였는데, 마지막 47대 고열가 단군은 제위를 버리고 입산수도하여 선인仙人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진한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삼국유사』 〈고조선〉에서 ‘처음에 평양성에 도읍을 하고,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다가 다시 장당경으로 옮겨갔다’고 한 것을 비롯하여 단군이 1,908세를 살았다는 것<sup>27)</sup>, 아사달로 돌아와 산신이 되었다는 것 등의 이야기는 오롯이 진한의 역

25) 이맥,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변한세가 상. 於是 檀君王儉 擇蚩尤後孫中有智謀勇力者 爲番韓 立府險瀆 今亦稱王儉城也 蚩頭男 蚩尤天王之後也 以勇智著聞於世 檀君乃召見而奇之 卽拜爲番韓 兼帶監虞之政

26) 이맥,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마한세가 상. 檀君王儉 既定天下 分三韓而管境 乃封熊伯多 爲馬韓 都於達支國 亦名曰白牙岡也



사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의 기사는 다소 어렴풋하고 전후 맥락이 모두 생략되어 있어서 단군조선 전체의 모습을 알기 어렵게 해놓은 면이 있지만 부분과 부분이 모두 사실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 3. 삼조선과 기자조선

변한은 오늘날 중국의 요동과 요서에서 하북성, 산둥성 일대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에 따르면 변한은 초대왕 치두남으로부터 75세 준왕까지 2,140년간 존속하였다. 변한은 대륙에 있었던 중국 고대왕조들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군사적 대립이 빈번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서 변한의 수도는 처음에는 함독이었는데, 나중에 왕검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다. 함독은 중국의 여러 사료에도 (위만)조선의 수도로 등장하는 곳이다. 함독이 변한의 수도가 된 시기는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에 의하면 서기전 2333년, 즉 개국초기부터였음에도 『사기』 〈조선열전〉에서는 위만이 마치 처음 왕검성에 도읍을 정한 것처럼 ‘도왕검都王險’이라고 기록하였다. 또한 그에 대한 주석에서 “서광이 말하길 창려에는 함독현이 있다. 응소의 〈지리지〉 주석에 요동 함독현은 조선왕의 옛 도읍지이다.”<sup>28)</sup>라고 했고, 『한서』 〈지리지〉 요동군 함독현에 대한 주석에서는 “응소가 말하기를 함독현은 조선왕 위만의 도읍지이다. 함수에 의지하고 있어서 함독이라고 했다.”<sup>29)</sup>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기』의 기록과 주석은 함독이 곧 왕검성이라는 『태백일사』의 기록과는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 『태백일사』는 함독(왕검성)을 변한의 수도로 말하고 있는 데 반해 『사기』와 『한서』는 함독을 조선왕의 수도라고 하면서 마치 단군왕검이

27) 1908년은 송화강 아사달 시대 1048년과 백악산 아사달 시대 860년을 말한 것이다. 장당경 아사달 시대는 국명이 대부여였으므로 『삼국유사』 〈고조선〉의 찬자는 대부여는 단군조선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8) 『사기』 〈조선열전〉. (『史記集解』) 徐廣曰, 昌黎有險瀆縣也. (『史記索隱』) 應劭注地理志, 遼東險瀆縣, 朝鮮王舊都. 여기서 옛도읍지(舊都)라고 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서』 〈지리지〉의 주석(아래 29번 참고)에서 조선왕위만의 도읍지라고 한 데 반해 조선왕의 옛도읍이라고 함으로써 위만이 아닌 그 이전에 있었던 기준왕의 도읍지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동군 함독현에 대한 『한서』 〈지리지〉의 주석이 원래 조선왕구도였던 것을 조선왕만도로 누군가 고친 것이 분명하다고 생트집을 부리고 있다.

29) 『한서』 〈지리지〉 권8하 요동군. 險瀆, 應劭曰 朝鮮王滿都也 依水險, 故曰險瀆

고조선을 처음 건국한 곳이자, 나중에 위만이 도읍을 한 곳이므로 위만조선이 단군조선을 계승하였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고조선의 국가계승, 강역, 중심지, 실체 등에 대한 수 많은 잘못된 해석이 쏟아져 나왔고, 아직도 그 해악은 여전하다. 지금 주류 사학계에서 고조선의 중심지와 관련하여 쏟아지고 있는 요동중심설, 대동강중심설, 중심지 이동설 등의 온갖 설왕설래는 진한과 변한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낭설의 향연이다.

중국 사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선은 대개가 기자조선 아니면 위만조선이다. 원래부터 그곳에 있던 변한은 말할 것도 없고 고조선의 존재자체를 지워버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 기자조선의 실체에 대하여 살펴보자.

상주商周 교체기 때의 인물인 기자箕子는 상나라 왕실의 후예이자, 상나라의 제후국이었던 기국箕國의 귀족출신으로 성은 자(子), 이름은 서여胥餘였다.<sup>30)</sup> 상나라 말 주紂왕의 친척이었던 기자는 주왕의 폭정에 충언을 간하던 비간이 사형을 당하자 자신에게도 해가 미칠까 두려워 미친 척하다가 왕의 미움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후 상나라를 멸망시킨 주무왕에 의해 석방되었으나 조국이 멸망한 것에 절망하여 동방에 있는 조선으로 떠나버렸다. 그러자 무왕이 이를 섭섭해하며 기자를 조선에 왕으로 봉했다<sup>31)</sup>고 하는 것이 기자조선설의 시말이다. 서기전 1122년에 있었다고 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조선에 왕으로 봉했다는 것은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가 주나라의 동방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스로 신하로 삼지 못했다고 한 것은 무왕이 기자를 왕으로 봉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기자가 동방으로 도망와서 정착한 곳이 조선이라면 그때의 조선은 바로 변조선이다. 기자가 동방의 조선으로 온 것 자체는 사실로 봐야 한다. 『단군세기』에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진한의 24대 술나 단군조에 보면 ‘재위 37년 정해년(서기전 1114)에 기자가 서화西華에 살면서 인사人事를 사절하였다’는 것이 그것이다. 인사를 사절하였다는 것은 은둔생활을 했다는 뜻이다.<sup>32)</sup> 서화는 어디인가. 『대청일통지』에 따르면 “서화는 옛 기箕의 땅이다. 개봉

30) 『史記集解』. 마옹이 이르기를 기는 나라이름이고, 자는 벼슬을 말한다(馬融曰箕國名也子爵也)., 『史記索隱』. 사마표가 말하기를 기자의 이름은 서여이다(司馬彪曰箕子名胥餘).

31) 『사기』 <송미자세가>. 於是武王乃封箕子於朝鮮而不臣也

32) 『서경』 <홍범>과 『사기』 <주무왕본기>를 종합해 보면 주무왕이 주나라를 건국한 지 2년 후인 서기전 1120년에 기자를 방문하여 국가경영의 도법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홍범구주를 전해준

부 서쪽 90리에 있다. 처음에 기자가 송나라 기箕 땅에 살았기 때문에 기자라 칭한 것이다. 지금 읍 가운데 기자대箕子臺가 있다.”<sup>33)</sup>고 한다. 기자조선설의 근원이 된 <송미자세가>를 보면 백성을 잘 다스리는 비결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무왕이 기자를 방문한 것으로 나온다. 이때 기자로부터 홍범구주를 전수받고 난 후 “이로부터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나온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서경』 <홍범>편과 『사기』 <주무왕본기>에도 나온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한 지 2년 후에 기자를 만났다고 나온다. 따라서 실제로 이들이 만난 시점은 기묘년이 아니고 신사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에서는 “기묘년에 은나라가 멸망하였다. 그후 3년째되던 신사년에 자서여가 태항산 서북 땅에 피하여 살았다.”<sup>34)</sup> 고 나온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 주무왕이 기자를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자서여는 조국 은나라가 망한 뒤 태항산 서북 땅에 숨어 살고 있었는데 주무왕이 찾아와서 국정에 관한 자문을 구하자 홍범구주를 전해주었고, 이후 7년 뒤에는 서화에 와서 은둔자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기자에 관한 역사의 진실이다.

한편, 삼한관경의 단군조선은 개국 후 1,048년간 내려오다가 역사의 큰 분수령을 맞게 된다. 바로 서기전 1285년에 이르러 삼한에서 삼조선으로 관제가 개편이 된 것이다.

재위 원년 병신년(서기전 1285) 정월에 색불루 단군께서 마침내 녹산에서 즉위하시니 이곳이 백악산 아사달이다.... 오월에 제도를 고쳐 삼한을 삼조선이라 하셨는데 조선은 관경을 말한다. 진조선은 천왕께서 친히 다스리고, 통치영역은 옛날 진한의 땅 그대로이다. 정치는 천왕을 경유하여 삼한이 모두 하나로 통일되어 명령을 받았다. 여원흥을 마한 왕으로 삼아 막조선을 다스리게 하고, 서우여를 변한 왕으로 삼아 번조선을 다스리게 하셨다.<sup>35)</sup>

것으로 나온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감사표시로 무왕이 내린 모종의 조칙을 기자가 거절하자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으나 신하로 삼지 못하였다’고 기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3) 『大清一統志』, 許州. 西華故箕地, 在開封府西九十里, 初聖師食宋箕, 故稱箕子, 今邑中箕子帶

34) 己卯 殷滅 後三年辛巳 子胥餘 避居太行山西北地

35)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마한세가> 하. 丙申元年正月 遂即位于鹿山 是爲白岳山阿斯達也... 五月 改制三韓爲三朝鮮 朝鮮謂管境也 眞朝鮮 天王自爲 而地則仍舊辰韓也 政由天王 三韓 皆一統就令也 命黎元興 爲馬韓 治莫朝鮮 徐于餘爲番韓 治番朝鮮

『단군세기』에 따르면, 진한의 21대 소태 단군 재위 52년(서기전 1286년)에 옥좌를 양위할 뜻이 있었던 소태단군이 좌현왕 서우여徐于餘에게 정사를 맡기려 하자 우현왕 색불루索弗婁가 이를 반대하며 무력으로 부여신궁(백악산 아사달)에서 단군의 제위에 오르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자 소태단군은 부득이 왕권의 상징인 옥책과 국보를 우현왕에게 전하고, 제위에서 물러나 아사달에 은거하여 있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 사건은 삼한 전체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심한 내분을 불러 일으켰으며, 서우여를 변한왕으로, 여원흥을 마한 왕으로 임명하면서 내부가 정리가 되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커다란 격변을 맞이한 삼한은 삼조선으로 국명을 바꿈으로써 국운을 쇄신하고자 했다. 진한은 진조선, 변한은 변조선, 마한은 막조선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때가 중 원은 은나라 무정왕 8년으로 주나라가 건국되기 164년 전이었다. 그런데 『제왕운기』에서는 흥미로운 기록이 발견된다.

(C) 은나라 무정 8년 을미년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으니 나라를 누리기를 1,028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 조화는 환인이 전한 것이다. (D) 그뒤 164년 만에 어진 사람이 나타나 군신관계를 다시 열었다. 후조선의 시조는 기자인데 주무왕 원년 기묘년에 봄에 도망하여 여기에 이르러 나라를 세웠다. 주무왕이 멀리 봉하는 윤음을 내렸다. 예의상 사양하지 못하고 들어가 보니 홍범구주의 몇몇한 인륜을 물었다. 41대 손의 이름은 기준인데, 침탈을 당하여 백성을 떠났다. 928년을 다스렸으니 끼친 풍속 남은 공렬 빛나고 순수했다. 준왕은 금마군에 도움을 정하고 다시 임금이 되었다.<sup>36)</sup>

위 기사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는 면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왜곡된 사실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은나라 무정 8년 을미년은 서기전 1286년에 해당한다. 이때 단군이 아사달산에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고 한 것은 단군조선 21대 소태단군 재위 52년에 색불루가 무력으로 새 단군에 즉위하자 소태단군은 물러나서 아사달에 은거하

36) 이승휴, 『제왕운기』. 於殷虎丁八乙未, 入阿斯達山爲神. 享國一千二十八, 無奈變化傳桓因. 却後一百六十四, 仁人聊復開君臣. 後朝鮮祖是箕子, 周虎元年己卯春, 通來至此自立國, 周虎遙封降命綸. 禮難不謝乃入覲, 洪範九疇問彝倫. 四十一代孫名準, 被人侵奪聊去民. 九百二十八年理, 遭風餘烈傳熙淳. 準乃移居金馬郡, 立都又復能君人.

다가 생을 마감한 사건을 말하고 있다. 상기한 바처럼 이 사건을 계기로 삼한은 삼조선으로 바뀌는 역사의 큰 분수령을 맞게 된다. 진한이 진조선으로 되었고, 변한은 변조선이 되었으며, 마한은 막조선이 된 것이다. 이 사건은 단군이 조선을 개국한 지 1,048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1,028년은 잘못된 기록임이 명확하다. 환인이 전한 조화는 단군이 산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C)에서 전하고 있는 사실은 진조선의 역사이다. 그러나 (D)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여부를 떠나 변조선의 역사, 즉 진조선과는 무관한 역사이다. 왜곡된 사실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고 한 이유는 ‘여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기자가 한반도 땅으로 온 것처럼 기술하였고, 또 이것이 마치 단군조선 전체의 역사인 것처럼 인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64년만에 어진 사람이 나타나 군신관계를 다시 열었다는 말은 단군이 (산신이 되어) 사라지고 조선은 완전히 망했는데, 그후 164년 만에 어진 사람(기자를 말함)이 와서 나라가 재건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164년은 은무정 8년 을미년(서기전 1286년)부터 기자가 조선에 왔다고 하는 주무왕 기묘년(서기전 1122년)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때 진조선은 22대 색불루 단군~25대 솔나 단군이 재위에 있었고, 변조선은 30대 서우여~33대 임나 부단군이 다스리고 있었다. ‘41대 손의 이름이 기준’이라 함은 준왕이 기자의 41대 손이라는 것이고, 928년은 기자가 와서 나라를 열었다고 하는 주무왕 기묘년부터 기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서기전 194년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준왕이 금마군에 도읍을 정하고 다시 임금이 되었다는 것은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바다를 건너 한반도 마한땅에 와서 다시 왕이 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제왕운기』의 찬자는 왜 은무정 8년 을미년을 기준으로 난데없이 164년이라는 기간을 말하였을까? 단군이 떠나고 164년간 왕이 없던 나라에 기자라는 새로운 왕이 와서 감격이라도 했던 것일까? 아마도 기자조선설을 사실로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기자조선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그에 맞는 역사를 기술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삼조선을 몰랐던 것도 주된 이유이다. 삼조선은 엄연히 공간을 달리하며 동시대에 존재했던 나라들이었건만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삼조선을 시대별로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계승되어 온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sup>37)</sup> 변조선의 초대왕

37) 『제왕운기』에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기록한 부분을 차례대로 〈전조선기〉, 〈후조선기〉, 〈위만

은 서우여徐于餘이다. 기자의 이름 서여胥餘와 서우여는 발음이 매우 비슷하다. 변조선 왕은 서우여라고 계속 전승되어 내려왔는데 그것을 기록한 사서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진데다, 기자가 조선의 왕으로 봉해졌다고 했는데 기자의 이름이 서여이다 보니 서우여와 서여는 동일인물이라는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서우여가 왕이 된 은무정 8년 을미년과 자서여가 조선에 봉해졌다고 한 주무왕 기묘년은 분명히 164년의 차이가 있으니 이 둘이 동일인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뜬금없이 164년을 언급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기준은 과연 기자의 후손일까? 기준이 기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의심없이 받아들인 이유는 기자조선설을 철저히 신봉한 데다 둘이 같은 기씨일 것이라는 관념 때문이다. 기자의 성씨가 아니라 자씨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고려와 조선의 유학자들이 그리도 쉽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중화사대주의 세계관에 경도된 풍조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기준을 기자의 후손으로 왜곡한 대표적인 기록이 『삼국지』〈위서〉에 나오는 다음 기사이다.

(E) 후侯 準이 참람되이 왕이라 일컫다가 연나라에서 망명한 위만衛滿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겼다. 『위략』에서 이르기를, (F) 옛날에 기자의 후손인 조선후는 주나라가 쇠퇴한 것을 보고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라 하고 동쪽의 땅을 침략하고자 하므로 조선후도 역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군대를 일으켜 거꾸로 연나라를 공격함으로써 주나라 왕실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그 대부 예禮가 간諫하자 중지하였다. 예禮로 하여금 서쪽의 연나라를 설득하도록 하니 연나라도 중지하고 공격하지 않았다. (G) 그 후에 그 자손이 점차 교만하고 사나워서 연나라는 장수 진개를 보내서 그 서쪽을 공격하고 2천여 리의 땅을 취하였다. 만번한에 이르러 경계를 정하였는데 드디어 조선이 약화되었다.<sup>38)</sup>

조선후)라는 제목으로 기술하고 있다.

38) 『삼국지』〈위서〉 권30〈오환선비동이전〉 韓趙 侯 準 既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 魏略曰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 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 爲界, 朝鮮遂弱.



(E)는 기준왕이 연나라에서 망명한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서기전 194년의 상황을 말한다. 준왕을 후侯 준準, 즉 주나라의 제후 기준이라고 했는데, 기준은 기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다. 위만의 모국 연나라는 한의 제후국 연나라를 말한다. 이하 『위략』의 내용은 전국시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주나라의 왕권이 약해지자 진秦-초楚-연燕-제齊-한韓-위魏-조趙 일곱 나라가 중원의 패권을 놓고 다투었는데, 이때 지금의 북경인 계성에 도읍을 두고 있던 연나라는 변조선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에 분쟁이 잦았다. 이 기사에서도 변조선의 어떤 왕을 기자의 후예인 조선후라고 함으로써 기자조선설을 사실화하고 있다. (F)에서는 기자의 후손인 조선후가 주나라 왕실을 높이기 위해서 연나라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 말하듯 주나라 왕실을 높이는 기자조선이 정말로 있었고, 그게 주나라의 제후국이라면 기자조선은 주나라의 천하에 소속된 나라이므로 당연히 전국시대를 구성하는 하나의 나라가 되었어야 마땅할 것이다. 삐뚤어진 중화의식을 여실히 드러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G)에서는 서기전 300년 경 연나라 장수 진개가 (변)조선을 공격하여 그 서쪽 땅 2천여 리를 빼앗고 만번한에서 국경을 정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동일한 사건을 『사기』 〈흉노열전〉에 기록하면서 “그 뒤에 연나라에는 훌륭한 장수 진개가 있었는데 호胡에 인질이 되었으며, 호胡에서는 그를 대단히 믿었다.”<sup>39)</sup>라고 기록해 놓았다. 두 책이 같은 사건을 말한 것이므로 호胡가 (변)조선을 말함은 당연하다. 또 “연나라의 북쪽에는 동호와 산융이 있었다”<sup>40)</sup>라고 동쪽이 아닌 북쪽에 동호가 있다고 하면서, 〈조선열전〉이 아닌 〈흉노열전〉에 기록함으로써 고조선(진조선)의 실체를 교묘히 감추었다. 그렇다면 『위략』에서 말한 조선후는 누구일까? 중국 사서의 기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태백일사』를 통해 풀 수 있다. 『태백일사』에 따르면 당시 변조선은 69대 수한왕이 연나라의 침입을 자주 받고 있었는데, 서기전 323년에 후사가 없이 떠나자 수유 출신의 장수 기후箕詡가 명을 받아 70대 변조선 왕으로 등극하였다.

39) 『사기』 〈흉노열전〉. 其後燕有賢將秦開, 爲質於胡, 胡甚信之.

40) 『사기』 〈흉노열전〉. 燕北有東胡·山戎



신사년에 아들 수한水韓이 즉위하였다. 임오년에 연나라가 이틀 길을 하루에 달려 쳐들어와 안촌홀安寸忽<sup>41)</sup>을 공격하고 험독險瀆까지 쳐들어왔다. 이때 수유 사람(須與人) 기후箕詡가 젊은 청년 5천 명을 거느리고 와서 전쟁을 도우니 군세가 조금 진작되었다. 이에 진번이한眞番二韓의 군사와 함께 협공하여 크게 격파하였다. 또 한 무리의 군사를 나누어 보내 계성薊城 남쪽에서 싸우려 하니, 연나라가 두려워하여 사신을 보내어 사죄하고 공자公子를 인질로 보냈다. 무술(서기전 323)년에 수한이 세상을 떠나니 후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기후가 명을 받들어 군령을 대행하였다. 연나라가 사신을 보내 하례하였다. 이 해에 연이 왕이라 칭하고 장차 침범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기후도 명을 받들어 왕호를 써서 변조선 왕이 되고, 비로소 변한성番汗城에 머물면서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였다.<sup>42)</sup>

(F)에서 언급한 조선후는 바로 서기전 323년에 변조선의 새로운 왕이 된 기후이다. 기후는 수유 출신<sup>43)</sup>의 무장으로 연나라의 침입을 막은 공덕으로 수한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이후 기욱箕煜-기석箕釋-기윤箕潤-기비箕丕-기준箕準으로 이어지는 기씨 왕의 계보를 열었다. “조선후도 역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군대를 일으켜”라고 한 『위략』의 기사는 기후가 왕이 되는 시점에 있었던 연나라와 변조선의 국제관계 상황을 담고 있는 나름 정확한 표현이다. 이처럼 기후로부터 기준까지 이어지는 변조선의 마지막 6대의 임금인 기씨箕氏라는 이유로 『사기』〈송미자세가〉의 ‘봉기자어조선封箕子於朝鮮’에 부합하는 기자의 후손이라고 날조했지만 그들은 기자와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30세 서우여~69세 수한왕에 이르는 기후 이전의 왕통은 진실로 기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기자조선은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역사이다.

41) 『삼국사기』〈지리지〉에는 “안시성은 옛 안촌홀이다(安市城舊安寸忽)”고 하였다.

42) 이맥, 『태백일사』〈삼한관경본기〉. 辛巳 子水韓立. 壬午 燕 倍道入寇 攻安寸忽 又入險瀆 須與人箕詡 以子弟五千人 來助戰事 於是軍勢稍振. 乃與眞番二韓之兵 夾擊大破之 又分遣偏師 將戰於薊城之南 燕懼遣使乃謝 以公子爲質. 戊戌 水韓薨無嗣. 於是箕詡以命 代行軍令 燕 遣使賀之. 是歲 燕稱王 將來侵 未果 箕詡亦承命正號 爲番朝鮮王 始居番汗城 以備不虞.

43) 『단군세기』에는 기후가 국읍의 군장인 읍차라고 했고, 그의 4세손인 기비가 수유후라고 했다.

### Ⅲ. 진번의 실체

#### 1. 서론

진번은 전한의 7대 황제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두었다고 하는 한사군의 하나인 진번군과 관련된 지명이다. 한사군의 하나로서의 진번군이라는 이름은 『한서』 〈조선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진번에 대한 최초 기록은 사마천(서기전 145년~서기전 86년)의 『사기』 〈조선열전〉에 등장한다. 〈조선열전〉에 등장하는 진번을 〈조선전〉에서 한사군의 하나로 지목하였던 것이다. 즉 사마천은 〈조선열전〉에서 한무제가 위만의 손자 우거정권을 멸하고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四郡을 두었다(遂定朝鮮爲四郡).”고 한 것을 반고(서기 32년~92년)는 『한서』 〈조선전〉에서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진번, 임둔, 낙랑, 현토 사군四郡을 두었다(遂定朝鮮爲眞番·臨屯·樂浪·玄菟四郡).”고 한사군의 구체적인 이름을 써놓았다. 한무제가 위만정권을 멸할 당시 현장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았고, 그것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을 사마천은 사군이 라고만 했을뿐 구체적인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 그런데 사마천 보다 무려 100년 이상 후세의 인물인 반고가 사군의 이름을 제시했다. 『사기』 〈조선열전〉이나 『한서』 〈조선전〉이나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어서 반고가 〈조선열전〉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 쓴 것으로 평가되는데, 사마천도 거명하지 못했던 사군의 이름을 반고가 기록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더욱이 한사군 중에서 임둔군과 진번군은 서기전 82년에 폐지되었다고 알려져 있고<sup>44)</sup>, 그 이후의 사료에도 거의 나오지 않아서 실제로 이들이 존재한 것인지, 그 위치는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사기』 〈조선열전〉에 등장하는 진번에 대하여 그 실체를 명확히 살펴봄으로써 진번과 진번군의 관계는 물론 진번군이 등장하게 된 내막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4) 『후한서』 〈동이열전〉 예. 소제 시원 5년(서기전 82년)에 임둔군과 진번군을 파하고 낙랑군에 병합하였다(昭帝始元五年罷臨屯眞番 以并樂浪).

## 2. 진변의 유래

〈조선열전〉을 보면 진변이란 지명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원문에 나오는 진변조선을 진변과 조선으로 나누어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로 붙여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진변조선은 일반적으로 진변과 조선을 떼어서 보는 편이지만, 진조선과 변조선을 아우른 지칭이라는 단재 신채호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즉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을 삼한이라는 세 강역으로 나누어 통치한 삼한 관제제를 상기한다면 진조선, 변조선, 막조선 중에서 진조선과 변조선을 아우르는 명칭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환단고기』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진변은 모두 이러한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진변조선이 아니라 진변으로만 사용된 경우라도 진변조선의 축약으로 볼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중국 사서는 대부분 진변을 독립된 지역 내지 국가인 것처럼 기술한 경우도 많아 그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문헌상 진변이 등장하는 최초의 시기는 단군조선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규원사화』 〈단군기〉에는 “부소, 부우와 막내 아들 부여는 모두 서쪽 땅을 주었는데 곧 구려, 진변, 부여 등의 나라가 바로 이것이다(夫蘇夫虞及小子夫餘 皆封于國西之地 句麗眞番夫餘諸國是也).”<sup>45)</sup>라는 기록이 보인다. 『규원사화』에 따르면 고조선의 초대 단군왕검에게는 부루, 부소, 부우, 부여라는 4명의 왕자가 있었다. 부루는 태자로서 2세 단군이 되었다. 그런데 다른 왕자들에게는 서쪽 땅을 주고 다스리게 하였는데, 부소왕자에게는 구려句麗, 부우왕자에게는 진변眞番, 부여왕자에게는 부여夫餘라는 것이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구려句麗는 고구려와 관련된 이름이고, 부여는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조인 대부여와 해모수의 북부여 등 여러 부여로 나타났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위 기록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본다면 진변도 비록 이후 사료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로서 혹은 어떤 지역을 지칭하는 명칭으로서 분명히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조선열전〉을 비롯하여 여타 사료에 나오는 진변조선은 상황에 따라 진변과 조선으로 분리해서 볼 수도 있고, 진조선과 변조선을 아우르는 명칭으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진변 단독으로 표기된 경우라고 해도 진변

45) 북애 저 고동영 옮김. 『규원사화』, 70쪽, 한뿌리, 2005.

이라는 특정지명으로 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진조선과 변조선을 아우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논자의 결론이다.

### 3. 〈조선열전〉 속 진번의 위치

진번이 이처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진번군과 연결되어 특정지명을 지칭하는 경우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고, 진번, 나아가 진번군의 실체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 추구하는 바에 포함되므로 〈조선열전〉에 나오는 진번은 특정한 지명을 칭한다는 전제 하에 진번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H) 조선왕 위만은 원래 연나라 사람이다(朝鮮王滿者, 故燕人也).

(I) 처음 연나라 전성기로부터 일찍이 진번과 조선을 공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어 성과 요새를 쌓았다(自始全燕時, 嘗略屬 眞番朝鮮, 爲置吏 築障塞).

(J) 진秦이 연燕을 멸한 뒤에는 (그곳을) 요동외요遼東外徼에 소속시켰는데, 한漢이 일어나서는 그곳이 멀어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패수溍水에 이르는 곳을 경계로 하여 연燕에 포함시켰다(秦滅燕, 屬遼東外徼. 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溍水爲界 屬燕).

(H)는 위만을 조선왕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고 있다. 사마천이 조선을 어떤 시각 하에서 〈조선열전〉을 서술하고 있는지 첫 문장부터 그 의도가 뚜렷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나라의 제후국인 연나라에서 망명하여 조선에 온 위만을 조선왕이라고 한 것은 그 이전부터 있어왔던 변조선은 물론 동방의 진조선을 감추기 위한 의도에서 온 것이다. 『사기』 〈조선열전〉은 조선에 관한 역사를 중국 정사에서 최초로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많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서두부터 ‘조선왕만朝鮮王滿’으로 단정하듯 써 놓았다는 점은 소홀히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이는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송미자세가〉에서 자신이 말한 기자조선 조차도 부정하고 있다는 면에서 누구보다 치열해야 할 사관의 정신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위만을 ‘고연인야故燕人也’라고 했는데 고故를 옛날로 해석하면 고연故燕은 전국시대 연나라가 되어서

이치상 맞지 않는 표현이다.

(I)에서 연나라 전성기는 전국시대 연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연나라가 가장 잘 나갔던 시절에 진번과 조선 혹은 진번조선<sup>46)</sup>을 공략하여 그 땅을 일부 차지했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연나라의 전성기는 통상 연소왕 재위 시기(서기전 312년~서기전 279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것은 진개가 서기전 300년 경 조선의 서쪽을 공격하여 1-2 천여 리의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G)의 역사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위략』에서는 조선의 서쪽 2천여 리의 땅을 취하였다고 했고, 『사기』에서는 동호가 1천여 리나 물리났다고 했다. 사마천이 동호라고 했지만 동호가 따로 있는 나라가 아니고 조선을 비하함과 동시에 조선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번조선이 진개의 침입으로 서쪽 변방 땅을 빼앗기고 만변한을 국경으로 정했다는 것은 『북부여기』에도 나온다.

재위 19년 경진년에 기비가 흥서하자 아들 준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번조선 왕으로 책봉되었다. 임금께서 관리를 파견해 군대를 감독하게 하여 연나라의 침입에 대비하는 데 더욱 힘쓰게 하셨다. 이보다 앞서 연나라가 장수 진개를 보내 우리의 서쪽 변방을 침범하여 만변한에 이르러 그곳을 국경으로 삼았다.<sup>47)</sup>

북부여의 해모수 단군 재위 19년 경진년은 서기전 221년을 말한다. 이때가 번조선의 기준왕이 등극하던 해인데 당시 연나라가 번조선을 자주 침범하였고, 북부여에서도 이를 엄중히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개가 서쪽 변방을 침탈한 사건은 이보다 8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므로 최소 80년 이상 연나라와 크고 작은 전쟁을 해오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연나라는 소왕 이전에는 전국시대 7국 중 약소국에 속했다.<sup>48)</sup> 강역도 넓지 않았다. 『전국책』에는 소진이 연문후에게 “연은 동쪽으로 조선朝鮮·요동遼東, 북쪽으로 임호

46) 진번조선을 진조선과 번조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연나라가 공략했다고 하는 곳이 지리적으로 진조선과 번조선의 접경지대 혹은 그와 가까운 곳으로 봐도 되기 때문이다.

47) 『북부여기』 상. 辰十九年 丕薨 子準襲父封爲番朝鮮王 遣官監兵 尤致力於備燕 先是 燕遣將秦介 侵我西鄙 至滿番汗爲界.

48) 『전국책』 〈연책〉 쾌왕조. 무릇 천하에 7개의 전국이 있는데 연은 약소국이다(凡天下之戰國七而 燕處弱焉).

林胡·樓煩, 서쪽으로는 운중雲中·구원九原, 남쪽으로는 호타呼沱·역수易水가 있습니다. 영토는 사방 2천 리입니다.”<sup>49)</sup>하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문후시대의 연나라의 강역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동은 연나라 땅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랬던 요동군이 『한서』 〈지리지〉에는 연나라의 5군 중의 하나로 나오며, 문후시대에는 보이지 않던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이 연나라 강역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기』 〈흉노열전〉에는 “연나라는 조양에서 양평에 이르는 장성을 쌓고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을 두어 호를 방비했다”<sup>50)</sup>고 나온다. 따라서 이 5개 군은 진개가 조선을 쳐서 빼앗은 1천여 리의 땅에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래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은 번조선의 땅이었는데 진개에게 빼앗겼다는 서쪽 1천리 땅이 바로 그곳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위 기사에서 보듯 진번과 조선을 공략해서 복속시켰다고 했으니 이 지역이 소위 진번이 있던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J)는 연나라가 서기전 222년에 진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나자 진나라가 그곳을 요동 외요라고 해서 관리했는데 진나라도 얼마 못가서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서자 한나라도 그곳이 너무 멀어서 직접 지키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후국인) 연나라로 하여금 옛날 연나라가 세운 요동의 옛 요새를 새로 수리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연나라의 동쪽 국경은 패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기록이 『북부여기』에 보인다.

재위 38년 기해년에 연나라 노관이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패수를 동쪽 경계로 삼았다. 패수는 지금의 조하이다.<sup>51)</sup>

이 기사는 북부여 건국자 해모수 단군 재위 38년 기해년에 연왕 노관이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패수를 번조선과의 국경으로 삼았으며, 패수는 지금의 조하朝河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해모수 단군이 북부여를 건국한 때는 서기전 239년 임술년이므로 재위 38년은 한나라 원년인 서기전 202년이 된다. 조하朝河는 지금의 북경 동쪽

49) 『전국책』, 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樓煩 西有雲中九原 南有瀾沱易水 地方二千里

50) 『사기』 〈흉노열전〉,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51) 『북부여기』 상. 己亥三十八年 燕盧綰 復修遼東故塞 東限泚水 泚水 今朝河也.



과 천진 북쪽을 흐르는 조백하(潮白河)를 말하며<sup>52)</sup> 이곳이 〈조선열전〉에 나오는 패수( 패수)자 번조선과 연나라의 경계였다.

(K) 연왕 노관이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위만도 망명하였다. 무리 천여 명을 모아 상투를 틀고 만이의 복장을 갖추고서 요새를 나가서 동쪽으로 달아났다. 패수를 건너서 진(秦)의 옛 공지(空地)인 상하장에 거주하였다.

(L) 점차 진(秦) · 조선의 만이와 옛 연나라 · 제나라의 망명자를 예속시켜 부리고 왕이 되었다. 왕검에 도읍하였다.<sup>53)</sup>

(K)는 서기전 195년의 사건이다. 이해 6월에 한고조 유방이 죽자 연왕 노관은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로 도망갔다. 이때 노관의 무리에 속하였던 위만은 국경을 넘어 동쪽에 있는 번조선으로 망명을 하였다. 이때 상투를 틀고 만이의 복장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선인의 머리모양과 복장으로 변장했음을 말한다. 패수가 연과 조선의 경계이므로 패수를 건너가서 거주하였다는 상하장은 번조선 땅이 된다. 패수 동쪽에 있는 땅이 진의 소속이 된 적이 없는데 진의 옛 빈땅(秦故空地)라고 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L)에서 기술하고 있는 이야기는 위만이 왕이 된 사연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즉 연·제 망명자들을 규합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한 것<sup>54)</sup>과, 연·제 망명자들이 위만보다 나중에 상하장에 들어온 것처럼 써놓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위만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결론을 만들기 위하여 이처럼 교묘하게 사건의 앞뒤를 뒤섞어서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역사의 진실을 날조한 것이다. 진·한(秦·漢) 교체기의 혼란 상황을 보여주는 두 기록을 비교해보자.

비조가 죽자, 그의 아들 준이 왕위에 올랐다. 20여 년이 지나서 진승과 항우가 반란을 일으켜 천하가 어지러워졌다. 연과 제, 조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차

52) 안경전 역주(앞의 책), 249쪽 측주.

53) 『사기』〈조선열전〉.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聚黨千餘人, 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溟水, 居秦故空地上下鄣. 稍役屬真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 王之. 都王險

54) 『위략』에서는 위만이 준왕을 속여서 빼앗았다고 했다.



춤 도망하여 준왕에게 갔다. 준왕이 이에 그들을 서쪽 지방에 거주케 하였다.<sup>55)</sup>

(해모수) 재위 31년 임진년에 진승陳勝이 병사를 일으키자 진秦나라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이에 연燕·제齊·조趙나라 백성 가운데 번조선으로 망명해 온 자가 수만 명이였다. 준왕이 곧 상·하 운장雲障에 나누어 수용하고 장수를 파견하여 감독하게 하였다.<sup>56)</sup>

진시황이 전국시대 6국을 멸하고 천하를 통일한 시기는 서기전 221년이다. 이해에 준왕도 즉위하였다. 진승과 오광의 난으로 진나라가 망국의 길로 접어든 시기는 서기전 209년 임진년부터이다. 『삼국지』에서는 준왕이 제위에 오른 지 20여 년이 지났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13년째 되던 해이다. 이때 옛 연燕·제齊·조趙나라 지역에서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피하여 번조선으로 밀려 들어왔고, 번조선은 국경지대에 있는 빈 땅에 이들을 수용하였는데, 그곳이 바로 〈조선열전〉에서 상하장上下鄣이라고 한 상하운장上下雲障<sup>57)</sup>이었다. 준왕이 장수를 파견하면서까지 특별히 관리했던 외국인 망명자 수용소가 있던 지역이었던 셈이다. 상하운장은 상운장과 하운장이라고 하는 두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난민의 규모가 상당했다는 것도 엿볼 수 있다. 그러니 번조선으로서도 이들을 관리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이러던 차에 서기전 195년에 위만이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와서 상하운장上下雲障에 거주하였는데 이처럼 상하운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난민촌으로 이미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던 상황이었다. 위만도 당연히 그런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앞뒤 관계가 명료한 사건을 (I)에서는 대단히 모호하게 기록을 함으로써 후인들이 오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준왕은 한나라에서 고위직을 지낸 위만이란 인물이 오자 선의로 박사벼슬을 내리고 국경지역에 있는 상하운장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이에 대하여 『북부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55) 『삼국지』 권30 〈위서〉 〈오환선비동이전〉 한. 『위략』왈: 否死, 其子準立. 二十餘年而陳·項起, 天下亂, 燕·齊·趙民愁苦, 稍稍亡往準, 準乃置之於西方.

56) 『북부여기』 상. 壬辰三十一年 陳勝起兵 秦人大亂 燕齊趙民 亡歸番朝鮮者數萬口 分置於上下雲障 遣將監之.

57) 『한서』 〈지리지〉에는 현토군에 운장雲鄣이 있다고 나온다(65번 각주 참고).

재위 45년 병오년에 연나라 노관이 한·漢나라를 배반하고 흉노로 달아나자 그 일당인 위만이 우리나라에 망명을 구하였다. 임금(해모수 단군)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나, 병이 들어 능히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셨다. 변조선 왕 기준이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치고 마침내 위만을 박사(博士)로 삼고 상하운장을 떼어 주어 지키게 하였다.<sup>58)</sup>

우선 변조선과 북부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단군조선의 정통계보를 이어온 대부여가 망하고 그 뒤를 이은 북부여는 여전히 삼한 전체의 통수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한나라의 고위층 인사인) 위만의 망명은 당연히 북부여 천제자인 해모수 단군에게 중요 보고사항이었다. 해모수 단군은 처음에 허락하지 않았으나 병이 들어서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준왕은 선의를 베풀어 그를 받아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위만은 준왕의 은혜로 벼슬까지 받은 신하가 되었으나, 1년 뒤 왕검성으로 쳐들어와서 자기의 주군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자이다. 천인이 공노할 불의한 자로서, 맹자의 표현대로 잔적<sup>59)</sup>의 대명사가 아닐 수 없다.

(H)~(I)에 기술된 〈조선열전〉의 이야기를 통하여 진번의 위치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시대 연나라가 전성기였던 (소왕) 시절에 진번과 조선을 공략하여 복속시키고, 장새를 쌓았다. 이것은 진개가 (변)조선의 땅을 1-2천여 리 빼앗고 만변만에 조선과 경계를 정한 사건을 말한다. 연나라는 이후 그곳에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을 설치한 바, 이 5군은 진개가 빼앗은 영토에 세워진 것이므로 진번은 바로 이 5군의 어디쯤에 있었던 지역이 된다. 연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진나라는 그 지역을 요동외요에 소속시켰고, 한나라 때에는 그곳이 중앙정부와는 너무 멀어서 직접 지키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요동의 옛 장새를 새롭게 수리해서 연왕 노관이 관할하도록 했다. 그리고 조선과는 패수를 경계로 삼았다. 노관이 흉노로 도망가자 위만이 패수를 건너 조선으로 와서 상하장에 거주하였다.

이상에서 진번은 패수의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었으며, 변조선도 진개에게 빼앗긴

58) 『북부여기』 상. 午四十五年. 燕盧綰叛漢 入匈奴 其黨衛滿求亡於我 帝不許. 然, 帝以病不能自斷, 番朝鮮王箕準多失機, 遂拜衛滿爲博士 劃上下雲障而封之.

59) 『맹자』, 〈양혜왕장구〉 상. 賊仁者 謂之賊 賊義者 謂之殘

서쪽의 강역을 그 이후에 다시는 회복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진번은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망하던 서기전 194년까지 변조선의 강역이 아니었다.

#### 4. 진번군의 실존문제

그렇다면 진번군의 위치는 어디여야 할까? 어떤 지역에 새롭게 낙랑군을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낙랑군이란 이름은 과거부터 있어왔던 그 지역의 낙랑이란 지명에서 따왔을 것이다. 즉 원래부터 낙랑이 있었기 때문에 낙랑군으로 정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다. 실제로 낙랑은 태호복희시절부터 있어왔던 지명이다.<sup>60)</sup> 이것은 현토군, 임둔군, 진번군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진번군은 원래 진번이 있던 곳에 세워졌어야 사리에 맞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열전>에서 말하는 진번과 한사군의 진번군은 전혀 다른 곳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서』는 그런 당혹감을 던져주고 있다.

(M) 효혜, 고후의 시대를 맞이하여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되었다. 요동태수는 위만과 약속하기를 (천자의) 외신이 되어 국경밖의 만이를 지켜서 노략질을 못하게 하면, 만이의 여러 군장들이 들어와서 천자를 알현하고자 하는 것을 금하지 않겠다고 했다. 천자도 그것을 보고받고 허락했다. 위만은 군사력이 강해지고 재물을 얻게 되자 주변의 소읍, 진번, 임둔을 침략해서 항복을 받으니 모두 와서 복속되었고, 사방 수천 리가 되었다.<sup>61)</sup>

이 기사에서는 한혜제(서기전 195년~서기전 188년) 때 위만은 진번과 임둔을 비롯하여 주변 여러 지역을 자기 강역으로 복속시켰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진번은 전국시대 연나라가 이미 빼앗아 가서 현재 한나라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당연히 한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어야 할 진번을 복속시켰다면 한나라에서 그냥 주지

60) 『태백일사』 <신시본기>. 密記曰 伏羲 出自神市 世襲雨師之職 經青邱樂浪 遂徙于陣.

61) 『사기』 <조선열전>. 會孝惠·高后時, 天下初定. 遼東太守卽約滿, 爲外臣, 保塞外蠻夷, 無使盜邊, 諸蠻夷君長欲入見天子, 勿得禁止. 以聞, 上許之. 以故滿得兵威財物, 侵降其旁小邑, 真番·臨屯 皆來服屬. 方數千里

않은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일이다. 그럼에도 앞뒤 어디에도 진번을 두고 위만과 한나라가 전쟁을 했다는 사실은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번이 위만조선의 강역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나라와의 국경은 패수를 넘어서 상당히 서쪽으로 이동했어야 마땅하다.

(N) 원봉 2년(서기전 109), 한의 사신 섭하가 우거에게 타일러 말했으나, 우거는 끝내 (천자의) 조칙을 받들려고 하지 않았다. 섭하가 돌아가다가 조선의 경계에 이르러 패수에 임하자, 마부를 시켜서 섭하를 전송 나온 조선의 비왕裨王 장長을 찢어 죽이고, 즉시 패수를 건너 한의 강역으로 들어왔다.<sup>62)</sup>

한무제 때인 서기전 109년에 이르러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침입하는 배경이야기이다. 섭하가 한무제의 사신으로 우거에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패수에서 조선의 비왕裨王 장長을 죽였는데 이에 격분한 우거가 군사를 모으고 섭하를 죽이자 한무제가 조선을 쳤다는 것이다. 이 전쟁의 결과로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한사군이 설치되었다는 것인데, 위 기사는 위만조선과 한나라의 경계가 여전히 패수임을 알려주고 있다. (M)에서 위만이 진번을 복속시켰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O) 원봉 3년(서기전 108) 여름, 니계상 참이 사람을 시켜 조선왕 우거를 죽이고 항복해 왔다. 왕험성은 아직 함락되지 않았는데, 죽은 우거의 대신 성사가 또 반항하여 다시 (한의) 관리를 공격하였다. 좌장군은 우거의 아들 장과 항복한 재상 노인의 아들 최에게 그 백성을 달래고 성사를 죽이게 하니, 이로써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으로 삼았다.<sup>63)</sup>

한무제가 침입한 이듬해 마침내 사람을 시켜 우거왕을 죽이고, 또 반항하는 우거의 신하 성사를 죽이게 함으로써 마침내 1년을 끌어온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고, 그 결과로

62) 元封二年, 漢使涉何誘諭右渠, 終不肯奉詔, 何去至界上, 臨淇水, 使御刺殺送何者朝鮮裨王長, 卽渡, 馳入塞。

63) 元封三年夏, 尼谿相參乃使人殺朝鮮王右渠來降. 王險城未下, 故右渠之大臣成巳又反, 復攻吏. 左將軍使右渠子長·降相路人之子最告諭其民, 誅成巳, 以故遂定朝鮮, 爲四郡

위만조선의 강역을 한사군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위만조선을 멸하고 그 자리에 식민지 한사군을 두었으니 한사군은 당연히 자기들이 점령한 위만조선 강역 안, 즉 패수의 동쪽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진번은 패수의 서쪽에 있는데, 『한서』 〈조선전〉의 기록대로 진번군이 한사군의 하나라면 이 진번군은 패수 서쪽에 있는 진번과 아무 관계가 없는 꼴이 되고 만다.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것이다. 한사군이 사실이 될 수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열전〉의 거짓된 기록은 한두 군데가 아니다. (N)에서 한의 사신으로 왔던 섭하가 조선의 비왕 장수를 살해했다고 했고, 이 살인사건은 한·위만조선 전쟁의 단초가 된 중요한 사건임에도 위 기사(O)에서는 장수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나온다. 심지어 장은 전쟁 후 기후幾侯로 봉작까지 받았다. 일반적으로 비왕은 2인자에 해당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우거의 아들 장수와 비왕 장수는 다른 인물이 아니다. 이러한 오류는 단순한 것이 아니며, 『사기』를 순진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각성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서』 〈조선전〉은 〈조선열전〉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1차 사료라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으로 삼았다”는 원 사료의 핵심내용에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진번, 임둔, 낙랑, 현토 사군으로 삼았다”고 덧칠을 했는데, 반고는 무엇을 근거로 4군의 구체적인 이름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얼핏 생각하기에 진번과 임둔은 〈조선열전〉에 등장하니까 그렇다 쳐도 낙랑과 현토는 임의로 넣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서』 〈지리지〉를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이다.

현토군은 무제武帝 원봉元封 4년에 개척하였다. 고구려高句驪는 왕망이 하구려下句驪라 하였다. 유주幽州에 속한다. 호수는 45,006호이고, 인구는 221,845인이다. 3개 현이 속해 있다. 고구려현高句驪縣은...<sup>64)</sup>

64) 玄菟郡, 武帝 元封四年開. 高句驪, 莽曰下句驪. 屬幽州. 應劭曰 故眞番, 朝鮮胡國. 戶四萬五千六, 口二十二萬一千八百四十五. 縣三, 高句驪, ...

낙랑군은 무제 원봉 3년에 개척하였다. 왕망은 낙선樂鮮이라 하였다. 유주에 속한다. 호수는 62,812호이고, 인구는 406,748인이다. 운장雲鄣이 있다. 25개 현이 속해 있다. 조선현은...<sup>65)</sup>

현토군과 낙랑군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현토군, 낙랑군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군들에 대해서도 설치시기, 지리적 위치, 호구수, 인구수, 속현 수 등 실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 <지리지>인데 하필 진번군과 임둔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지리적 정보는 커녕 이름조차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진번군과 임둔군은 이름만 있었을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 진번군과 임둔군에 대한 사료도 대단히 빈약하다. 게다가 『후한서』에 따르면 진번군과 임둔군은 서기전 82년에 혁파되고 낙랑군에 병합되었다고 한다.<sup>66)</sup> 설치한 지 27년만에 없어지고 낙랑군에 병합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거짓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낙랑군에 병합되려면 진번군과 임둔군이 낙랑군의 인근 지역에 있었다는 것인데 어째서 『한서』 <지리지>에는 아무 기록도 없는가. 한사군의 구체적 명칭을 기록해 놓은 장본인이 반고 자신인데 정작 것처럼 중요한 <지리지>에서는 이름조차 써넣지 못했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것이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듯이 있지도 않은 진번군과 임둔군이 있다고 하니 범엽도 그 알리바이를 짜맞추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한다.

#### IV. 한사군의 허구성 고발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 강단사학계의 한국고대사에 대한 제1의 도그마는 ‘한사군 재한반도설’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강단사학계를 지탱해 온 한국고대사의 학문적 기반이자 토대가 바로 ‘한사군 재한반도설’이기 때문이다. 핵심주장은 이러하다. 고조선이 준왕 대에 이르

65) 『한서』 <지리지>, 樂浪郡, 武帝 元封三年開. 莽曰樂鮮. 屬幽州. 應劭曰 故朝鮮國也. 戶六萬二千八百一十二, 口四十萬六千七百四十八. 有雲鄣. 縣二十五, 朝鮮

66) 『후한서』 <동이열전> 예조. 昭帝始元五年 罷臨屯眞番 以并樂浪



러 연나라 사람 위만에게 멸망당하고 이어서 위만조선이 시작되었고, 위만조선은 위만의 손자 우거에 이르러 한무제의 침입으로 망하고, 그 자리에 진번, 임둔, 낙랑, 현토라고 하는 소위 한사군이 들어섰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평안도와 주변지역이라는 것이다.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냐를 두고 벌이고 있는 논쟁에 대하여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설명<sup>67)</sup>에 따르면 대동강 중심설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의 도읍지가 평양성이라는 기록과 낙랑이 평양성에 있다는 역도원의 주장, 평양지역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 등을 반영한 학설이며, 요동중심설은 고조선은 원래 요동군 협동현에 도읍을 두었다는 사료에 기반하여 <조선전>에 나오는 진번, 패수, 낙랑, 임둔 등의 주무대가 요동지역이라는 주장을 반영한 설이며, 중심지 이동설은 (사료적 근거로 따지면 요동중심설이 대동강 중심설보다 객관성이 높다보니) 이를 절충하여 고조선이 비록 요동에서 도읍을 세우고 출발하였지만 어느 시점에 지금의 한반도 북부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주장으로 지금의 주류학설이 되었다고 한다. 결국은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한사군과 관련한 중국 사료에는 중심지가 이동하였다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일절 없고 『한서』 <지리지>에서 보았듯이 한사군의 핵심인 낙랑군과 현토군도 그 위치가 결코 한반도가 될 수가 없음은 더 이상의 구구한 설명이 필요치 않다.

한사군이란 4개의 군이 그 구성요소이므로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이 될 수 없을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진번군의 실존성에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한사군은 과연 정말로 있었는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신채호 선생은 일찍이 ‘한사군은 도상계획에 불과했다’고 단정한 바 있다.

(P) 한사군은 원래 땅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지상紙上에 그렸던 일종의 가정假定, 곧 계획이었다. 말하자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는 그곳에 진번군을 만들 것이다. 북동부여, 곧 북옥저를 멸망시키고 나서는 그곳에 현토군을 세울 것이다. 남동부여, 곧 남옥저를 멸망시키게 되면 그곳에 임둔군을 만들 것이다. 낙랑국을

67) 한국사 총설 DB, 신편 한국사,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https://db.history.go.kr/diachronic/level.do>)



멸망시키게 되면 그곳에 낙랑군을 설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에 근거한 계획일 뿐이었지, 실제로 세워졌던 것은 아니다.... 그 전쟁은 대개 기원전 108년 경, 곧 위씨가 멸망한 해에 시작하여 기원전 82년에 이르러 끝났는데, 한이 패하여 사군 설치의 희망이 영원히 끊어졌기 때문에 진번임둔 두 군은 그 명칭을 폐지하고, 현 토낙랑 두 군은 요동군 내에 임시로 설치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sup>68)</sup>

한사군이 실제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단지 계획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단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다. 『북부여기』를 보면,

재위 13년 계유년에 한나라 유철이 평나를 침범하여 우거를 멸하더니 그곳에 4군을 설치하려고 군대를 크게 일으켜 사방으로 쳐들어왔다. 이에 고두막한이 구국의 의병을 일으켜 이르는 곳마다 한나라 도적을 격파하였다. 이때 유민이 사방에서 호응하여 전쟁을 지원하니 군세를 크게 떨쳤다.<sup>69)</sup>

〈조선열전〉에서는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두었다”고 하였으나, 『북부여기』에서는 전혀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즉 서기전 108년에 한무제 유철이 우거정권을 멸하고 철군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군을 두려고 다시 북부여로 크게 쳐들어왔다는 것이다. 우거정권을 멸한 데서 그치지 않고 북부여까지 침공을 하였는데 그것은 사군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실행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였으니 고두막한이라는 인물이었다. 의병을 조직하여 강력하게 저항하였는데 유민들이 전국적으로 호응하면서 전세를 크게 호전시켰던 것이다. 고두막한은 이후 졸본에 나라를 세웠는데 졸본부여 혹은 동명국으로 불렸다. 동명은 그의 자호에서 따온 것이다. 동명왕 고두막한은 22년 뒤인 서기전 87년에 이르러 북부여 고우루 단군을 떠나도록 한 뒤<sup>70)</sup>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 북부여의 새로운 단군이 되었는데,

68) 신채호, 『조선상고사』(앞의 책), 196~197쪽.

69) 『북부여기』 상. 癸酉十三年 漢劉徹 寇平那 滅右渠 仍欲易置四郡 盛以兵四侵. 於是 高豆莫汗 倡義起兵 所至連破漢寇 流民四應 以助戰 軍報大振.

70) 고우루 단군은 고두막한의 협박에 못이겨 봉어하였고, 동생 해부루가 제위에 올랐으나 그도 압박을 못이기고 결국은 가섭원지역으로 떠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동부여이다. 동부여는 해부루-금와-대소로 이어지다가 고구려 대무신 열제 때 멸망하였다.

한무제와의 대전쟁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부여기』 하의 기록에 따르면 동명왕 고두막한과 한무제 사이에 벌어진 전쟁은 서기전 108년 당해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후로 무려 22년간 계속되었다. 서기전 87년 “가을에 한나라와 여러 번 싸워서 서압록하 강가에서 크게 승리했다”는 기록<sup>71)</sup>을 볼 때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긴 전쟁이 마무리되고, 마침내 한나라와의 대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며 북부여 단군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P)에 적시된 단재 선생의 추론(단재 선생 주장의 근거를 알 수 없어서 추론이라고 하였음-논자 주), 즉 “그 전쟁은 대개 기원전 108년 경, 곧 위씨가 멸명한 해에 시작하여 기원전 82년에 이르러 끝났는데, ... 임시로 설치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와 서기전 82년에 ‘진번과 임둔을 파하고 낙랑에 합병하였다’는 『후한서』의 기록은 5년의 오차는 있을 망정 모두 이같은 정황을 확신케 하기에 충분하다. 고두막한이 북부여의 고우루 단군을 몰아내고 무력으로 제위에 오른 것도 비록 도덕적인 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그 공력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22년 간의 대전쟁이 사실임과 함께 고두막한이 그 전쟁의 승리자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정황이다.

한편, 한무제로서는 이러한 참패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치욕의 역사였다. 따라서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북부여와의 대전쟁에서의 패배의 역사를 지워버렸음은 물론이고, 머리속에만 있었던 사군설치 계획을 실제 역사로 둔갑시켜 기록하였다. 그러니 현장 구석 구석을 누비며 실제 상황을 세세히 목도했던 사마천으로서는 한무제의 분노에 찬 위엄 앞에 어쩔 수 없이 ‘사군을 두었다’고 했지만 그 이름은 대지 못했던 것이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환단고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에 언급된 단군조선에 관한 기록을 분석하여 단군조선의 실재성, 삼한관경제를 통한 삼조선 체제로 운영된 단군조선의 진면목, 기자조선의 허구성 등을 살펴보았고, 『사기』 〈조선열전〉을 통하여 진번의 실체를 살펴보았다. 〈조선열전〉에서는 전국시대 연나라가 진번과 조선을 침략하여 일부를

71) 『북부여기』 하. 秋八月 與漢寇 屢戰于西鴨綠河之上 大捷

복속시켰는데 그때 복속된 지역이 시종일관 한나라와 조선의 경계인 패수의 서쪽 지역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한조 국경선이었던 패수는 위만조선이 멸망할 당시까지 바뀌지 않았으므로 진번은 위만조선의 강역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패수의 동쪽에 있던 위만조선을 멸하고, 그 자리에 진번을 포함한 한사군을 두었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기 때문에 진번군의 존재는 허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진번군이 허구로 드러난 이상 한사군의 존재자체도 믿을 수 없는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 일찍이 신채호 선생은 한사군은 실제 설치된 것이 아니라 계획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문서가 바로 『북부여기』이다. 『북부여기』에는 『사기』에는 전혀 기록이 없는 한무제와 고두막한의 대전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서기전 108년 한무제는 위만조선을 멸한 뒤에 그 여세를 몰아 북부여로 침공해 들어왔다. 당시 북부여는 국력이 다소 약했지만 고두막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창의기병으로 전국 각지의 백성들의 도움으로 한나라 군대에 맞섰으며, 이 전쟁은 무려 22년간 지속되었다. 이 기나긴 전쟁의 결과는 고두막한이 이끄는 북부여의 최종적인 승리로 끝났으며, 이 전쟁에서 참패한 한무제는 위만조선의 강역에 한사군을 결코 설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참패의 치욕을 감추기 위하여 계획에 불과했던 한사군을 실제로 설치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하도록 한 것이 『사기』 <조선열전>이다. <조선열전>에서 ‘한사군을 두었다’고만 하고 한사군의 이름을 적지 못한 이유이다.

## 참고문헌

### (원전)

- 『高麗史』
- 『檀君世紀』
- 『大清一統志』
- 『史記』
- 『史記索隱』
- 『史記集解』
- 『三國遺事』
- 『三國史記』
- 『孟子』
- 『北夫餘紀』
- 『三國志』
- 『書經』
- 『潛夫論』
- 『戰國策』
- 『帝王韻紀』
- 『太白逸史』
- 『漢書』
- 『後漢書』

### (단행본)

- 신채호 저, 박기봉 옮김, 2012, 『조선상고사』 (초판 13쇄), 비봉출판사.
- 신채호 저, 박기봉 옮김, 2016, 『조선상고문화사(외)』 (초판 4쇄), 비봉출판사.
- 안경전 역주, 2012, 『환단고기』, 상생출판.
- 이덕일, 김병기, 2006, 초판(2쇄),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 역사의 아침.

세계환단학회지 (12권 1호)

(논문)

- 윤내현, 『삼국유사』와 『삼부론』의 고조선인식. 단군학연구, 제22호, 297~313, 2010.

(웹자료)

- 한국사 총설 DB, 신편 한국사,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https://db.history.go.kr/diachronic/level.do?>)

\* 감사의 말씀

본 연구는 2025년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Falsehood of four Han commanderies via the analysis on the entity of Jinbeon county in Korean ancient history**

Byeongwoo Ahn

To demonstrate the entity of Jinbeon county, one of the four Han commanderies, I examined the records Joseon biography in Shiji written by Sima Qian. The Joseon indicated in Shiji is not Dangun Joseon but Wiman Joseon. To differentiate the two Joseon, the fidelity of Dangun Joseon was reviewed by a narrative written in Hwandan Gogi. The Dangun Joseon had been maintained for over 2,000 years by a unique system called Samhan Kwangyeong, which literally means the ruling of one state into three kingly territories. The three kingly territories were called Jin Joseon, Beon Joseon and Mak Joseon, respectively. The Jin Joseon had been reigned by Dangun, the Great Emperor and the others by vice Danguns. Jin Joseon, Beon Joseon and Mak Joseon were located in the Manchuria, eastern area of the Chinese continent and Korean peninsula, respectively. However, the Joseon written in the most Chinese history records refers to just Beon Joseon. Therefore, the true history of ancient Korea has been distorted or misunderstood in Chinese historic biographies because they had never discerned the three Joseon. According to Joseon biography in Shiji, Jinbeon territory, originally included in Beon Joseon was taken by force by the invasion of Yeon, one of 7 countries in the Age of warring states. The ownership of the Jinbeon territory had been succeeded to Han empire and never returned to Beon Joseon or Wiman Joseon, which succeeded the Beon Joseon. Wiman Joseon had been located to the east of Pei river, the border between Han empire and Wiman Joseon all the way. The Jinbeon had been located to the west of Pei river. The four Han commanderies has been knowned to be established at the territory of Wiman Joseon immediately after it was conquered by the emperor Mu of Han dynasty in BCE 108. It would be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name Jinbeon in Jinbeon county were derived from Jinbeon territory which had been present for a long time in the region. Jinbeon county could not be included in the Four Han commanderies, because the Four commanderies were constructed at the territory of the former Wiman Joseon. Therefore, the records that described the existence of Jinbeon county in the four Han commanderies can not be true. In that case, can the



theory of Han commanderies be true? Shin Chaeho the reputed historian already had said that the Han commanderies was never established but just a plan made by the emperor Mu of Han. According to the records in Bukbuyeogi, the emperor Mu kept on invading to Bukbuyeo empire to establish the four Han commanderies to the region of Wiman Joseon. At that time a man named Godumakhan had defeated the forces of emperor Mu. The war had continued for 22 years. The final victor was Godumakhan. And he became the 5th emperor of Bukbuyeo as the outcome of the war. The defeat was very shameful to emperor Mu of Han. To conceal the dishonor, he had Sima Qian describe the false history in Shiji. Therefore, the theory of Han commanderies was born as if it is true.

Key words: Bukbuyeo, Dangun Joseon, Han commanderies, Jinbeon county, Wiman Joseon, Shiji

접수일: 2025. 4. 25. / 심사완료: 2025. 5. 16. / 게재확정일: 2025. 5. 21.

# 〈천부경〉의 논리적 구조와 인간학적 함의\*

유 철\*\*

- I. 들어가는 말
- II. 〈천부경〉의 전래와 판본비교
- III. 〈천부경〉의 구조와 천지인天地人
  - 1. 상경과 천天(하늘)
  - 2. 중경과 지地(땅)
  - 3. 하경과 인人(사람)
- IV. 〈천부경〉의 인간관
  - 1. 인일삼人一三
  - 2. 인이삼人二三
  - 3. 본심본태양양명本心本太陽昂明
  - 4. 인중천지일人中天地一
- V. 맺는 말 : 일종무종일一終無終一

【주제분류】 한국철학

【주요용어】 명明, 무無, 본本, 삼일신고, 인간관, 일一, 천부경, 천지인, 태일太一

【요약문】 〈천부경〉은 인류의 시원 경전으로 평가된다. 여러 전수과정과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고 있으며, 고서古書의 기록에서도 그 흔적은 찾아볼 수 있다. 〈천부경〉의 판본을 비교해볼 때 그 각각이 구전口傳되면서 전해진 흔적이 있고, 실체가 문서로 남아있어 사실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천부경〉은 총 81자의 함축된 내용이며 본문 중간중간에 숫자가 31개나 포함되어 있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천부경〉 연구자들은 〈천부경〉이 하늘과 땅과 사람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논자는 비록 짧은 내용의 글이지만 그 속에서 〈천부경〉의 논리적 구조와 정합성을 분석해서 〈천부경〉이 대단히 논리적으로 완성된 내

\* 이 논문은 (사)대한사랑의 지원으로 집필되었고 2024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사랑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상생문화연구소(전자메일: youkant@hanmail.net)

용을 가진 경전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천부경>은 첫 글자 1에서 마지막 글자 1에 이르기까지 수미일관首尾一貫된 논리로 완벽한 정합성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비록 천지인 삼재三才를 모두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핵심 가르침은 인간의 본질과 역할에 두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천부경>에 포함된 숫자 중에서 1(일자一者 혹은 일신一神)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그 1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천부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논자는 그 1의 의미를 형이상학적 존재론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그 1이 인간의 본질이나 역할을 규정짓는 단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은 결과적으로 <천부경>은 1의 철학이며, 그 1은 가장 근원적 존재 근거이면서 가장 완성된 존재로서 인간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음을 논증하고 있음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자의 결론은 <삼일신고>가 <천부경>의 주석이라는 판단으로 나아가고, 다음 연구의 주제로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상호 비교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삼일신고>의 핵심 주제 역시 인간이기 때문이다. 논자는 그 과제가 곧 완수되기를 바란다.

## I. 들어가는 말

논자는 지난해 「<삼일신고>의 논리적 구조와 인간학적 함의」라는 제목의 논문을 집필하면서 <삼일신고>의 구조가 <천부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천부경>의 철학적 논리적 구조를 살펴보면서 <삼일신고>에서 발견한 인간학적 의미를 <천부경>에서도 찾아보는 연구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이택의 『태백일사』에서 “<삼일신고>의 5대 종지도 <천부경>에 뿌리를 두고, <삼일신고>의 궁극적 정신 역시 <천부경>의 일一의 원리와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기록은 <천부경>의 논리적 특징은 무엇이고, 그 속에 담긴 일一의 정신이 무엇인지, 또 그 일과 하늘과 땅과 인간(天地人)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는지 암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천부경>은 그 내용 상 상경上經, 중경中經, 하경下經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차례로 천天, 지地, 인人을 주제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삼일신고>는 이를 좀 더 확장하여 허공虛空, 일신一神, 천궁天宮, 세계世界, 인물人物 등 다섯 개 장으로 구분하

는데, 이 역시 내용상 크게 천, 지, 인으로 나눌 수 있다. 논자는 〈천부경〉을 천, 지, 인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논리적 근거를 〈천부경〉 내에서 찾아보고, 그 각 분장의 논리구조와 핵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천부경〉의 상중하 세 부분 중 하경下經의 주제를 인간으로 설정하고, 〈천부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천, 지, 인의 상호 관계를 통해 논구하고, 특히 하경의 중심 주제로서 인간에 접근하는 철학적 인간학적 논의를 통해, ‘광명인간’으로서 ‘태일太一’인간의 위격이 무엇인지 논술하고자 한다.

앞의 이택의 말에서 보듯이 〈천부경〉의 근본정신은 ‘일一’이며, 그 일은 천지인天地人 모두의 본성이자 본체이다. 〈천부경〉은 81자의 한자漢字로 구성되는데 그 문자적 나열도 일에서 시작하고 일에서 끝나는(一始無始一, 一終無終一) 구조적 특징을 가지며, 철학적으로도 일一이라는 본체에서 모두가 나오고(一妙衍萬往萬來) 다시 그 모두가 일로 돌아가는 ‘일一의 철학’이라는 내용적 특징을 가진다. 그 一은 무無이면서 모든 것이고, 하늘이면서 땅이면서 인간이다. 이를 표현한 천일일天一一 지일이地一二 인일삼人一三이라는 상경上經의 구절에 의하면 하늘과 땅과 사람은 모두 그 본체는 一이면서 그 위격은 1이고 2며 3으로 표현된다. 一의 정신은 상경, 중경, 하경 모두에서 드러나는데, 특히 하경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면서 ‘본심본태양앙명本心本太陽昂明’이라고 언급하고 바로 이어 인간의 실존적 특징을 ‘인중천지일人中天地一’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인간의 본성으로서 명明이며, 인간의 존재적 특성으로서 일一이다. 두 구절의 올바른 해명이 〈천부경〉의 인간학적 의의를 드러내는 핵심이 될 것이다.

이처럼 논자가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논점은 바로 일一과 인간의 관계를 풀어서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삼일신고〉나 〈천부경〉이나 결국 인간은 ‘일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논리구조는 서로 다르다. 〈삼일신고〉가 말하는 인간이 삼三一이면서 하나(일一)인 삼일신三一神으로 돌아가 삼신즉일신三神卽一神과 하나 되는 것이라면(返眞一神, 三眞歸一), 〈천부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일 그 자체’이다(人一三, 人中天地一). 일一을 풀면 인간이 나오고, 인간의 본성에 들어가면 곧 ‘일 자체一自體’가 드러나는 것임을 확인하는 것 역시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이다.

이처럼 이 논문은 <천부경>의 구조적, 논리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 모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논리적 측면에서는 상경, 중경, 하경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할 것이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일—과 천지인의 관계, 일에서 인간의 본질을, 인간에서 일의 본체를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논자의 방향은 <천부경>에 대한 인간학적 접근을 통해, 비록 <천부경> 자체를 오직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경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속에 함의된 인간학적 의미를 분석하여, <천부경>이 지향하는 인간은 어떤 것인지를 기술하여, 그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 II. <천부경>의 전래와 판본비교

<천부경>의 전문을 담고 있고 가장 분명하게 그 유래를 밝힌 문서는 『태백일사』 「소도경전본훈」 편이다. 「소도경전본훈」은 “<천부경>은 천제 환인의 한국 때부터 구전되어 온 글이다. 환웅 대성존께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내려오신 뒤에 신지 혁덕에게 명하여 이를 녹도문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고운 최치원이 일찍이 신지의 전고비를 보고 다시 첩으로 만들어 전하였다.”<sup>2)</sup>라고 전한다. 이 기록에 의하면 <천부경>이 세상에 생겨난 때는 적어도 6천여 년 전이며, 그 상한선은 9천 년 전 환국시대로 볼 수 있다. 배달국 초기에 글로 옮겨졌고, 신라의 대학자인 최치원에 의해 지금의 한문 <천부경>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유불儒佛의 성행으로 그 흔적을 찾기 어려웠지만, “세상에서 전하기를 목은 이색과 북애 범세동이 모두 <천부경> 주해를 남겼다고 하나 오늘날 찾아볼 수 없다.”<sup>3)</sup>는 말에서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행히 이암의 후손으로, 집안에서 내려오던 고문서들을 편집하여 간행한

1) 지금까지 다양한 <천부경> 연구논문이 발표된바 있다. 철학적인 논문뿐 아니라 불교나 기독교 등 종교에서도 <천부경>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왔다. <천부경>이 1에서 10까지의 숫자로 구성되는 점에서 수리학적 연구, 주역학 관점에서의 연구, 하도낙서를 중심으로 하여 <천부경>을 분석한 논문도 있다. 여러 논문 중에서 <천부경>의 인간학적 의미를 다룬 논문은 찾기 어렵다. 다행히 윤창열 교수의 「천부경의 태일사상」은 논자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분명히 <천부경>은 하늘과 땅과 함께 인간, 즉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참 뜻을 밝힌 경전이므로 <천부경>이 말하는 인간이 무엇인지 해명하고, 인간의 본질을 묻고 대답하는 연구가 많아지길 바란다.

2)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 대전: 상생출판, 2012, p. 504. “天符經天帝桓國口傳之書也 桓雄大聖尊天降後 命神誌赫德以鹿圖文記之 崔孤雲致遠亦嘗見神誌篆古碑 更復作帖而傳於世者也.”

3) 안경전(앞의 책), p. 532. “世傳牧隱李穡伏崖范世東 皆有天符經註解云而今不見”

이택의 『태백일사』에 〈천부경〉이 기록되어 있어 현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태백일사』에 전하는 〈천부경〉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一始無始一析三極無盡本  
天一一地一二人一三一積十鉅無匱化三  
天二三地二三人二三大三合六生七八九運三四成環五七  
一妙衍萬往萬來用變不動本  
本心本太陽昂明人中天地一  
一終無終一<sup>4)</sup>

천부경은 함축된 내용으로 인해 각 연구자의 이해가 서로 다르다. 해석이나 번역을 위해서는 분구分句가 필요하다. 알다시피 원래 「소도경전본훈」뿐 아니라 20세기 초의 계연수 탁본 〈천부경〉에는 분절分節이 없이 첫 자부터 끝 자까지 이어서 기록되어 있다. 물론 앞으로 살펴볼 여러 판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번역을 위한 다양한 분절은 모두 해석자가 임의로 나눈 것으로 생각된다. 이관집의 〈천부경직해〉(1914)와 『키발한』에서 이유립이 이기의 분절법이라 한 것은 서로 일치하고, 계연수의 〈천부경요해〉(1899) 역시 이와 같다. 『정신철학통편』은 새로운 분절로 〈천부경〉 뜻을 풀이하고 있다. 김형탁의 천부경 해석 역시 앞의 경우와는 다른 분구를 하고 있다. 논자는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의 분절을 따라 〈천부경〉을 이해하고자 한다.<sup>5)</sup>

〈천부경〉이 기록된 『환단고기』가 계연수에 의해 1911년에 간행되었으나 한동안 전하지 못하였다. 그사이 1916년에 〈천부경〉의 실체가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바로 계연수에 의해서였다. 물론 계연수는 『환단고기』를 편집하면서 〈천부경〉의 존

4) 계연수 편저, 이유립 현토본, 『환단고기』, 대전, 상생출판, 2006, p. 88. 이러한 분절은 『환단고기』를 감수한 이기에 의한 것이다. 나중에 계연수는 1899년 〈천부경요해〉를 저술하면서 9행으로 분절하여 자체 해석을 시도하였다.(이강식, 『〈천부경〉의 진실성과 조직사상』, 경주: 한국, 2016, p. 56 이하 참조.

5) 이유립은 월간 《자유》(1981. 2월호)에서 ‘一은 始無나 始는 一이니 析三極하여도 無盡本이니라’고 하였고, 전병훈은 『정신철학통편』에서 ‘一始無始, 一析三, 極無盡, 本天一一’이라고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관집은 〈천부경직해〉에서 ‘一始無나 始一이니 析三極하여도 無盡本이니라’ 하였고, 김형탁은 『단군철학석의』에서 ‘一始無始라 一釋三極하여 無盡이니 본하야 天一은 一이요’라고 풀이하고 있다. 김형탁은 기정진 제자가 전한 〈천부경〉 판본으로 해석하였는데 보다시피 여기서 析을 釋으로 표기하였다.



재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를 뒷받침하는 실물을 찾게 되면서 <천부경>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

계연수는 당시 묘향산 석벽에서 <천부경>을 발견하여 탁본하였고, 그 탁본을 단군교 교단에 보냈다. 단군교는 그 해의解義를 위해 탁본 <천부경>을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교철학자 전병훈에게 전달하였다. 전병훈은 이를 자신의 저서 『정신철학통편』(1920년)에 기록하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천부경>이 세상에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 것은 『환단고기』나 묘향산 석벽 탁본으로 볼 때 계연수에 의해서이다.

계연수는 탁본 <천부경>을 단군교로 보내면서 <천부경> 발견 경위를 담은 편지를 동봉하였다. 「계연수 편지」로 알려진 문서가 1921년 단군교의 기관지인 《단탁》에 실렸다.

약 개기를 업으로 삼아 명산에서 구름과 놀기를 십여 년 동안 하다가 지난 가을에 태백산(太白山, 묘향산의 옛 이름)에 들어가서 유심히 깊은 골짜기를 걸어감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은 곳에 이르니, 시내 위의 돌 벽에 옛날에 새겨 놓은 것이 있는 듯 한지라. 손으로 바위에 낀 이끼[苔蘚]을 쓸고 보니 글자 획劃이 분명한 천부경天符經이 나타는지라... 정사丁巳 정월 초열흘날 향산유객香山遊客 계연수桂延壽 재배再拜 단군교당檀君教堂 도하道下<sup>6)</sup>

입 탁본 <천부경>과 『태백일사』 「소도경전본훈」 <천부경>의 차이점은 만萬을 만萬으로, 왕往을 왕往으로 표기한 점이다. 발음이 같은 것으로 보아 이는 암송으로 구전口傳되는 과정에서 문자로 표시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차이로 볼 수 있다.

탁본 <천부경>은 최치원 한역 <천부경>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천부경>의 한역자가 최치원이고 탁본 <천부경>은 한자로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최치원은 원래 전문篆文으로 된 <천부경>을 한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환국시대 구전口傳되던 <천부경>이 배달시대 신지 혁덕에 의해 녹도문으로 기록되었고, 최치원이 신지의 전고비篆古碑를 보고 이를 첩으로 만들어 세상에 전하였다는 것이다.<sup>7)</sup>

6) 《단탁》, p. 17-18. 논자가 현대문체로 바꾸고 전문의 주요 구절만 적었다.

7) 안경전(앞의 책), p. 504이하 참조.

이러한 다양한 전래과정과 더불어 갑골문 〈천부경〉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판본은 바로 농은農隱 민안부(1328-1401)의 『농은유집農隱遺集』에 담긴 〈천부경〉이다. 농은은 고려의 충신으로 〈천부경〉 주석을 남겼다는 목은, 범장과 교류한 사이이며 두문동 72인에 속하는 학자이다. 이는 농은이 〈천부경〉을 접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농은유집』을 공개한 후손은 “필자의 가문에는 목은, 범세동 등과 함께 두문동 72현 가운데 한 명인 농은 민안부 어른이 남긴 〈천부경〉이 전해온다. 그간 〈천부경〉은 고본이 존재하지 않고,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며 그 난해성 때문에 강단사학계에 의해 위, 개작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분명 고본은 전해지고 있다.”<sup>8)</sup>고 하여 농은에 의해 전해진 갑골〈천부경〉의 실체를 증언하였다.

이러한 갑골문 〈천부경〉의 존재는 갑골문 〈삼일신고〉의 존재와 관련해서 그 실재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종교에 전해진 〈삼일신고〉에는 앞뒤로 〈삼일신고〉와 관련된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삼일신고봉장기〉에는 “단군왕검께서 〈삼일신고〉를 강연하고 땡우는 이를 받들었다. 신지神誌가 돌에 고문古文으로 새겨 전하였다. 그 후 기자箕子가 은나라 문자로 나무에 새기게 하여 전했다.”<sup>9)</sup>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은나라문자는 곧 갑골문일 것이다. 〈삼일신고〉가 갑골문으로 번역되어 전해졌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천부경〉 역시 갑골문으로 번역되어 전해졌을 수 있고, 이것이 『농은유집』에 실릴 가능성은 매우 높다.

최치원과 관련되어 전해지는 〈천부경〉의 또 하나의 판본은 최치원의 후손인 최국술이 『崔文昌候全集』을 발간하면서 「孤雲先生事蹟」편에 ‘단전요의...’로 시작되는 〈천부경〉 설명문과 함께 실은 〈천부경〉 전문이다. 여기서는 “檀典要義太白山有檀君篆碑估偃亂讀孤雲譯之其文曰一始無始...”라고 〈천부경〉을 기록하였다. 〈천부경〉 전문을 적은 뒤에 이어서 최치원의 〈난랑비서문〉을 적고 있다. 이 〈천부경〉 전문을 볼 때 『태백일사』 〈천부경〉과 다른 글자는 일곱 글자이다. 다른 글자는 모두 음이 같거나 유사한데, 人中天地一을 人中天中一로 기록한 것이 특이하다.

조선조 성리학의 대가인 기정진은 어린 시절 〈천부경〉을 얻었고 이를 제자 이승학에

8) 이승호, 「한국선도경전 천부경의 전승과정에 관한 연구」, 『단군학연구』 제 19호, p. 214.

9) 발해석실본 〈삼일신고〉 내 〈삼일신고 봉장기〉 참조.

게 전하였다. 이 기정진 판본이 근대의 대종교 교도 김형탁에게 전해졌고 김형탁은 이를 검토 연구하여 1957년 『단군철학석의』를 출간하였다. 이 기정진본 역시 『태백일사』 〈천부경〉과 글자 차이를 보이는데 ‘析三極’을 ‘釋三極’으로, ‘妙演’을 ‘妙衍’으로, ‘人中天地一’을 ‘人中天中一’로 적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치원의 후손 최국술이 전한 〈천부경〉에서도 ‘人中天中一’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정진본 〈천부경〉 구전본과 최국술본 〈천부경〉 구전본이 같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천부경〉의 전래는 태백일사본, 계연수 석벽본, 농은본, 최국술본, 기정진본 등 다섯 갈래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각각의 본은 글자가 조금씩 다르다. 단 태백일사본과 묘향산 석벽본은 다른 글자 없이 일치한다.

### III. 〈천부경〉의 구조와 천지인天地人

〈천부경〉은 81자의 한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시원적 담론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천부경〉 연구자들은 그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문구를 묶어서 구분하여 상경上經, 중경中經, 하경下經으로 나눈다.<sup>10)</sup> 이 상중하의 구분에 해당하는 주제는 천天, 지地, 인人이다. 굳이 주제별로 이름한다면 천경天經, 지경地經, 인경人經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천부경〉을 상경, 중경, 하경으로 구분하는 논리적 근거와 그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1. 상경과 天(하늘)

〈천부경〉은 숫자 1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81자의 경전이다. 이중 상경은 “一始無始一析三極無盡本 天一一地一二人一三一積十鉅無匱化三” 28자이다. 이 상경을 달리 천경天經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상경을 우리말로 풀이하면서 그 주제의 적합성에 대해 논의해보자.

10) 〈천부경〉의 구조를 상중하로 나누고 그 각각을 천리, 지전, 인물로 규정하기도 하다. 물론 그 말은 상중하의 주제가 천지인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최민자, 같은 책, p. 46 이하 참조)

일(하나)은 천지만물 비롯된 시작이나 무에서 시작하는 일(하나)이어라. 이 일(하나)이 천지인 삼극으로 나뉘어 작용해도 그 근본은 다할 것이 없어라. 하늘은 창조운동 근원되어 첫째 되고, 땅은 생성운동 근원되어 둘째 되고, 사람은 천지완성의 근원되어 셋째 되니 일이 쌓여 열까지 열리는데 그 모두는 다함없는 3수의 조화라네.<sup>11)</sup>

위 내용 중에서 첫째, 천지인 모두가 일이라는 문구, 즉 天一, 地一, 人一이 있고, 또 둘째, 첫 문장 ‘일은 천지만물 비롯된 시작(一始)’으로 볼 때, 그리고 셋째, ‘일이 쌓여(혹은 성장하여, 현현하여) 열까지 열린다.(一積十鉅)’는 문구까지 본다면, 이 상경上經의 주제는 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주생성의 존재근원으로서 一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천경天經이라고 하고, 그 주제를 天이라고 하는가? 사실 상중하 각 경전을 천경, 지경, 인경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경〉 자체가 천지인에 대한 무궁한 원리를 담고 있기에, 그 각각의 부분에 대해 천경, 지경, 인경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상경의 내용 중에서 천지인을 규정하는 ‘天一, 地一二, 人一三(하늘은 창조운동 근원되어 첫째 되고, 땅은 생성운동 근원되어 둘째 되고, 사람은 천지완성의 근원되어 셋째 되니)’은 〈천부경〉을 상중하로 나눌 때 그 각 장章의 핵심내용이 된다. 즉 상경은 하늘의 창조운동을, 중경은 땅의 생성변화운동을, 하경은 인간의 천지완성의 행위를 다루고 있다.<sup>12)</sup> 그렇다면 상경의 주제는 일一이면서 천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둘은 구분되면서 동일한 존재위격을 갖는다고 할 때, 天과 一의 관계는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경을 천경으로 부를 수 있는 논리적 근거 역시 마련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대산 김석산은 〈천부경〉에 대해 ‘하늘의 이치에 딱 부합하는

11) 안경전(앞의 책), p. 506. 뒤에서 논하겠지만 “하늘은 창조운동 근원되어 첫째 되고, 땅은 생성운동 근원되어 둘째 되고, 사람은 천지완성의 근원되어 셋째 되니”라는 구절은 〈천부경〉의 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즉 상경은 하늘의 창조운동을, 중경은 땅의 생성변화운동을, 하경은 천지의 목적을 완성하는 실천을 주제로 하는 내용으로 분석할 수 있다.

12) 황경선은 “상경은 우주의 순수한 형이상학적 기틀 혹은 우주 조화의 무형한 정보를 다룬다. 중경은 이 천지인의 기틀을 갖추고 전개돼 나가는 실재적, 현상적 작용을 밝힌다. 그리고 하경은 인간 안에서 인간을 통해[人中] 천지인이 마침내 조화되는 성숙의 경계를 담고 있다.”(황경선, 『하이데거와 〈천부경〉에서 일자의 문제』, 『동서철학연구』, 한국동서철학회, 2014. p. 287.)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천부경〉 상경의 내용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며, 논자 역시 이에 동의한다.

글이다. 그러니 이 글에 하늘의 이치가 들어있다'<sup>13)</sup>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늘의 이치란 '천부'이며, 이는 곧 一로 상징되는 우주의 창조와 변화 섭리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천부경>의 주제 一과 天의 관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천부경>의 첫 부분은 '一始無始'이다. 이 첫 문장의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 1) 一은 시작이나, 그 시작의 조건으로서 다른 시작이 없는(무시無始) 원초적 시작으로서 一이다.
- 2) 一은 시작이나, 無에서 시작된(무시無始) 一이다.<sup>14)</sup>

두 해석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일은 만물의 근원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sup>15)</sup> 이러한 해석에서 一이란 최초의 가장 궁극적 존재자에 대한 상징적 개념규정으로, 그 이상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존재의 시원이며,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어떤 것에 대한 상징이다. 아마도 일자一者 혹은 일신一神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이다. 일자든 일신이든 그것은 가장 근원적 존재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그 외 다른 수와 달리 특히 一은 <천부경>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가장 근원적 개념이다.<sup>16)</sup> 그래서 첫 구절 역시 一과 無, 혹은 시작과 시작 없음, 존재와 비존재라는 극적

13) 김석진, 『대산의 천부경』, 서울: 동방의 빛, 2010, p. 10.

14) 김석진과 최민자는 1번으로 번역하고 있다.(김석진, 같은 책, p. 30, 최민자, 같은 책, p. 56. 이하 참조) 김석진은 주역을 원용援用해 태극에서 만물이 나왔는데 그 태극은 시작도 끝도 없어 무극이라고 하는데, <천부경>의 一도 시작이 없어 無始라고 한다고 해석한다. 즉 一始는 太極이고 無始는 無極이라는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김석진, 같은 책, 30~31. 참조)

15) 물론 여기서 無를 동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사로 볼 것인지에 따라 해석은 차이를 갖는다. 만일 이를 "하나"는 시작이나 무에서 비롯된 하나이다"라고 한다면, 하나 혹은 일자가 시작이라고 하면서 그 시작의 근원은 無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천부경>에서 一과 無 두 본체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천부경> 안에서 볼 때 오직 일자와 다자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無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없다. 따라서 이때 無는 有가 아닌 존재로서, 모든 有의 본체로서 상징된 無이다. 一者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본체이며 바탕이라는 <천부경>의 존재론과 생성론에서 그 일자 외에 다른 어떤 본체나 바탕, 즉 일자가 근거하는 어떤 다른 원인이 요청된다면 그것은 바로 無라는 뜻에서 '일시무시일'이라고 한 것이다. 사실 '一始'라고만 하면 그 일의 시작을 또 생각하거나 추론할 수 있기에 그 일자는 다른 어떤 시작이 없는 그 자체 절대적 시작이며 절대적 본체임을 말한 것이다.

16) 최민자는 "<천부경>에서 근원적 일자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하나(일)이라고 한 것은 무수한 진리의 가지들을 하나의 진리로 되돌리기 위한 우리 국조의 심원한 뜻이 담겨진 것이다."(최민자, 같은 책, p. 45)라고 하는데 일견 가능한 주장이긴 하다. 그러나 '삼일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진리'라는 표현은 동의하기 어렵다.

대립을 통해 설명하고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一에 대한 설명의 대표적 사례가 〈발귀리의 송가〉이다. 그 첫 구절 역시 一에서 시작한다.

“大一其極이 是名陽氣라”<sup>17)</sup>

이 첫 문장으로 〈발귀리 송가〉의 전체적 성격을 읽을 수 있다. ‘대일大一’은 모든 존재하는 것을 그 존재성에 근거하여 수렴한 결과 도달하는 최고의 존재자이다. 대일大一으로 표현했지만 결국은 일一이다. 이는 가장 상위의 존재자이며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 존재자이다. 그것은 가장 근원적 존재이기에 대일大一이라고 불렀다. 그냥 하나라고 한들 그 뜻은 달라지지 않지만 우주 만물의 가장 원초적, 근원적, 시원적 근거라는 뜻을 강조하여 ‘대大’일一이라고 한 것이다. 아마도 〈천부경〉으로 표현하면 ‘무시일無始一’이 될 것이다.<sup>18)</sup>

이 첫 문장에서 ‘기극其極’ 역시 ‘하나’ 혹은 ‘가장 근원적 존재’의 존재성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대大’와 같은 뜻이다. 가장 지극한 존재성, 하나 혹은 일자가 갖는 존재본성을 표현하여 ‘극極’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일기극大一其極’은 우주만물의 모든 보편성과 일반성, 그 근원성과 시원성을 거슬러 올라가서 만나게 되는 최고의 존재자를 설명하는 문장이다. 그 존재자는 바로 하나, 즉 일자一者이다.

그 유일자를 대일이라고 하였으나 그것이 너무나 크고 무한한 외연을 갖기에 이를 좀 더 개념화하여 표현한 것이 바로 ‘양기陽氣’이다. 이 때 ‘양’은 기氣를 묘사하는 것으로 우주만물의 존재근거로서의 기氣가 갖는 성격을 표현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大와 극極이 일자에 대한 근원적 묘사라면 ‘양陽’은 가장 근원적 존재성으로서의 기氣에 대한 본성적 묘사이다. 그러나 대大와 극極과 양陽은 모두 최초, 최고, 시원, 궁극인 일一과 그 일一의 존재본성인 기氣를 묘사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것이다. 파르메니데스의 ‘존재’, 아낙사고라스의 ‘누스’, 플라톤이 말한 ‘선의 이데아’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부

17) 안경전,〈앞의 책〉, p. 500.

18) 윤창열은 대일을 太一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중국 한자에서 大는 太로 종종 쓰이고 있다는 근거에서이다. 물론 이럴 경우에는 大가 단순히 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태일이라는 고유명사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윤창열, 「천부경의 태일사상」, 『세계환단학회지』 8-1호, 2021. p. 64~65.)



동의 원동자' 플로티누스가 말한 '일자'나 모두 존재론적 관점에서 가장 상위의 존재이며 궁극의 존재이고 시원적 존재라는 측면에서 <천부경>의 一이며, 발귀리가 말한 대일大一이며 양기陽氣이다. 표현은 달라도 그들이 우주만물의 '모든' 존재자들의 본성을 묻고 찾고 표현하려고 한 결과 도달하게 된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근거를 이름하여 부른 것이다.

신선 발귀리는 우주의 근원적 존재를 일一이며 기氣라고 하고, 이 존재자의 존재성을 '대大'와 '극極'과 '양陽'이라고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우주 만물을 있게 하는 그 존재자의 존재성을 모두 드러내지 못하여, 다시 이를 유有와 무無, 허虛와 조粗로 표현하고 있다.

無有而混하고 虛粗而妙라<sup>19)</sup>

발귀리가 一과 氣의 존재모습을 생각해보니 그것은 곧 '無와 有가 하나로 되어있으며, 텅빔과 꽉참이 묘하게 조화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귀리의 표현은 바로 <천부경>이 존재의 시작이 一이라고 하였으나 그 一으로써 이해되기 부족함, 즉 一의 형이상학적 근거요청을 다시 無로 설명한 것과 같다. 모든 존재의 존재근거로, 존재 바탕으로, 존재 목적으로 '일자一者'는 있는 것이지만, 그 있음을 규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모습도 가진 것이 없으므로 이는 또한 없는 것이다. 대大하고 극極하여 모든 것이 그 속에 꼭 찬 것으로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의 존재성을 오로지 일자로 수렴하고 있어 텅 비어 있는 듯하다. 모든 것을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궁극의 존재자로서 일자는 무無이지만 유有이며 유有이지만 텅 비어 있고 무無이지만 꽉차있는 그래서 유有라고 할 수도 무無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나 무無가 아니라고도 유有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며, 극極하고 대大하여 텅 비어 있는 듯하나, 그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어 꼭 찬 것이다. 그래서 <천부경>도 발귀리도 이를 이름하여 '일一'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일一에 대한 설명은 <삼일신고>에서 천천에 대한 설명과 매우 유사하다.<sup>20)</sup>

19) 안경전(앞의 책), p. 500.

20) <천부경>의 원리를 體로 삼고 <삼일신고>를 用으로 상호 부합하여 해제하고자 하는 노력은 일찍이 이용태에 의해 시도되었다는 지적이 있다.(이형래, 「천부경 연구사 소고」, 『선도문화』 제2집, 2007, p. 40 이하 참조)



단지 〈천부경〉은 함축적으로 정의한 반면 〈삼일신고〉는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이다.

너희 오가와 백성들아.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며, 저 아득하고 아득한 것도 하늘이 아니니라. 하늘은 형체와 바탕이 없고, 처음과 끝도 없으며 위아래와 동서남북도 없느니라. 또한 겉도 비고 속도 비어서 있지 않은 곳이 없고 감싸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sup>21)</sup>

〈삼일신고〉의 천천에 대한 설명에서 볼 때, 천은 〈천부경〉에서 말하듯 처음도 끝도 없으니 무시일無始이며, 속도 비고 겉도 비어서 있지 않은 곳이 없는 것으로 대일기극大一其極이며 유무이혼有無而混이다. 이러한 〈삼일신고〉의 내용은 “〈삼일신고〉의 다섯 가지 내용 또한 〈천부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삼일신고〉의 궁극적 정신 역시 〈천부경〉의 일의 이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sup>22)</sup>는 이맥의 설명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천부경〉 내에서 일一과 천천의 동연성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천부경〉 상경이 일一이 주제이면서 그 일一과 내연과 외포가 같은 천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도 무리하지 않다. 『소도경전본훈』의 다음 내용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우주의 일기에서 세 가지 신령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 일기는 지극한 존재로, 곧 무를 말한다. 무릇 하늘의 근원은 천지인 삼극을 꿰뚫어 허하면서 공하니 안과 밖을 아울러서 그러한 것이다. 천궁은 광명이 모이고 온갖 조화가 나오는 곳이다. 하늘에 계신 일신께서 능히 이러한 허를 몸으로 삼아 만유를 주재하신다. 따라서 이 우주의 일기一氣가 곧 하늘(天)이고 또한 우주 생명의 공이다.<sup>23)</sup>

여기서 ‘일기一氣는 지극한 존재로서 무無이다’라는 것은 〈천부경〉의 ‘일시무一始無’와 상통하며, 이 일기에서 세 가지 신령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천부경〉의 ‘석삼

21) 안경전(앞의 책), p. 512.

22) 안경전(앞의 책), p. 532.

23) 안경전(앞의 책), p. 522. “自一氣而析三氣即極也 極即無也 夫天之源乃貫三極 爲虛而空并内外而然也 天之宮即爲光明之會 萬化所出 天之一神能體其虛而乃其主宰也. 故曰一氣即天也 即空也 然自有中一之神而能爲三也.”

극析三極'과 같은 말이다.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일기는 곧 천(一氣即天也)'이라고 한 구절이다. 이렇게 볼 때 <천부경> 상경은 일一이 주제이지만, 그 一은 곧 天과 상통하여 이를 또한 천경으로 불러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 구절인 '석삼극무진본析三極無盡本'의 해석도 一과 천지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一은 모든 것의 근원이면서 모든 것의 원인이며, 모든 것을 통합하고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유무有無가 하나 된 궁극적 존재이자 보편적 존재이다. 그 일一의 근원성에서 천, 지, 인이라는 세 궁극적 존재가 생겨난다. 김석진은 “<천부경>은 一을 주체로 하고 또 삼三을 쓰임의 수數로 삼고 있다. 처음부터 삼극三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에서 三이 나오고 그것이 極이 된 것이다....원초적인 표현으로는 태초에 일, 이, 삼이 나와 그것이 極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석삼극析三極'이다.”라고 해석한다.<sup>24)</sup>

'석삼극析三極'은 '일석삼극一析三極'과 같은 말이다. 일이 셋의 궁극적 존재로 나뉜다. 셋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시원적 사유로서 일삼一三철학 혹은 삼일三一철학이 생겨나게 되었다. 「소도경전본훈」에서는 “이처럼 우주와 인간이 집일함삼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까닭은, 우주의 기는 하나로되 그 속에 깃든 우주의 삼신이 있기 때문이고, 회삼귀일 하는 까닭은 신이 셋으로 작용하지만 그 조화기운은 일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릇 만물의 생명이 되는 본체는 바로 이 우주에 충만한 일기이니 일기 속에는 삼신이 계신다. ..삼신은 우주의 일기에 쌓여 계신다”<sup>25)</sup>고 하여 우주의 근본 원리로서의 삼일철학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천부경>의 일삼철학은 <삼일신고>로 이어져 삼진귀일三眞歸一의 원리로 드러난다.

가장 궁극적 존재인 일이 셋으로 나누어져 생겨난 천지인(석삼극析三極)은 그래서 일一의 본질을 함유한 것으로 천일天一, 지일地一, 인일人一이다. 하늘은 일의 청조운동과 그 정신을, 땅은 일의 생성변화운동과 그 정신을, 사람은 일의 완성과 성숙의 운동과 그 정신을 나누어 받았다. 일에서 나온 셋이지만 그 각각의 위격은 서로 달라서 '천일일天一, 지일이地一二, 인일삼人一三'이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일一, 이二, 삼三은 천

24) 김석진, 같은 책, p. 35.

25) “所以執一含三者 乃一其氣而三其神也 所以會三歸一者 是亦神爲三而氣爲一也 夫爲生也者之體 是一氣也 一氣者內有三神也...三神者 外包一氣也.”(안경전, 『환단고기』, P.524~526.)

지인을 상징하는 메타포이다. 하늘이 첫째이고, 땅이 둘째이고, 사람이 셋째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하늘은 음양 통일의 원만유일의 존재이며, 땅은 음양이 분리된 방정한 존재이며, 사람은 이 원만유일의 특성과 음양 이분의 특성을 모두 가진 복합 존재로서 트리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sup>26)</sup>

김석진은 “『주역』에서 한 획을 그려 하늘이 되고, 또 한 획을 그려 땅이 되고, 또 한 획을 그려 사람이 되니 삼획일괘三劃一卦가 완성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천지인 삼이요, 삼재三才라 일컫는다.”<sup>27)</sup>고 하여 천지인天地人과 일이삼一二三의 상관성을 밝히고 있다.

‘일적십거무궤화삼一積十鉅無匱化三’은 ‘일자에서 만물이 생성되고 화현되어 우주 만물로 벌어지더라도 그 만변만화의 근본 바탕에는 3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일一과 십十과 삼三은 본체와 만물과 그 사이의 영구불변의 법칙에 대한 상징적 숫자이다. 이때 일一은 〈천부경〉의 주제로서 일자이며, 십十은 만물의 총체적 합, 만물이 완성된 경지, 우주전체를 말하며, 삼三은 일一에서 십十이 되는 과정에서 모든 생성 변화의 근본 원리를 의미하면서, 또 한편 천지의 바탕을 가지고 모든 조화변화의 주체이자 천지의 궁극 목적을 실현하는 인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sup>28)</sup>

이와 관련된 『환단고기』의 기록으로 위 논의에 좀 더 그 상세한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 「마한세가」에 기록하기를

일一이 쌓여서 음陰이 성립하고, 십十으로 커지니 양陽이 작용하고, 다함이 없으니 참 마음이 생겨난다.<sup>29)</sup>

고 하였다. 여기에 ‘일적一積(일이 쌓여서)’, ‘십거十鉅(십으로 커지니)’, ‘무궤無匱(다함이 없으니)’라는 개념이 나온다. 이를 풀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김석진은 ‘양수는

26) 『환단고기』 「소도경전본훈」에서는 “圓은 一이 되어 無極이고, 方은 二가 되어 反極이며 角은 三이 되어 太極”이라고 하여 天地人과 一二三을 서로 연계하여 기술하고 있다.

27) 김석진, 같은 책, p. 37.

28) ‘일적십거一積十鉅’란 그 하나가 천지인으로 나뉘고 또 다시 만물로 현현顯現하여 풍족하고 완전한 세상을 이룬다는 뜻으로 이해가능하다. 그 다음 ‘무궤화삼無匱化三’은 천지인이나 천지만물은 궁극적으로 人一三으로서 인간, 천지의 조화가 하나로 응축된 존재로서 인간으로 귀결된다.

29) “一積而陰立 십鉅而陽作 無匱而衷生”(안경전, 『환단고기』, p. 434.)

1에서 시작하여 9로 마치니 양陽은 10이 없고, 음수는 2에서 시작하여 10에서 마치니 음陰은 1이 없다...하나씩 쌓여 음陰이 되고 음陰이 커서 10수에 다 차니 다시 양陽이 일어나 음양이 서로 어긋남이 없이 밀고 당기며 중中을 낳는다<sup>30)</sup>라고 해석하였다. 논자는 이를 일—이 쌓여 10이 되고 10에서 다시 1이 작용하니 이렇게 끝없는 순환에서 참마음이 생겨난다고 이해하였다. 중요한 것은 무궤화삼無匱化三과 연계되는 무궤충생無匱衷生이라는 구절이다. ‘일적십거一積十鉅’란 그 하나가 천지인으로 나뉘고 또 다시 만물로 현현顯現하여 풍족하고 완전한 세상을 이룬다는 뜻으로 이해가능하다면, 그 다음 ‘무궤화삼無匱化三’은 천지인이나 천지만물은 궁극적으로 인일삼人一三으로서 인간, 천지의 조화가 하나로 응축된 존재로서 인간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무궤화삼無匱化三과 무궤충생無匱衷生이 서로 무관하지는 않다.

## 2. 중경과 지地(땅)

〈천부경〉의 중경은 “天二三地二三人二三大三合六生七八九運三四成環五七”이며 총 24자이다. 이 구절의 번역은 아래와 같다.

하늘도 음양운동 3수로 돌아가고, 땅도 음양운동 3수로 순환하고, 사람도 음양운동 3수로 살아가니 천지인 큰 3수 마주합해 6수되니 생장성 7,8,9 생합이네. 천지 만물 3과 4수 변화마디 운행하고, 5와 7수 변화원리 순환운동 이룸일세.<sup>31)</sup>

논자가 보기에 사실 이 중경에 대한 이해는 〈천부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하다. 이 중경의 앞 상경과 뒤 하경은 그 주제가 명확하고 문맥이 이어져 그나마 번역이 가능하지만 이 중경은 수數의 메타포가 다양하고 함축적이다. 일단 24자의 중경 전체에서 숫자가 15개이다. 뿐만 아니라 그 숫자들과 숫자들 사이의 글자 역시 숫자와의 의미 연관성을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 중경이 곧 지경地經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변화의 원리와 순환

30) 김석진, 같은 책, p.40~50.

31) 안경전(앞의 책), p. 507.

의 법칙을 가르침의 요체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체는 인간이 살아가는 땅으로 상징되는 우주와 지상의 천지만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경이 천지만물의 창조원리를 다루고 있다면, 중경은 그렇게 창조된 천지만물의 변화원리를 다루고 있다.<sup>32)</sup>

천일天一, 지일地一, 인일人一은 모두 일자가 드러난 것이기에, 일자의 본성을 함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모두 일一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상경의 1수가 본질적 존재론적 성격을 규정한다면, 중경의 첫 구절 천이삼天二三, 지이삼地二三, 인이삼人二三에서 2와 3수는 변화와 운동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상경은 일자와 천지인의 창조원리를, 중경은 그 천지인의 변화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경의 2는 음양의 상호작용을 의미하고, 3은 일자가 조화, 교화, 치화의 3가지 변화원리를 갖는다는 신교의 가르침을 담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sup>33)</sup>

‘대삼합육생칠팔구大三合六生七八九’는 일자가 천지만물의 가장 근원적 존재로서 천지인으로 현현하여 그 합이 6이 되니, 이로써 7, 8, 9 만물이 따라서 생겨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 구절에서도 보듯이 중경은 2와 3의 근원적 생성운동에서 6, 7, 8, 9의 생성변화운동으로 나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일자 --> 삼극 --> 만물로 나아가는 변화작용의 본질을 선언하고 있다.

‘운삼사성환오칠運三四成環五七’ 구절은 간단히 ‘3, 4로 운동하고, 5, 7로 순환한다.’로 번역된다. 물론 3과 4로 운행한다, 혹은 운동한다는 뜻과 5와 7로 순환한다는 뜻을 정확히 원래의 뜻에 맞게 번역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를 “천지인 셋이 네 단계를 운행하면서, 오행이 생성되고 음양오행이 만물을 낳는 과정이 끝없이 순환반복되는 원귀를 이루는 것”<sup>34)</sup>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논자가 전체 맥락에 따라 해명하면, 생장

32) 최민자는 “〈천부경〉은 우주 만물의 창조와 생성, 변화, 발전, 완성의 원리를 밝힌 총 81자로 이루어진”(최민자, 천부경, 모시는 사람들, 2008, p. 31.)경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은 논자의 논점과도 일치한다.

33) 『환단고기』 「삼신오제본기」에 “稽夫三神 曰天一地一太一 天一主造化 地一主教化 太一主治化(삼신은 천일과 지일과 태일이시다. 천일은 조화를 주관하시고, 지일은 교화를 주관하시고 태일은 치화를 주관하신다.)”(안경전, 『환단고기』, p. 302.) 삼신은 곧 일신이 드러난 세 가지 작용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결국 一과 三의 관계를 말한다.

34) 최민자, 같은 책, p. 91. 물론 논자는 여기서 천지인 삼재가 네 단계의 운동을 한다고 하는 해석은 동의하기 어렵다.

성 삼단계의 원리와 생장염장 사단계의 원리로 운동한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으며(運三四), 오행의 원리와 음양오행의 7수로 순환한다(成環五七)고 해도 무방하다.<sup>35)</sup>

〈천부경〉의 논리적 구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상경의 마지막 구절인 ‘일적시버一積十鉅 무궤화삼無匱化三’이 상경에서는 결론적 문구로 그 역할을 하지만, 중경에 포함 되어 중경 전체를 이끄는 전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궤화삼無匱化三’에서 三은 그 뒤에 나오는 ‘천이삼天二三 지이삼地二三 인이삼人二三’의 삼三과 서로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일적십거一積十鉅 무궤화삼無匱化三’이 ‘1이 만물로 벌어져 변화하는데 그 중심 원리는 바로 3수의 조화’라는 뜻이라면, 중경의 첫 구절인 ‘천이삼天二三 지이삼地二三 인이삼人二三’에서 천지인이 음양운동으로 변화하는 원리 또한 3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경의 마지막 구절이 ‘천지인이 일一에서 비롯하고 그 일一이 천지인과 함께 우주만물로 변화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3수의 조화가 작용’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면, 중경은 이 상경의 결론을 전제로 삼아 그 첫 구절이 담고 있는 3수의 조화원리로 해석가능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경의 첫 구절인 ‘일묘연만왕만래용변부동본一妙衍萬往萬來用變不動本’은 중경의 마지막 구절로 옮겨서 중경 전체의 결론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묘연만왕만래용변부동본一妙衍萬往萬來用變不動本”은 일반적으로 하경에 포함되지만, 이러한 형식적 구분을 떠나서 이 구문을 중경에 놓고 해석하면 중경 전체를 좀 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 구절은 하경에서 앞뒤 문맥을 연결하는 고리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논자의 관점에서는 상경이 천일일天一一로서 하늘의 창조섭리에 대해, 중경이 지이삼地二三으로 일자에서 비롯된 만물의 생성변화에 대해, 하경이 그 천지 사이의 인간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일묘연만왕만래용변부동본一妙衍萬往萬來用變不動本’ 구절은 천지만물의 생성변화와 그 변화의 특징에 대해 말하는 것이므로 중경의 결론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알다시피 그 뜻은 ‘일자가 오묘하게 움직여(妙衍) 무한한 변화를 만들어내지만(萬往萬來) 그 변화작용은 본체의 양태로써

35) 최민자는 〈천부경〉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천부경〉은 ...우주의 순환, 천체의 순환, 생명체의 순환, 그리고 의식계의 순환과 더불어 일체 생명의 비밀을...81자로 열어 보이는... 경전 중의 경전이라 할 것이다.”(최민자, 『천부경』,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08. p. 8.)고 한다. 이러한 최민자의 생각은 바로 ‘운삼사성환오칠運三四成環五七’을 풀어 설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용이지만 그 근본은 결국 같은 것이다(用變不動本)’가 된다.<sup>36)</sup>

만일 이 구절을 중경의 문맥에 이어서 해석할 경우, 중경 전체를 천지인 창조되어 음양(2)과 3수로 변화하여 천지만물로 벌어져(生七八九) 크게 순환운동(成環五七)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내용의 결론으로 매우 적절하다. 즉 중경을 달리 지경地經이라고 하고 그 주제를 ‘땅’이라고 한다면, 하늘과 땅의 조화로 생겨난 천지만물이 이 땅 위에서 성장한다고 할 때, 그 모든 변화의 근본 바탕은 물론 궁극적 존재로서의 一이다. 그리고 천지의 생성과 변화 모두 일一의 현현顯現이라고 할 때,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궁극자인 일一이 천변만화하여 그 현상은 변화하지만 그 궁극적 본성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일묘연만왕만래용변부동본一妙衍萬往萬來用變不動本’은 중경의 결론으로 이해할 만하다.<sup>37)</sup>

물론 이러한 논자의 해석은 천부경이 원래 상중하 구분 없이 연속된 81자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하지만 천지인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천부경을 좀 더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에서 충분히 설명가능한 논술이다. 논자가 보기에 천부경을 상중하 구분 없이 통으로 해석할 때 그 전체의 가르침이 물흐르듯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며, 그 전체가 천지인에 대한 매우 정합적 논리를 갖는 완벽한 경전임이 드러날 수 있다.

### 3. 하경과 人(사람)

하경은 일반적으로 ‘일묘연만왕만래용변부동본一妙衍萬往萬來用變不動本 본심본 태양양명本心本太陽昂明 인증천지일人中天地一 일종무종일一終無終一’이며, 총 29자이다. 그 번역은 아래와 같다.

일자는 오묘하게 뻗어나가 그 변화가 무궁무진하여 현상은 달라 보이지만, 그 근본

36) 상경에서 말하듯 석삼극하여도 일자는 변함이 없듯이, 중경의 마지막 구절도 일묘연하여도 그 일자의 본체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37) 뒤에서 이 구절이 인경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논자는 이 구절은 중경과 하경에 걸쳐있어서 그 양자와 관련되어 있는 구절로 해석하는 것이 〈천부경〉 해석에 좀 더 효과적 접근이 아닌가 생각된다.



은 변함없네. 근본 마음은 태양을 본받아 한없이 밝고 밝으니 사람은 천지중심 존귀한 태일이니라. 일은 모든 변화의 마침이지만 그 끝은 곧 무로 돌아가 마무리된 일이라네.<sup>38)</sup>

이 하경의 논리적 구조나 내용의 측면은 앞에서 중경을 다루면서 언급한바 있다. 즉 하경의 첫 문장 ‘일묘연만왕만래용변부동본—妙衍萬往萬來用變不動本’에 대해 앞에서 중경에 들어가는 것이 논리적 정합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경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장의 논리적 용도 또한 분명한데, ‘부동본不動本’의 본本이 그 바로 뒷 문장의 ‘근본 마음(本心)’의 본本과 연계되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장은 구조적으로 중경의 결론이면서 하경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삼일신고〉에서 5장 인물장의 내용이 가장 긴 것처럼, 〈천부경〉에서 하경下經, 혹은 인경人經의 분량이 가장 많다. 이로써 〈천부경〉에서 인간의 문제가 매우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추론할 수도 있다. 물론 〈천부경〉이 오직 인간의 본질이나 역할을 위한 경전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논자가 보기에 〈천부경〉은 존재론적으로 ‘일—’에 대한 경전이다. 그러나 논리적 전개나 가치의 측면에서 〈천부경〉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천부경〉은 한민족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불선의 뿌리 경전이었고 〈천부경〉의 중심 사상은 태일太一인간이 되는 것이었다.”<sup>39)</sup>고 강조하기도 한다.

하경이 인경인 이유는 그 내용상 마음과 밝음, 사람 등의 단어가 들어있어 그 주제가 ‘인—’이라는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하경의 핵심 주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천부경〉 전체의 가장 근본 주제인 일—(하나)과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 하경은 일—에서 시작해서 일—로 끝나는데, 이는 〈천부경〉 전체가 일—에서 시작해서 일—로 끝나는 것과 같다. 일시무시일—始無始—의 일—, 인중천지일人中天地—에서의 일—, 그리고 일종무종일—終無終—에서의 일—에 대한 관계적 이해는 ‘본심’과 ‘사람’과 다시 ‘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천부경〉의 핵심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sup>40)</sup>

38) 안경전(앞의 책), p. 507.

39) 윤창열, 「천부경의 태일사상」, p. 71.

〈천부경〉은 이 하경에서 일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가?

먼저 ‘일묘연—妙衍 만왕만래萬往萬來 용변부동본用變不動本’의 문구에서 일—은 〈천부경〉의 첫 글자인 ‘일시무시일—始無始—’의 일—과 같은 대상을 지칭한다. 〈천부경〉 첫 글자 1이 가장 근원적 존재자로서 무한자이며 만물의 시원으로서 궁극자이고, 그 1이 삼극三極으로 나누어진 후, 위 문장에서 ‘묘연만왕만래妙衍萬往萬來’하여 천변만화 하면서 우주만물로 화현化現하게 된다. 이 문구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그 자체는 변화하거나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일은 원래 ‘부동본不動本’의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그 본은 우주 만물의 궁극자인 ‘일—’이면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내용, 즉 ‘본심본태양本心本太陽’을 규정하는 용어이다.

‘본심본태양앙명本心本太陽昂明’은 다양하게 번역 가능하지만 ‘근본 마음은 태양을 본받아 한없이 밝고 밝으니’라는 번역이 논자가 보기에는 합당하다. 여기서 근본 마음(혹은 본마음, 本心)에서 본本은, 일—이 만물로 현현해도 그 근본은 변함이 없으며(不動本)의 본本과 같은 영역이다. 따라서 그 일—의 근본이 인간 마음에 들어와 인간의 본래 마음은 곧 일—의 본성을 함께하는 것이다. 일—의 근본을 받은 마음은 태양에 근본을 두고 있어 오직 광명 그자체이다.

‘인중천지일人中天地—’에서의 인人(인간의 본래 마음)은 앞에서 일—의 본성을 나누어 받아 태양과 같은 광명으로 존재하는 인간(본심본태양앙명本心本太陽昂明)이므로, 그래서 천지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일자와 같다. 인간은 곧 천일과 지일과 같은 위격으로서 ‘태일’(인중천지일)이다. 그래서 하경은 인간을 천지를 꿰뚫는 인간, 천지에서 가장 소중한 인간, 천지를 품은 인간의 뜻으로 ‘인중천지人中天地’라고 한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구절 ‘일종무종일—終無終—’은 첫 구절인 ‘일시무시일’과 완벽히 맺구가 되는 구절로서 우주의 시작이 일—이라면, 그 마지막 역시 일—임을 함의含意한다. 일—은 무無로 되돌아가서 끝나지만 천지만물의 궁극적 끝은 곧 일—(일종무종일)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하경의 주제가 인간임을 상기한다면 이 하경에 속하는 ‘일종무종일’은 태일 인간과 연관되어서 번역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40) 이렇게 본다면 〈천부경〉은 —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 의미를 분석해보면 〈천부경〉은 천지인에 대한 가르침, 그 중에서도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 핵심이라고 본다. 이는 〈삼일신고〉가 三—神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그 삼일신을 통해 천지인의 존재성을 다루고, 또 그 핵심은 인간에 있는 것과 같다.

‘태일 인간은 우주의 궁극 목적이나 끝남이 없는 가장 위대한 존재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천부경>은 우주의 가장 궁극적 존재자로서 一에서부터 우주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인간(太一)을 아우르고 있어 그 논리적 전개상 매우 정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다.

#### IV. <천부경>의 인간관

<천부경>은 81자의 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32자가 숫자이다. 사실 이렇게 함축적인 <천부경>에 대해 일관된 하나의 해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중간 중간에 자리한 암호 같은 숫자를 포함하고 있어 일치된 논리적인 문장으로 풀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연구자들은 각자 자신만의 논리와 자구 해석으로 각자의 <천부경> 번역, 혹은 풀이를 하고 있다. 그 논리에는 수리철학과 역철학, 우주생성론과 우주변화론, 동양의학, 음양론과 기철학 등 가능한 기존 학설이 동원된다. 그러나 하늘이 내린 최초의 경전이 담은 메타포를 역철학 하나로, 기철학만으로 풀이하여 그 뜻을 규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첫 구절인 “일시무시일석삼극무진본一始無始一析三極無盡本”만해도 그 끊어 읽는 지점도 다양하고, 그렇게 끊어진 단락에 대한 해석도 각양각색이다. ‘일/시무/시일/석삼극/무진본’<sup>41)</sup>으로도 분절되고, 또 ‘일시/무시일/석삼극/무진본’<sup>42)</sup>, ‘일시무시/일석삼극/무진/본’<sup>43)</sup>라고 분절되기도 한다. 이 첫 구절에 대한 해석은 <천부경> 전체를 이해하는 초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분절하고 이해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연구자들은 전체 맥락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분절을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논리적 분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천부경>이 천지인에 대한 우주론적, 철학적 가르침이라는 관점에는 대부분 동의한다는 점이다.<sup>44)</sup> 논자는 이번 단락에서

41) “一은 無始나 始는 一이니 析三極하야도 無盡本이니라.”(一은 無에서 시작하나 始는 一이니 三極으로 나누어지더라도 그 근본은 다함이 없다.)이유립 편, *커발한 제1호*, 대전: 우문당출판사, 1960. p. 8.

42) “一은 始이나 無始一이요 析三極하야도 無盡本이니라(일은 시작이나 무에서 시작된 일이니라)”(안경전, 『환단고기』, p. 506)

43) 김형탁, 『단군철학석의』

44) 예를 들어 김석진은 “<천부경>은 81자라는 매우 짧은 문장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에서 시작하여 하나로 돌아

이 중 인간에 대한 〈천부경〉의 가르침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일명 ‘〈천부경〉의 인간관’이다.

〈천부경〉에서 사람(人)이 나오는 구절은 상경의 ‘인일삼人一三’, 중경의 ‘인이삼人二三’, 하경의 ‘인중천지일人中天地一’ 세 부분이다. 그 외 하경에 나오는 ‘본심本心’은 그 마음의 주인을 사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간관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 1. 인일삼人一三

인일삼은 상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상경의 중심 주제는 ‘일一’이다. 〈천부경〉에서 一은 우주만물의 존재근거로서 시원의 궁극자이다. 그래서 ‘일시一始’라고 하였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도道에서 1이 나오고, 1에서 2가 나오며, 2에서 3이 나오고, 3에서 만물이 나온다.”<sup>45)</sup>고 하였다. 일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의 근거이며 모든 존재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래서 ‘유무이혼有無而混’이라고 표현가능하다. 이 일一이 현상세계에 세 개의 가장 큰 범주로 드러나는데 바로 천. 지. 인이다. 〈천부경〉은 그 천지인天地人이 일一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일一의 본성을 분유分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천일天一, 지일地一, 인일人一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환단고기』 「삼신오제본기」에서 엿볼 수 있다.

삼신은 천일, 지일, 태일이시니 천일은 조화를 주관하시고, 지일은 교화를 주관하시고, 태일은 치화를 주관하신다.<sup>46)</sup>

「삼신오제본기」의 이 구절은 〈천부경〉의 ‘천일일지일이인일삼天一地二人一三’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만하다. 삼신은 곧 일신一神이며,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일一 혹

가되 그 하나는 시작도 끝도 없는 ‘한(一) 사상’, 하나의 원리가 원방각과 하늘땅사람의 셋이 조화를 이루며 우주 만물을 생성·변화시킨다는 ‘천지인 합일사상’ 그리고 이러한 원리에서 나오는 실천적 지침으로 널리 모든 인간과 만물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사상’이 두루 담겨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김석진, 『하늘 땅 사람 이야기 대산의 천부경』, 동방의 빛, 2010, p. 243)라고 말한다.

45)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노자, 도덕경, 42장)

46) “夫三神曰天一曰地一曰太一 天一主造化 地一主教化 太一主治化”(안경전, 『환단고기』, p. 302.)

은 일자一者이다. 그 일신이자 삼신이 천지인으로 현현하니 곧 천일, 지일, 태일이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태일太一은 <천부경>의 천지인에 대한 규정과 비교해 볼 때 인일人一과 대칭한다. 결국 인일은 일(일신)이 인간으로 현현한 것으로, 일의 본성을 내려 받은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징을 표현한 말이다. 즉 인일은 ‘삼신즉일신三神卽一神’<sup>47)</sup>의 가르침으로, 삼신일체가 되어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치화治化)로서 인간을 표현하는 말이다.<sup>48)</sup>

‘인일삼人一三’에 대해 일(일신)의 본성이 인간에 깃들여 인일人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음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신께서 참마음을 내려주시니 사람의 본성은 본래 신의 광명에 통해 있으며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려 깨우쳐 천지광명의 뜻과 대이상을 성취하는 홍익인간의 길을 갈지어다.<sup>49)</sup>

일신강충一神降衷에서 一은 곧 <천부경>의 첫 글자 一이며, 그 일一이 인간의 참마음, 곧 일一의 본성을 내려주니 그 마음을 가진 인간은 인일人一로 규정 될 수밖에 없다. 그 인일의 본성은 신神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밝디 밝은 신神의 광명에 통하여 있다(性通光明)는 것이다. 이처럼 밝은 인간의 사명은 제세이화하고 홍익인간하는 것이니, 그 인간의 존귀함을 일러 태일太一이라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왜 일一에서 나온 천지인을 구분하여 다시 하늘은 일一이고 땅은 이二며 사람은 삼三이라고(天一一 地一二 人一三)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천일일天一一은 ‘하늘은 양의 지극한 경계에 있기에 양수 1’이 되고, 지일이地一二는 ‘땅은 음의 지극한 경계에 있기에 음수 2’가 되고, 인일삼人一三은 ‘천지의 조화기운으로 인간이 생겨났기 때문에 인간을 천지의 수를 합한 3’이라고 해석한다. 동양사상적 측면에서

47) “三神一體之爲庶物原理”(『환단고기』 「삼신오제본기」), “三神一體之原道”(『환단고기』 「삼한관경본기」). 『단군세기』에서 이암은 一三의 원리를 “執一含三 會三歸一”(안경전 『환단고기』, p. 88.)로 설명하고 있다.

48) 태일은 『초사楚辭』 「가九歌」 <동황태일東皇太一>에 나오는 말이다. 동쪽을 관장하는 최고의 신을 태일이라고 한 것이다.

49) “故로 일신강충一神降衷하사 성통광명性通光明하니 제세이화在世理化하야 홍익인간弘益人間하라”(안경전, 『환단고기』, p. 126, p.436)

타당한 분석이다.

또한 발귀리 송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천지인天地人과 그 각각에 일, 이, 삼을 배정한 이유를 알 수 있다.<sup>50)</sup>

원圓은 일一이니 하늘의 무극 정신을 뜻하고, 방方은 이二이니 하늘과 대비되는 땅의 정신을 말하고, 각角은 삼三이니 천지의 주인인 인간의 태극정신이다.<sup>51)</sup>

발귀리는 천지인의 특성을 원방각의 형상으로 표현하면서 인간에 대해서는 천지인이 하나가 된 모습인 삼각형으로 형상화하여 그 수적 이미지를 삼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황제내경』에서는 “일一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하늘은 양陽에 속하는데 오장五臟 중에서 하늘과 상응하는 것은 폐肺이다. 이는 오장육부의 덮개와 같다. 이二는 땅을 본뜬 것이다. 땅은 토土에 속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것은 기육肌肉이다. 삼三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혈액의 영향 때문이다.”<sup>52)</sup>고 하여 천지인天地人을 일이삼一二三에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삼한관경본기」에는 유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일신이 내려주신 바가 만물의 이치이니 바로 천일天一이 물을 생생하는 도道입니다. 인간의 본래 성품이 광명에 통해 있는 것이 생명의 이치이니 바로 지이地二가 불을 생하는 도입니다. 세상을 삼신의 가르침으로 다스려 깨우치는 것이 마음의 이치이니 바로 인삼人三이 나무를 생하는 도입니다.”<sup>53)</sup>라고 하면서 ‘천일생수天一生水, 지이생화地二生火, 인삼생목人三生木’이란 표현으로 천일天一, 지이地二, 인삼人三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천일天一, 지이地二, 인삼人三(즉 天地人과 一二三의 대비)은 동양우주관 내지 고대 한국인의 우주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

50) 발귀리는 신시시대의 선인으로 태호 복희와 동문수학하였으며, 도를 얻은 후에 천하를 유람하며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 발귀리 송가는 아사달에 와서 제천행사를 보고 지은 찬송하는 글이다.(안경전, 『환단고기』, p. 500. 참조)

51) “故圓者一也無極 方者二也反極 角者三也 太極”(안경전, 『환단고기』, p. 500.)

52) 김석진, 같은 책, p. 44. 재인용.

53) “一神所降者 是物理也 乃天一生水之道也 性通光明者 是生理也 乃地二生火之道也 在世理化者 是心理也 乃人三生木之道也” 안경전, 『환단고기』, p. 440.



은 천지인이 생성되어가는 차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천지인이 하나로 합일되어 가는 신묘한 이치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 2. 인이삼人二三

중경에서 인간에 대한 규정은 ‘천이삼지이삼인이삼天二三地二三人二三’이라는 구절에서 ‘인이삼人二三’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천지인 모두 공통적으로 숫자 2와 3으로 규정되고 있다. 하늘도 2이면서 3이고, 땅도 2이면서 3이고, 인간도 2이면서 3이라는 것이다.

다시 노자 『도덕경』을 보면 ‘일생이一生二, 이생삼二生三, 삼생만물三生萬物’이라고 할 때, 여기서의 일一, 이二, 삼三 역시 이름하기 어려운 것의 수적인 추상이다. 그 추상을 <천부경>과 대비하면 일一은 곧 <천부경>의 일자와 대비되고, 이二는 음양으로, 그리고 삼三은 천지인으로, 그 삼三에서 ‘생칠팔구生七八九(만물)’한다고 볼 수 있다. 노자는 또한 “만물은 음을 엮고 양은 안으며 기가 서로 합하여 조화를 이룬다”<sup>54)</sup>고 하였다. 여기서 이 문구를 만물은 음양 양자의 기운으로 생겨나고, 다시 조화의 기운으로 변화한다는 뜻으로 본다면, <천부경>의 이二와 삼三의 뜻도 유추가능하다.

일단 여기서 3은 앞 상경의 마지막 구절인 ‘일적십거무궤화삼一積十鉅無匱化三’의 삼三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의 궁극자인 하나가 발현되어 천지만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모두는 三의 조화 법도에 따라 무한이 변화한다’는 뜻이다. 즉 一이 현현顯現하여 드러난 만물의 변화원리는 三이며, 그 三의 원리는 중경에 와서 다시 천지인의 변화를 규정하는 원리로 해석가능하다. 그리고 二는 『도덕경』의 二에 대한 해석과 마찬가지로 음양의 원리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중경에서 하늘과 땅과 마찬가지로(天二三地二三) 인간에 대한 규정 역시 인이삼人二三이다. 상경의 내용과 대비하면, 상경에서는 천지인이 천일, 지일, 인일로 천지인이 모두 일一의 본성을 내려 받은 것으로 동일한 뿌리에 근거하고 있어 본질상 동일하다고 본다면, 중경에서 천지인이 모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천

54) “萬物負陰而抱陽 沖氣而爲化”(노자 『도덕경』 42장) 논자는 오감남의 해석 참조.



지인을 규정하는 숫자로 동일하게 2와 3을 거론하고 있어 천지인의 변화 원리가 모두 동일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은 아래와 같다.

하늘도 음양운동 3수의 조화로 돌아가고, 땅도 음양운동 3수의 조화로 변화하며,  
사람도 음양운동 3수의 조화로 살아간다.<sup>55)</sup>

이는 위에서 인용한 『도덕경』의 내용과 상통한다. 중경에서 천지인 모두 이二와 삼三  
으로 같은 원리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천지인 셋을 묶어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맞고,  
그 결과 인간을 규정하는 인이삼人二三의 의미도 드러날 것이다. 안경전 역주본 『환단  
고기』에서는 이를 ‘사람도 음양운동 3수의 조화로 살아간다.’라고 번역하였다. 즉 인간  
은 음양의 상호운동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의 원리는 곧 삼수의 조화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삼三수의 조화는 단지 삶의 기계적 운행법도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  
히려 천이삼지이삼인이삼天二三地二三人二三에서 천지인 모두에 해당하는 삼三은 특  
별한 해석이 가능하다.

‘삼수의 조화’는 좀 더 나아가서 삼신의 조화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천부경〉  
에서는 삼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상경에서 ‘무궤화삼無匱化三’의 삼三, 그  
리고 중경의 ‘천이삼지이삼인이삼天二三地二三人二三’에서의 삼三, ‘대삼합육’에서의  
삼三, 그리고 ‘운삼사運三四’에서 또 삼三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상경과  
중경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는 삼三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삼三은 앞에서 3수의 조화,  
3수의 도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동양 고대 사상에서 삼신일체상제三神一體上帝, 삼신  
즉일신三神即一神 등에서처럼 일一과 삼三은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인이삼人二三에  
서 인간의 본질을 곧 ‘삼신의 조화로 살아가는 존재’로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본다면 ‘천이삼지이삼인이삼天二三地二三人二三’이므로 하늘과 땅의 변화섭리  
또한 삼신의 조화로 이해가능하다.

55) 안경전(앞의 책), p. 507 참조.

### 3. 본심본태양앙명本心本太陽昂明

이 구절의 인간학적 의미는 ‘본심本心’에 있다. 본심은 그 자체로 보면 근본 마음, 본래 마음이라는 뜻이다. 안경전 역주본 『환단고기』에서는 ‘근본은 마음이니 태양에 근본 두어 마음의 대광명은 한없이 밝고 밝아’라고 번역하였다. 본심을 ‘근본은 마음’으로, 본태양은 ‘태양에 근본 두어’라고 하여 본을 모두 명사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할 경우 일단 ‘근본은 마음’이라고 할 때, 그 근본이 무엇의 근본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그 바로 뒤의 ‘인증천지일人中天地一’을 염두에 둔다면 여기서 근본은 ‘인간의 근본’이 될 것이다. 즉 ‘본심’은 ‘인간의 근본은 마음’이라고 풀이된다.<sup>56)</sup>

한편 그 본심本心の 본本을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 ‘용변부동본用變不動本’과 연계해 본다면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심을 ‘본래 마음’, ‘근본 마음’으로 풀이하고, 그 마음의 본성을, ‘일묘연만왕만래 용변부동본一妙衍萬往萬來用變不動本’의 본에 근거를 두어 ‘일자의 본성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인간의 본래 마음은 우주의 궁극자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일(일신)에 바탕을 두는 마음이라고 풀이하는 것이다.<sup>57)</sup> 이는 「다물홍방가」의 다음 구절에서 확인가능하다.

사람은 천지의 중심으로 가장 위대한 존재로 태일이 되니, 그 마음은 몸과 함께 온 우주의 근본일세. 사람이 태일됨에 그 차고 빚은 같은 경계니 우주의 근본이라. 그러므로 신과 만물 둘이 아니네.<sup>58)</sup>

여기서 핵심은 인간의 마음은 ‘온 우주의 근본’이라는 구절이다. 따라서 ‘본심’은 ‘인간의 근본 마음’이라고 해석가능하다고 해도, 그 근본이 바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온 우주, 즉 일(일신)이다. 왜냐하면 온 우주는 곧 일一의 현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

56) 본심과 본태양의 본은 부사나 동사로도 번역된다. 즉 本心은 ‘본래 마음’, ‘원래 마음’으로, 本太陽은 ‘태양을 본받아’로도 이해된다. 명사로 하든, 부사나 동사로 하던 전체 맥락에 큰 차이는 없다.

57) 최민자는 “우주만물의 개체성은 유일신이 다양한 모습으로 현현한 것이다...우주의 실체는 의식이므로 하나는 곧 순수의식이요 하나인 마음이다.”(최민자, 같은 책, p. 63.)라고 하였는데, 이는 논자가 주장한 일자의 ‘부동본’과 인간의 ‘본심’의 관계를 동일한 시각에서 설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58) “人中天地爲一兮 心與身即本 爲一故其虛其粗是同即本 故惟神惟物不二”(안경전, 『환단고기』, p. 629)

면 본심本心은 본래마음, 근본마음으로 그 본래 혹은 근본의 주체는 一이다. 이럴 경우에 그 다음 구절과 자연스럽게 연계가능하다. 즉 인간의 봄심이 우주의 궁극자인 일신, 일자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러한 인간은 바로 천지의 중심으로서의 인간(人中天地一)이 되는 것이다.

또 한편 본심의 근원은 배달시대에서 전해오는 「염표문」에서 “일신께서 참마음을 내려주셔서 사람의 본성은 본래 신의 광명에 통해 있으니”<sup>59)</sup>라고 하여 마음의 근본은 바로 일(일신)에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천부경〉의 본심本心에서 본本의 의미는 염표문의 일신강충一神降衷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 다음 구절 ‘본태양앙명本太陽昴明’에서의 본本은 ‘태양에 근본하여’라고 번역하였다. 사실 이 구절은 〈천부경〉의 인간관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태양에 근본 하여’는 ‘태양에 근본두어’, 혹은 ‘태양을 본받아’ 등으로 바꾸어 표현해도 무방하다. 인간의 마음은 태양에 근본을 두어 그 본성이 ‘밝음’ 자체라는 말이다. 앞에서 인용한 「염표문」에 비춰보면 일신께서 참마음을 내려주신 인간의 ‘본심本心’ 혹은 ‘본성本性’은 본래 ‘광명에 통해 있으니(성통광명性通光明)’이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 〈천부경〉의 ‘본태양앙명’과 「염표문」의 ‘성통광명’은 동일하게 인간의 본성이 곧 광명임을 말하고 있으며, 그 광명은 일(일신)에 근거한 인간의 마음을 상징한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태양처럼 밝고 밝은 본성을 갖는다 것, 인간은 광명존재라는 것이 〈천부경〉이 말하는 인간의 특징이다. 이러한 광명의 존재로서 인간의 위격은 그 다음 구절 ‘인중천지일人中天地一’에 잘 나타나 있다.

#### 4. 인중천지일人中天地一

『환단고기』에서 이 구절은 ‘사람은 천지중심 존귀한 태일이니’라고 번역되었다. 간략히 줄이면 ‘인간은 천지의 중심으로 태일이다.’가 된다. ‘인중천지일人中天地’는 ‘사람 속에 천지가 담겨 있으니’로도 번역가능하다. 두 번역의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어느 번역이든 ‘인중천지일人中天地一’은 앞 구절 ‘본심본태양앙명’과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

59) “一神降衷 性通光明 在世理化 弘益人間”(안경전, 『환단고기』, p. 436.)

있다. 인간이 태양을 본받아, 태양과 같은 광명존재라면, 그러한 인간의 위격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인증천지일’이다. 이 구문에 대한 해석은 앞에서 인용한 <다물홍방가>에 기댈 수 있다.

사람은 천지의 중심으로 가장 위대한 존재로서 태일이 되니, 그 마음은 몸과 함께 온 우주의 근본일세. 사람이 태일됨에 그 차고 빔은 같은 경계니 우주의 근본이라. 그러므로 신과 만물 둘이 아니네.<sup>60)</sup>

이 인용문을 근거로 ‘인증천지일人中天地一’을 번역한다면 ‘사람은 천지중심으로 가장 위대한 존재이니 사람이 곧 태일太一이다’가 된다. 이는 일一(일자一者)의 변하지 않는 ‘부동본不動本’의 본本을 ‘본심本心’으로 가진 인간은, 그러므로 일一과 같은 존재이다. 즉 ‘인증천지일’에서 보듯이 인간은 ‘일一’과 같은 존재이며, 이는 다른 말로 천일, 지일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서 ‘인일人一’, 즉 태일太一의 존재라는 것이다. 여기서 태일은 천지 가운데 인간이 가장 위대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증천지일人中天地一은 ‘사람 속에 천지가 있으니 인간은 천지보다 큰 존재로서 태일이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자의 본성을 나누어 가진 인간이기에 그 인간 속에 천지가 들어있고, 그 천지를 안고 있는 인간의 위격은 곧 ‘태일’이라는 뜻이다.

그럼 태일이란 어떤 존재가치를 말하는 것인가? <천부경>에서 천지인에 대해 규정하기를 천일, 지일, 인일이라고 했다. 모두 일一에서 나온 근원적 존재라는 뜻이다. 그 중 인일人一을 인간의 존귀함에 맞춰 태일太一이라고 한다.

일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능히 삼신이 될 수 있으니, 삼신은 곧 천일신, 지일신, 태일신이다.<sup>61)</sup>

<천부경>에서는 이에 대해 말하길 ‘일이 삼극으로 나누어져 천지인이 되는데 그것은

60) “人中天地爲一兮 心與身卽本爲一 故其虛其粗是同卽本 故惟神惟物不二”(안경전, 『환단고기』, p. 620)

61) “然自有中一之神而能爲三也 三神乃天一地一太一之神也”(안경전, 『환단고기』, 「소도경전본훈」, p. 522)

곧 천일, 지일, 인일이다.(一析三極無盡本天一一地一二人一三)’라고 하였다. ‘일(신)은 곧 삼신인데 그 이름은 천일, 지일, 태일’이라는 위 인용문과 대비하면 결국 〈천부경〉의 인일은 태일과 같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환단고기』 「삼신오제본기」에서는 “삼신은 천일, 지일, 태일이시다 천일은 조화를 주관하시고, 지일은 교화를 주관하시고, 태일은 치화를 주관하신다.”<sup>62)</sup>고 하였다. 여기서도 인일人一은 곧 태일太一임을 알 수 있다.

일신은 곧 삼신이라고 하고, 그 삼신은 친지인 삼재에 대응하여 천일, 지일, 인일 혹은 태일이라고 하므로, 인일 혹은 태일은 곧 인간과 대응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경전은 『환단고기』에서 아래와 같이 주석하고 있다.

태일太一은 천지와 하나된 인간의 위격을 말한다. 인간은 천지의 궁극적인 목표와 이상을 실현하는 천지의 주체이기 때문에 천지의 정신(天一, 地一)보다 더 크고 존엄하여 인일人一이라 하지 않고 태일太一이라 한다.<sup>63)</sup>

이러한 내용은 〈천부경〉 ‘인증천지일人中天地一’에서 일一에 대한 인간학적 규정을 선언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여기서부터 〈천부경〉의 일一에 대한 인간학적 규정으로서의 태일이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태일을 ‘시작하는 태일太一’과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태일太一’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기도 하여 그 중 인간학적 의미로서 태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규정한다. 여기서 시작하는 태일과 완성하는 태일이라고 구분할 때 전자는 인증천지일人中天地一의 태일太一이고 후자는 일종무종일一終無終一의 태일太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단고기』의 태일太一은 완성된 인간을 상징하고, 미래적인 인간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천지와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며 그 결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됨(Oneness)”이라고 말한다. 이때의 태일은 Great Oneness라고

62) “稽夫三神曰天一曰地一曰太一天一主造化地一主教化太一主治化”(안경전, 『환단고기』, 「삼신오제본기」, p. 302)

63) 안경전(앞의 책), p. 303.

말할 수 있다. 이는 <천부경>에서 말하는 천지를 꿰뚫어 천지와 하나가 된(人中天地一) 사람이며 천지와 하나가 되어 삶의 궁극의 목표를 완성한(一終無終一) 태을 인간太乙人間이다. 이처럼 천지와 하나 되어 천지의 목적과 궁극의 이상을 실현하는 위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태일太一이나 인일人一로 표현하지 않고 태일太一이라 한 것이다<sup>64)</sup>

이러한 설명은 앞에서 인용한 안경전의 태일관을 토대로 이를 확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결국 <천부경>에서 일一의 의미를 인간을 뜻하는 태일太一로 보면서, 그 태일을 인간학적 의미로 완성된 인간, 하나된 인간, 존엄한 인간으로 규정함으로써 <천부경>이 담고 있는 인간관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 V. 맺는 말 : 一終無終一

‘일종무종일一終無終一’은 <천부경>의 마지막 구절이면서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과 맺구를 이루고 있다.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은 당연히 일시무시일과 함께 다뤄져야 한다. 그리고 <천부경>을 상중하로 구분한다면 일종무종일一終無終一은 하경에 속한다. 그리고 하경은 <천부경>의 구도로 볼 때 천지인 중 인간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천부경>의 구도를 염두에 둘 때 ‘일종무종일一終無終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천부경>은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로 시작하면서 우주 삼라만상의 궁극적 존재 원인에 대해 선언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일(일자, 일신, 하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一이 일석삼극一析三極하고, 일적십거一積十鉅하고, 일묘연만왕만래一妙衍萬往萬來하여 천지만물로 현현하게 된다. 여기서 ‘현현顯現’이란 드러난다는 뜻이다. 즉 일자가 만물로 드러난다. 화현化現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물 속에는 일一의 본성이 모두 들어있다. 그러므로 <천부경>에서는 ‘무진본無盡本’, ‘부동본不動本’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천부경>의 시작은 마지막 구절에서 ‘일종무종일一終無終一’로 끝을 맺

64) 윤창열, 태일의 의미에 대한 종합적 고찰, 세계환단학회지 6-3, 2017, p. 81. 참조.

는다. 〈천부경〉의 시작도 일—이고 마지막도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의 의미는 같으면서 다르다.

마지막 일종무종일—終無終—의 일—은 일시무시일—始無始—의 —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안경전 역주본 『환단고기』에서는 일종무종일—終無終—을 “하나는 천지 만물 끝을 맺는 근본이나 무로 돌아가 마무리된 하나이니라”<sup>65)</sup>고 번역하였다. 일시무시일—始無始—에서 ‘일시—始’를 ‘하나는 천지만물 비롯된 근본’이라고 한 것에 대비하면 ‘일종—終’을 ‘하나는 천지만물 끝맺는 근본’이라고 한 것은 그 일—을 같은 존재 의미로 번역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번역은 〈천부경〉을 일—과 천지인을 주제로 하는 경전으로 보는 관점에서 누구나 동의하는 번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자는 이 논문을 맺는 시점에서 ‘일종무종일—終無終—’을 〈천부경〉의 인간관을 드러내는 결론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구절은 앞에서 언급한 ‘인증 천지일人中天地—’의 ‘일—’ 즉 우주의 중심존재로서 인간의 위격을 지칭하는 ‘태일太—’을 받아서 그 태일존재가 우주만물을 완성하는 가장 궁극적 존재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종무종일—終無終—을 인간학적 관점에서 번역한다면 그 일—은 태일인간이며, 그 번역은 ‘태일인간은 천지만물을 완성 짓는 근본으로서 무로 돌아가 스스로 완성된 존재로서 태일이다’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천부경〉은 우주 궁극자로서 가장 근원적 존재, 시원적 존재로서 일(하나 혹은 천, 일신)에서 시작하여, 우주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가장 완성된 존재인 태일(인간)에서 끝나는 내용을 지닌 경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논자의 관점은 〈삼일신고〉의 처음과 마지막을 〈천부경〉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과 대비해서 충분히 설명가능하다.

이암이 구분한 〈삼일신고〉의 첫 장은 제목이 허공(발해 석실본은 천훈)이다. 이 장은 제목(후대에 만들어진)에서 보듯이 그 내용 역시 가장 근원적 대상인 하늘에 대한 내용이다. 즉 “(하늘은) 안도 비고 겉도 비어 어디에도 존재하고 모든 것을 감싸는 존재”<sup>66)</sup>인 하늘을 주제로 한다. 그리고 〈삼일신고〉의 마지막 장의 제목은 ‘인물’인데 그 주제는

65) 안경전(앞의 책), p. 507.

66) 안경전(앞의 책), p. 512. “虛虛空空 無不在無不容” 이는 〈삼일신고〉 허공장에서 천에 대한 서술이다.



〈천부경〉의 마지막 장 하경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다. 〈삼일신고〉의 마지막 구절은 “철인은 감정을 절제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고 촉감을 억제하여 오직 한뜻으로 매사를 행하고 삼망을 바로잡아 삼진으로 나아가 비로소 자신 속에 갇혀 있는 대신기를 발현시키나니, 삼신이 부여한 대광명의 성품을 깨닫고 그 공덕을 완수한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sup>67)</sup>이다. 이는 인간의 궁극적 경지에 대한 기술로서 바로 〈천부경〉의 하경, 즉 인경의 내용과 상통한다.

〈천부경〉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그 각각의 주제를 천, 지, 인이라고 한다면, 〈천부경〉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삼일신고〉의 다섯 가지 주제를 요약하여 천, 지, 인으로 나눌 수 있다면, 〈천부경〉의 마지막 구절 역시 인간관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특히 〈삼일신고〉의 ‘성통공완자’는 〈천부경〉에서 말하는 ‘태일’ 인간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천부경〉의 마지막 구절 ‘일종무종일一終無終一’의 일一도 인간학적 관점에서 태일太一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

67) 안경전(앞의 책), p. 516. “哲止感調息禁觸 一意化行 改妄卽眞 發大神機 性通功完是”

## 참고문헌

### (원전)

- 『동경대전』
- 『용담유사』

### (단행본)

- 김계홍, 1993, 『천부경과 우주변화』, 천부사.
- 김석진, 2009, 『대산의 천부경』, 동방의 빛.
- 김용성, 2016, 『천부경풀이』, 향지.
- 대종교종경편수위원회, 1971, 『대종교경전』, 대종교출판사.
- 박재원, 2010, 『천부경』, 홍문관.
- 송호수, 1991, 『한민족의 뿌리사상』, 기린원.
- 신채호 저, 박기봉 역, 2006, 『조선상고사』, 비봉출판사.
- 안경전 역주, 2012, 『환단고기』, 상생출판.
- 유명인 외 공저, 2016, 『근대단군운동의 재발견』, 아라.
- 유철 와 공저, 2019, 『우주의 교향곡 천부경』, 상생출판.
- 이강식, 2016, 『천부경의 진실성과 조직사상』, 한국.
- 이근철, 2011, 천부경철학연구, 모시는 사람들.
- 이승호, 2015, 『한국선도와 현대단학』, 국학자료원.
- 이유립, 『대배달민족사』 3권 및 5권.
- 이찬구, 2010, 『천부경과 동학』, 모시는 사람들.
- 전병훈, 1982, 『정신철학통편』, 명문당.
- 정훈모, 조준희 역, 2015, 『단재 정훈모 전집 1』, 아라.
- 제상재 찬, 1997, 『천부경집주』, 삼양.
- 조준희, 유명인, 2015, 「천부경, 삼일신고, 성경팔리 해제」, 『단재 정훈모 전집』. 아라.
- 조하선, 1998, 『베일벗은 천부경』, 물병자리.

- 최동환, 2009, 『삼일신고』, 지혜의 나무.
- 최동환, 1991, 『천부경』, 하남출판사.
- 최동환, 2008, 『새로운 천부경 연구』, 국제교류협회.
- 최민자, 2006, 『천부경(삼일신고, 참전계경)』, 모시는사람들.
- 최민자, 2008, 『생명에 관한 81개조 테제』, 모시는 사람들.
- 표영삼, 2004, 『동학』, 통나무.
- 한배달편집부, 1994, 『천부경 연구』, 한배달.

(논문)

- 김낙필, 「서우 전병훈의 도교사상」, 『도교문화연구』 21집, 2004.
- 김수진, 「단군 천부경의 초기 주석연구」,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2005.
- 민영현, 「천부경의 수리철학과 그 형이상학에 관한 이해」, 선도문화 2집, 2007.
- 박병섭, 박병훈, 「계보위축과정, 신구왕호 토폭, 그리고 『환단고기』」, 선도문화 제9권.
- 박병채, 「천부경수용과 철학적 이해」, 국제뇌과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서영대, 「한국선도의 역사적 흐름」, 선도문화 5, 2008.
- 선미라, 「천부경의 기호학적 의미」, 선도문화 3, 2007.
- 이강식, 「최치원선생의 천부경을 발견한 계연수선생의 편지분석과 신채호 선생의 천부경에 대한 견해 검증」, 세계환단학회지 2(2), 2015.
- 이근철, 「천부경의 천지인에 관한 연구」, 선도문화 4, 2008.
- 이근철, 「천부경에 대한 철학적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근철, 「대종교 경전으로 본 『환단고기』 진위문제」, 『선도문화』 제16권.
- 이도학, 「대종교와 근대민족주의 사학」, 『국학연구』 1, 1988.
- 이숙화, 「일제강점기의 천부경 연구」, 국제뇌과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승호, 「한국선도경전 천부경의 전승과정에 관한 연구」, 『단군학연구』 제 19호, 2008.
- 이찬구, 「역학과 동학의 관점에서 본 천부경사상」, 『산종교연구』, 2003.
- 이형래, 「천부경 연구사 소고」, 『선도문화』 제2집, 2007.
- 임태현, 「중국의 천부경 연구 소론」, 선도문화 5, 2008.
- 정경희, 「여말 학계와 천부경」, 선도문화 6, 2010.

- 정명호, 「천통10년동제여래입상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 제47집, 2017.
- 정옥재, 「단군인식의 계보와 대중교」, 『역사문제연구』 39집, 2018.
- 조남호, 「김택영의 천부경 주석 연구」, 선도문화 4, 2008.
- 조남호, 「최치원과 천부경」, 선도문화 10, 2011.
- 조남호, 「천부경 해석의 문제점」, 선도문화 1, 2006.
- 조인성, 「규원사화, 단기고사, 환단고기 위서론의 성과와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55호, 2017.
- 최민자, 「천부사상과 신문명」, 선도문화 1, 2006.
- 한영우, 「1910년대의 민족주의적 역사서술」, 『한국문화』 1집, 1980.
- 황광욱, 「전병훈의 생애와 사상」, 『한배달』 제 37호, 1997.
- 황경선, 「천부경에서 개벽과 인간의 문제」, 세계환단학회지 3(1), 2016.

## Logical structure and anthropological implications of Cheonbugyeong

You, Chul

<Cheonbugyeong> is evaluated as the original scripture of mankind. There are various transmission processes and various editions, and traces of them can be found in the records of ancient books. When comparing the editions of <Cheonbugyeong>, it is difficult to doubt its authenticity as each of them has traces of being passed down orally and the substance remains in written form. <Cheonbugyeong> contains a total of 81 characters and contains 31 numbers in the text, making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tent accurately. Nevertheless, most <Cheonbugyeong> researchers agree that <Cheonbugyeong> is a teaching about heaven, earth, and humans. Although it is a short text, I tried to analyze the logical structure and consistency of <Cheonbugyeong> and show that <Cheonbugyeong> is a scripture with very logically completed conten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heonbugyeong> has perfect consistency with a consistent logic from the first letter to the last letter. Furthermore, it was discovered that although it deals with heaven, earth, and humanity, its core teachings are centered on the nature and role of humans. Among the numbers included in <Cheonbugyeong>, 1 (the One—者 or One god—神) appears most often, and an accurate interpretation of the number 1 is very important in understanding <Cheonbugyeong>. While analyzing the meaning of 1 metaphysically and ontologically, I confirmed that 1 is a clue that defines the essence or role of human beings. As a result, this paper can be said to be a great achievement in that it argues that <Cheonbugyeong> is a philosophy of 1, and that 1 simultaneously point to humans as the most fundamental basis for existence and the most complete being. My conclusion is that <Samilsingo> is a commentary on <Cheonbugyeong>, and I realized that a mutual comparison between <Cheonbugyeong> and <Samilsingo> is necessary as the subject of the next study. This is because the core theme of <Samilshingo> is also humans. I hope that the task will be completed soon.

Key Words : Cheonbugyeong, Samilshingo, view of humanity, heaven- earth-human beings, the One, nothingness, originality, bright, Taeil

접수일: 2025. 3. 2. / 심사완료: 2025. 4. 11. / 게재확정일: 2025. 5. 21.

# 『환단고기』의 소도제천문화와 야마토(大和) 전개과정

김철수\*

- I. 들어가기
- II. 삼신문화와 소도제천 문화의 전개
  - 1. 삼신과 소도제천문화
  - 2. 삼신과 소도제천 문화의 일본열도 전개
- III. 한·일 역사기록에 나타난 일본열도 진출
  - 1. 『환단고기』의 문화전파 기록
  - 2. 『일본서기』와 『고사기』의 문화전파 기록
    - 1) 승신천황
    - 2) 응신천황
- IV. 맺음말

【주제분류】 한국문화, 한국사

【주제어】 삼신, 소도제천, 신교, 신도, 신사, 야마토, 태백일사, 환단고기

【요약문】 환단고기』에는 삼신문화와 이러한 삼신문화가 체현되는 소도제천 의례를 주요 요소로 하는 신교문화의 내용과 세계적 전개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신교문화의 전파는 불교문화의 전래 이전의 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일본열도에는 불교가 백제를 통해 538년 혹은 552년에 처음 전해졌고, 그 이후 신교와 불교의 문화전쟁은 여러 천황을 거치면서 50년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문화가 일정 경계를 넘어 공간적으로 전파되는 계기는 고대사회의 경우 전쟁이나 민족이동·이주를 통한 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한데, 고조선 때부터 조선조의 조선통신사에 이르기까지 일본열도로의 문화전파는 한반도의 정세 변화 곧 전쟁, 침략, 국가의 멸망 등에 따른 집단 이주현상(민족이동)으로 모두 직접적인 문화접변 현상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내용은 『환단고기』의 기록 등 한국의 기

\* 중원대학교(전자메일: chulsook@hanmail.net)

록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록까지 포함하여 신교문화가 일본의 야마토 정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래되었는가를 확인하여 보았다. 『환단고기』에는 일본열도 관련 기록이 11회 정도 나타나는데, 그 중 8회가 문화전파와 관련된 내용이다. 기기(記紀)에는 스사노오 신(素戔鳴尊)의 신라국 소시모리(曾尸茂梨) 기사, 수인천황(垂仁天皇) 때의 아메노히보코(天日槍) 기사가 있고, 특히 응신·인덕기(應神·仁德紀)에는 다수의 도래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소도제천 문화는 일본열도에도 전해졌다. 일본 최초의 국가인 야마토(大和) 정권이 가장 먼저 탄생한 지역이 나라지역의 미와산(三輪山) 주변이었고, 이 곳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신사로 알려진 나라지역의 오오미와 신사(大神神社)는 그러한 야마토 정권의 정신적(종교적) 토대가 되었던 신사이다. 이후에, 현재 일본 신사들 중 최고 위격에 있는 그리고 소위 황조신(皇祖神)인 아마테라스 대신(天照大神)을 제신으로 모신 이세신궁(伊勢神宮)으로 옮겨갔다. 「대진국본기」의 의려국 이야기는 서부여의 의려왕 또는 그 아들 의라가 285년 선비족 모용외의 공격으로 나라가 와해되는 지경에 이르자 무리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가 왜를 평정하고 왕이 되었다는 기록으로 신교문화의 직접적인 일본 전파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일본 고대사에는 천손족(天孫族)의 도래와 왕조교체설이 주장되고 있다. 곧 천손족이 일본열도로 들어와 야마토 정권을 세웠으며, 왕조교체는 일본열도에서 이러한 천손족에 의해 몇차례 왕권이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일본천황은 송인천황과 응신·인덕천황이다. 천손족의 도래는 고분시대를 열었다. 송신왕조는 이리왕조, 미와왕조로 불리며 송인천황 때의 아마테라스 대신과 야마토노오호쿠니타마 신(倭大國魂)의 제사 문제, 전염병 발생과 사도장군, 의라지 조성 등은 부여족의 이동을 추측하게 해주고 있다. 또 가와치(河内)왕조, 와케왕조를 알려진 응신왕조는 기술혁신의 시대로 칭해지는데, 백제에서 도래한 사람들은 유교문화와 한자를 전하고, 말과 마구의 도래, 단야·금공 기술의 전래·정착을 도모하면서 5세기말 이후 야마토 정권의 정치와 문화를 건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 I. 들어가기

『환단고기』에는 신교神敎문화의 내용과 세계적 전개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신교문화는 삼신三神문화와 이러한 삼신문화가 체현되는 소도제천蘇塗祭天 의례가 주요 요소임으로, 소도제천 의례를 통해 신교문화의 전개와 변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태백일사』의 「삼신오제본기」, 「소도경전본훈」 등은 삼신문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단군세기』, 『북부여기』 그리고 『태백일사』의 「고구려국본기」, 「대진국본기」는 신교문화가 주변지역으로 전개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한 기록 중에는 일본열도로의 신교문화의 전개과정과 관련된 내용들도 부분적으로 들어있다. 본 글은 이러한 파편적인 기록들을 통해 신교문화가 어떻게 일본열도로 전파·전개되었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문화가 일정 경계를 넘어 공간적으로 전파되는 계기는 문화확산(diffusion)과 문화접변(acculturation)으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내용이 전파되는 경우고, 후자는 개인이나 집단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문화내용이 문화동화·수용·변형 등으로 바뀌는 것으로, 개인적 차원도 있지만 고대사회에서는 전쟁이나 민족이동(migration)·이주를 통한 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고대 고조선 때부터 조선조의 조선통신사에 이르기까지 일본열도로의 문화전파는 한반도의 정세변화 곧 전쟁, 침략, 국가의 멸망 등에 따른 집단 이주현상(민족이동)으로 모두 직접적인 문화접변 현상이다.

이렇게 본다면 『환단고기』에는 일본열도 관련 기록이 11회 정도 나타나는데, 그 중 8회가 문화전파와 관련된 내용이다. 『단군세기』의 3세 가락단군 조의 소시모리 기록, 35세 사별단군 조의 언파불합 기록, 36세 매륙단군 조의 협야후배반명,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마한세가의 협야후 기록, 「고구려국본기」의 협보, 변진 구야국, 광개토태왕 기록, 「대진국본기」의 의려국 기록이 그것이다.<sup>1)</sup> 곧 『단군세기』에 3회, 『태백일사』에 8회(「삼한관경본기」 마한세가 1회, 「고구려국본기」 3회, 「대진국본기」 1회)

1) 나머지 3회는 『태백일사』 「고구려국본기」의 임나 이야기, 「대진국본기」의 伊國 이야기와 구야한국 이야기인데, 이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문화전파와 관련되어 있다.

이다.<sup>2)</sup>

이러한 일본열도로의 문화전파 내용은 일본의 『고사기』(712)와 『일본서기』(720)<sup>3)</sup>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신황기』<sup>4)</sup>에서도 관련 내용을 추적해 볼 수 있다. 기기記紀에는 스사노오 신(素戔鳴尊)의 신라국 소시모리(曾尸茂梨) 기사, 수인천황垂仁天皇 때의 아메노히보코(天日槍) 기사가 있고, 특히 응신·인덕기應神·仁德紀에는 다수의 도래인<sup>5)</sup>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일본 고대부터 일본열도 이주민들에 의한 문화전파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황기』에도 현재 일본에서 최고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아마테라스 대신(天照大神) 이전에 ‘천지세天地世’ 7대와 ‘천지중세天地中世’ 15대, 그리고 ‘고천원세高天原世’의 천신天神 7대가 존재했음을 알려주면서, 이 때의 신들은 중국 동북지역 및 한반도 지역과 연결되었음을 추정케 해준다. 이러한 천신 곧 천손족이 일본열도로 진출하여 지배권력(왕가)을 형성하는 이야기가 천손강림天孫降臨과 신무동정神武東征 신화이다.

이러한 기록들 가운데 신교문화의 일본 전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적인 기록이 『태백일사』 ‘대진국본기’에 나타난 ‘의려국왕의 일본열도 이동 기록’이나 『일본서기』의 ‘아메노히보코 관련 기록’ 등으로 많은 편이 아니다. 곧 ‘의려국왕은 수천 명을 데리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왜인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고, 스스로 삼신의 부명(三神符命)에 응한 것이라 하고, 여러 신하로 하여금 하례 의식(賀儀)을 올리게 하였다’ 하였고, ‘신라

2)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인 혁거세 8년(BCE 50)부터 소지왕 22년(500년)까지 倭 관련 기사는 총 51건인데 그 중 36건이 왜의 침략, 변경 공격, 공격대비,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다. 倭와의 강화, 우호, 사신교환 등 내용은 11건 정도이고 나머지는 왕의 즉위, 신라 이주 등의 내용들이다. 여기서 倭는 倭人, 倭國, 倭 여왕 히미코, 왜국 왕, 왜적으로 나타났으나 倭人으로 기록된 것이 22건이다. 고구려국본기에는 아예 없고, 백제본기에도 아신 왕(392-405) 때부터 20대 비유왕(427-455) 때까지 倭와의 우호 관련 기록이 3회 정도 보인다. 이러한 기사들도 문화전파 내용에 속하나 신교문화의 전파와 관련된 기록은 없다.

3) 紀記에서 신교문화의 전파는 불교문화의 전래 이전의 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일본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것은 538년이다(『元興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 孝明天皇3년/백제성왕16년/538년). 『일본서기』에는 29대 孝明天皇 13년인 552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백제의 聖王(일본 기록에는 聖明王)이 불상과 경전을 보낸 것이다. 이 때부터 시작된 신교와 불교의 문화전쟁은 여러 천황을 거치면서 50년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후 일본열도에서는 6세기 중반 ‘신교’ 중심의 문화에서 백제계통의 ‘불교’ 중심의 문화로 자리바꿈한다. 이 때 갈등한 두 중심세력이 蘇我가문과 物部가문이었다.(김철수, 『일본고대사와 한민족』, 상생출판, 2009, 76-81쪽)

4) 三輪義熙, 『神皇紀』, 隆文館, 1922. 일반적으로 『宮下文書』로 알려졌고, 미야시타 문서의 최초의 연구자인 미와 요시히로(三輪義熙)가 정리한 것이다.

5) 일본열도의 관점에서 한반도에서 이주민들을 도래인이라 부른다.

왕자 아메노히보코가 옥과 칼과 거울(삼종의 신기) 그리고 곰(熊)의 히모로기(神籬) 등 7개의 신물神物を 갖고 일본에 왔다'고 하였다. 일본으로 이동하여 왜국의 왕이 된 의려국 왕은 곧 '삼신의 부명에 따른 하례의식'을 행하고 일본열도로 '삼종의 신기와 용족의 신단神壇'을 갖고 온 내용들은 삼신문화가 일본열도로 전파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볼 내용들은 『환단고기』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한국의 기록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록까지 포함하여 신교문화의 일본열도 전파 상황을 살펴보고, 그것이 일본열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 II. 삼신문화와 소도제천 문화의 전개

### 1. 삼신과 소도제천문화

『단군세기』의 “이신시교以神施教” 곧 ‘신도로써 가르침을 베푼다’라는 구절은 바로 신교를 드러낸 구절이다. 신교는 문자 그대로 ‘신의 가르침’을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교의 신앙대상이다. 『삼성기』에서는 “이삼신설교以三神設教” 즉 ‘삼신의 도로써 가르침을 베푼다’라 하여 신교에서 받드는 대상이 ‘삼신’임을 알려준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대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주된 근거로서 신을 이야기해 왔고, 한민족은 이를 삼신이라 불려왔다. 『태백일사』를 보면, “천상계(上界)에 문득 삼신이 있었으니 .... 삼신은 조화로 만물을 빚어내고, 한량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가장 높고 높은 하늘에 앉아계시니 그곳은 천만억토이다. 삼신은 항상 광명을 크게 방출하고 신묘神妙한 기운을 크게 발하며 상서로운 기운을 크게 내린다. 기를 불어넣어 만유를 감싸고, 열을 내뿜어 만물의 종자를 자라게 하며, 신명들로 천명을 집행하게 하여 세상 일을 다스린다. .... 삼신은 천일天一, 지일地一, 태일太一이다. 천일은 조화造化를 주관하고, 지일은 교화教化를 주관하며, 태일은 치화治化를 주관한다”<sup>6)</sup>라 하였다. 또 “도道の 큰 근

6) 自上界 却有三神即 ... 三神 有引出萬物 統治全世界之無量智能 不見其形體. 而坐於最上上之天 所居 千萬億土 恒時

원은 삼신에서 나왔다..... 하나에는 셋이 깃들어 있고(執一含三), 셋이 만나면 하나로 돌아가는 것(會三歸一)이다. 일신一神이 내려주신 바가 만물의 이치(物理)<sup>7)</sup> 라고 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삼신이 만물을 창조하였고, 그 삼신은 각각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의 신이며 그 하나의 신이 곧 ‘일 상제(一上帝)’라는 점이다. 『단군세기』에는 ‘삼신과 한 몸이신 상제(三神一體之上帝)’라 했다.<sup>8)</sup>

그리고 신교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삼신을 받드는 일로 바로 천제天祭였다. 천제는 천신(삼신)을 받드는 국가의 의례였던 것이다. 고대 한민족의 천제는 고조선이 개국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4300여 년 전, 고조선을 세운 단군성조는 무리 8백 명과 함께 성소인 단목 터에서 10월 상달(上月)에 천제를 직접 주관했고, 여기서 나라 세움의 뜻을 밝혔다. 이 성대한 제천祭天 의례에는 단군성조를 위시하여 각 부족의 장들과 백성들이 참석했고 이들은 여기서 삼신과 천신지기天神地祇에 대한 공경심과 정서적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단군성조는 “해마다 3월 16일(대영절大迎節)이 되면 말을 달려 강화도 마리산에 가서 제물을 바쳐 경배하고 돌아왔다. 10월 3일에는 백두산에 올라가 천제를 올렸다. 이런 제천 의식은 배달 신시의 옛 풍속이다.”<sup>9)</sup>

제천문화는 상제문화 그리고 천자天子문화와 조합을 이룬다. 상제문화가 삼신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 하늘 상제에 대한 제사라면, 천자문화는 천제를 올리는 제사 주관자와 관련된 문화이다. 천제를 주관하는 주인이 곧 천자였던 것이다. 천자는 적통성을 지닌 적장자로, 삼신께 제사지낼 수 있는 역사의 대표자인 셈이다. 천제를 올린 단군성조는 적장자였고 한민족은 이러한 천자의 적통은 이어받은 셈이었다. 한민족의 선조들은 이렇게 천자의 적통자로 하늘의 삼신께 제사드리고 하늘의 뜻을 받들었다. 옛 고조선은 바로 그 주체민족의 나라였던 셈이다.

그러나 고조선의 강역이 분열되면서 열국列國시대를 맞게 되었고, 이제 한 곳을 정해 하늘에 올려졌던 천제는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제는 중단될 수

大放光明 大發神妙 大降吉祥 呵氣於包萬有 射熱以滋物種 行神以理世務 夫三神曰天一 曰地一 曰太一 天一 主造化 地一 主教化 太一 主治化.(『太白逸史』「三神五帝本紀」)

7) 道之大原出於三神也. … 乃執一而含三 會三而歸一也. 一神所降者是物理也.(『太白逸史』「三韓管境本紀」)

8) 하늘 상제를 지칭하는 용어는 하늘님, 帝, 天帝, 天神, 天皇, 天主 등이다.

9) 每當三月十六日則馳往摩利山 供物敬拜而歸. 十月三日則登白頭山祭天. 祭天乃神市古俗也.(『太白逸史』「高句麗國本紀」)

없는 의례였다. 모든 열국마다 고조선의 제천행사를 이어 나갔다. 열국들 곧 부여·고구려·예·마한 등은 모두 고조선의 전통을 계승하여 하늘에 제사지냈다. 동예의 무천舞天, 고구려 동맹東盟, 부여의 영고迎鼓, (마)한韓의 제천이 모두 그것이다.

그렇다면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서 올려지던 천제가 각 열국에서는 어디에서 올려졌을까? 각 나라는 천신지기, 시조신, 대조신大祖神을 대상으로 일정지역에서 각자 저마다의 모습으로 하늘에 제사했고, 그 일정지역이 소도蘇塗였다. “나라의 읍락에서는 각 한 사람을 세워 천신에게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이때 한 사람을 천군天君이라 하였다. 또 모든 나라에 각기 별읍別邑이 있어 이를 소도라 부르고, 큰 나무를 세워 방울과 북을 달아놓고 신을 섬겼다.”<sup>10)</sup> 이렇듯 소도는 대부분의 나라들에 세워졌고, 고대 국가들은 여기서 천신지기와 시조신께 천제를 올리면서 공경과 정서적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태백일사』에는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삼한의 옛 풍속에, 10월 상일上日에 모두가 나라의 큰 축제에 참여하였다. 이때 등근 단을 쌓아 하늘에 제사지내고, 땅에 대한 제사는 네모진 언덕에서 지내며, 조상에 대한 제사는 각목角木에서 지냈다. 산상山像과 웅상雄常은 모두 이러한 풍속으로 전해오는 전통이다. 제천할 때는 반드시 임금[韓]께서 몸소 제사지내시니, (중략) 소도에서 올리는 제천(蘇塗祭天) 행사는 바로 구려九黎를 교화하는 근원이 되었다.”<sup>11)</sup>

소도제천, 곧 제천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소도였음을 이르는 말이다. 앞서 보았듯, 각 나라는 천신지기와 시조신을 대상으로 각자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그 성소가 소도였다. 군왕이 직접 제사지내는 이러한 소도제천은 구려 곧 동이東夷의 교화의 근원이라 하여 모든 나라가 천제를 지냈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10)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三國志』‘魏誌東夷傳韓’). 이외에도 『晉書』‘列傳’‘東夷傳’, 『後漢書』‘東夷列傳’에서도 비슷한 기록이 있으며 그 내용들은 큰 차이가 없다. 곧 소도는 제의가 행해지는 신성지역이며 별읍은 바로 그러한 성역이 되고, 제단적 기능을 갖는 세계樹인 大木을 중심으로 천군이 제의를 행한다는 내용이다.

11) 三韓古俗皆十月上旬國中大會築圓壇而祭天祭地則方丘祭先則角木山像雄常皆其遺法也祭天韓必自祭 (中略) 而蘇塗祭天乃九黎教化之源也.(『太白逸史』‘三神五帝本紀’)



## 2. 삼신과 소도제천 문화의 일본열도 전개

이러한 소도제천 문화는 일본열도에도 전해졌다. 고사古社로 알려진 나라(奈良)지역의 오오미와 신사(大神神社)를 살펴보면 이는 명확해진다. 오오미와 신사는 일본 최초의 국가인 야마토(大和) 정권이 탄생한 정신적(종교적) 토대가 되었던 신사이다. 보통 신사에는 신체神體를 모신 본전本殿이 있으나 오오미와 신사에는 본전이 없다. 오오미와 신사의 기도 대상은 신사 뒤편에 위치한 숲이 우거진 산, 곧 미와산(三輪山)<sup>12)</sup>이었기 때문이다. 곧 이 산 자체가 신체인 것이다. 타케미츠 마코토(武光誠)에 의하면, 고대 일본인은 미와산의 산기슭(麓) 일대를 ‘야마토(大和)’라 부르고, 이 곳의 마키무쿠유적(纏向遺跡)을 야마토 조정 발상發祥의 땅으로 생각하였다.<sup>13)</sup> 나라현 야마토 분지의 중앙에 자리잡은 미와산은 천황가의 발상지 근처에 위치한, ‘미모로의 간나비(神奈備)산’으로 불리우는 신의 산(神山)이다. 산 정상에는 바위터 등 고대 이래의 제사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간나비를 히모로기(神籬)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히모로기는 무성한 나무의 숲으로 신을 숨긴 것으로, 신단 곧 신령을 제사지내는 제단祭壇이다. 이능화는 “히모로기는 본디 조선 물건”이라 했고, 미야자키 미치사부로(宮崎道三郎) 같은 학자도 ‘히모로기는 조선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하였다.<sup>14)</sup>

『일본서기』를 보면, 수인천황 3년에 신라왕자 천일창天日槍은 삼종의 신기 등 보물과 함께, ‘웅족의 히모로기(熊神籬)’를 갖고 일본으로 들어왔다.<sup>15)</sup> 곰은 한민족의 토템

12) 吾欲住於日本國之三輪山。…此大三輪之神也(『日本書紀』) 此者，坐御諸山上神也(『古事記』)。미모로산(三輪山)이다. ‘모리’ ‘머리’는 ‘神’을 뜻한다. 마리산은 神山이고 히모로기는 태양신(天神)의 터전(神壇)이며 일본 신사를 ‘모리’라 한 것도 신이 머문 곳을 뜻한다. 백두산도 흰산으로 히모로기와 같고 미모로산도 삼신산의 뜻이다. 소시모리는 수모리로 으뜸신, 첫째신, 최고신으로 『日本書紀』素戔嗚尊의 ‘降到於新羅國，居曾尸茂梨之處’는 최고신이 사는 곳으로 소시모리, 수모리, 수두, 소도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오오미와 신사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三輪의 의미를 지녔으나 일본신화의 삼신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13) 武光誠, 『古事記・日本書紀を知る事典』, 東京堂出版, 1999; 武光誠, 『「古代日本」誕生の謎』, PHP研究所, 2006. 이는 奈良盆地의 아스카(飛鳥)·이카루가(斑鳩) 외 지역과 구별된 호칭이었고, 오늘날처럼 나라현 전체를 ‘大和’라 부르는 것은 7세기쯤 되어서였다. 武光은 纏向一帯를 ‘古代都市 大和’라 부르고 있다.

14) 간나비는 신이 깃든(내려온) 곳(金, 나무)을 의미하는 고대 한국어로 甘奈備, 神南備, 神奈樋, 神奈火로 쓴다. 이는 神壇樹이다. 金澤庄三郎은 “神奈備는 조선말이다. 나는 일본 교토의 가미가모신사 부근을 산책하면서 울창한 수목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틀림없는 간나비라고 생각했다.”(이능화, 『조선신사지』, 동문선, 2007, 49-50, 55-56쪽)

15) 新羅王子天日槍來歸焉。將來物，羽太玉一箇，足高玉一箇，鵜鹿々赤石玉一箇，出石小刀一口，出石杵一枝，日鏡一面，熊神籬一具，并七物。(『日本書紀』) 槍은 아리(矢利)로 화살을 뜻하기도 하며 호코(矛)를 말하기도 한다. 호코

이다. 한민족이 삼신을 모신 신단이 천일창에 의해 야마토로 건너간 것이다. 히모로기는 넓게 보면 신단을 모신 옛 조선의 성소인 소도이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신의 정원(神庭)이자 제장祭場인 숲속에 있었던 성스러운 나무(聖木)인 신단수이자 신단이다. 최남선이 지적한 수두가 수림을 뜻하는 동시에 거기에 있는 신단을 의미했던 것처럼, 일본에서는 처음에 숲 속에 신이 있다는 관념에서 큰 나무를 대상으로 제사지냈다. 이 숲을 ‘모리’(森. 社)라 불렀고, 이는 후대 일본 곳곳에 세워진 신궁, 신사의 원형이 되었다.

그러면 신사에서 ‘제사를 모시는 신’과 ‘제사를 주관하는 자’는 누구였을까? 소도의 천군과 같이, 일본의 신사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자’는 재왕齋王(이쓰기노미야)이다. 물론 일본에서도 고대부터 행해진 제사의 제주祭主는 당연히 천황이었다.<sup>16)</sup> 시간이 지나면서, 재왕은 이러한 천황을 대신하여 왕궁에서 파견된 자로 보통 천황의 결혼 안한 여식들이 담당했다.

일본 신사들 중 최고 위격에 있는 이세신궁伊勢神宮을 대상으로 제신祭神과 재왕을 함께 살펴보자. 이세신궁은 현재 소위 황조신(皇祖神)인 아마테라스 대신(天照大神)을 제신으로 받들고 있다. 『일본서기』를 보면, 21대 옹략雄略천황 때에 재왕齋王 관련 기사가 보인다.<sup>17)</sup> 옹략천황 원년(457년)에 “3인의 비妃를 두었다. 원비元妃의 ... 황녀는 이세대신伊勢大神의 야시로(祠)의 재궁이 되었다”<sup>18)</sup>고 하였다. 이후 계체繼體(26대), 흠명欽明(29대), 민달敏達(30대), 용명用明(31대) 천황 때에 다시 재왕 임명 기사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제도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제도화된 재왕의 이세신궁 파견은 대략 5세기 후반 옹략천황의 시대에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유력시된다. 곧 옹략천황 대에 이세신궁이 창사創祀되었다고 보는 것이다.<sup>19)</sup>

는 환두대도, 동검(銅矛)의 의미도 지니며, 天君이 지닌 三枝槍(三叉槍)을 뜻하고 三叉槍은 牛頭叉이다. 큐슈의 천손강림지에는 삼지창이 거꾸로 박혀있고 로마신화에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나 인도의 시바신은 삼지창을 들고 있다.

16) 현재도 궁내에서 행해지는 新嘗祭 등의 祭主는 천황이다.

17) 『일본서기』 垂仁천황(11대) 25년 3월 “丁巳年冬十月甲子, 遷于伊勢國渡邊宮”이라 하여 이세신궁의 創祠를 丁巳年이라 했다. 編年을 충실히 한다면, 이세신궁의 창사는 BCE 5년의 일이다. 그러나 1대 神武에서 9대 開化천황까지는 일본학자도 인정하듯이 만세일계의 황통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공의 천황이다. 10대 崇神천황부터는 실재 가능성이 강한 천황이나 5세기 중반의 21대 雄略천황까지의 재위연대는 津田左右吉도 ‘欽明(29대, 539-571)조에 曆 박사가 백제에서 도래(554년)한 것이 사실이라 인정한다면, 그 이전 기록의 연대기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신궁의 창사와 재왕의 임명·파견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18) (雄略天皇)元年三月 是月立三妃. 元妃 ... 是皇女侍伊勢大神祠. (『日本書紀』)



그러면 이때 모셨던 이세대신은 아마테라스 대신이였는가? 웅락천황은 야마토 왕권에서 하나의 전기轉機를 마련한 왕으로 ‘천하를 통치하는 대왕(治天下大王)’으로 불리워진, 최초의 왕으로 알려지고 있다. 웅락천황이 이세신궁을 창사한 것은 대외적 긴장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웅락천황이 재위한 5세기는 광개토대왕(재위 391-413)에 이어 장수왕(재위 413-491)이 등장하면서 강성해진 고구려의 공격은 더욱 강력해져 왜 뿐만 아니라 친정집과도 같은 백제도 국가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도 위례성이 함락되었고 개로왕마저 전사했다(475년). 477년에는 백제왕성이 함락되고 국왕과 왕자가 죽었다는 정보가 웅락천황의 귀에까지 들려왔다.<sup>20)</sup>

세상은 급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웅락천황이 강렬한 국가의식으로 국가신을 제사하는 이세신궁을 창사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웅락천황 때에 그대의 나라가 고구려에 공박 당하였을 때에 누란의 위기가 있었다. (중략) 신직이 신의 말을 빌어, ‘처음에 나라를 세운 신을 모셔와서 망하려고 하는 왕을 구하면 반드시 나라가 안녕이 되고 백성 또한 안녕하게 되리라’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신을 청하여 백제를 구하고 나라가 안녕하게 되었다. 나라를 세운 신이란 천지초창의 때 초목도 말을 하였을 때에 하늘에서 내려와 나라를 세운 신이다.”<sup>21)</sup>

곧 웅락천황 조에 고구려의 공격으로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세에 야시로를 세워 [創祠] ‘천지창조의 시기 하늘에서 내려와 처음에 나라를 세운 신’을 제사하게 되었다는 기록이다.<sup>22)</sup> 그러면 웅락천황이 이세신궁에 모신 ‘천지창조의 시기 하늘에서 내려와

19) 웅락천황(457-79) 때 祠였다가 용명천황(585-7) 때 이세신궁이라 기록되었다.

20) “천황은 백제가 고구려에 의해 파멸되었다고 들었다.(雄略天皇)廿一年春三月. 天皇聞百濟爲高麗所破.”(『日本書紀』)

21) (欽明天皇)十六年春二月. 昔在天皇大泊瀨之世. 汝國爲高麗所逼. 危甚累卵.(中略) 祝者迺託神語報曰. 屈請建邦之神. 往救將亡之主. 必當國家謐靖. 人物又安. 由是請神往救. 所以社稷安寧. 原夫建邦神者. 天地株判之代. 草木言語之時. 自天降來造立國家之神也.(『日本書紀』)

22)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주17의 ‘丁巳年’을 해해석하면(岡田精司, 『古代王權の祭祀と神話』), 정사년은 BCE 63년, BCE 3년, 57년, 117년, 177, 237년, 297년, 357년, 417년, 477년 등이다. 웅락천황 시대 丁巳년이 야말로 이세신궁 창사의 해로 볼 수 있고, 그것이 곧 477년이다. 수인천황 때 기록은 이세신궁의 창사 년대를

처음에 나라를 세운 신'은 누구였을까. 이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23대 현종顯宗天皇 3년 조에 보면 “나의 선조 타카미무스히 신(高皇產靈尊)이 미리 천지를 만드신 공이 있다”고 했고 또 “반여의 전지를 나의 선조 타카미무스히 신에게 바치라”고 하였다.<sup>23)</sup> 곧 ‘천지창조의 시기 하늘에서 내려와 처음에 나라를 세운 신’은 조화삼신의 하나인 타카미무스히 신이었다. 『일본서기』를 보면, 이 신은 아마테라스 대신과 관계없이 지상을 지배하는 군주를 내려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 궁정에서는 아마테라스 대신을 모시기 이전에도 이 신이 중심에 모셔지고 있었다.<sup>24)</sup>

5세기 후반기부터, 야마토 정권은 고구려와 같은 전제적 통일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지고의 ‘천(天)’에 유래하는 왕권사상을 도입하고 ‘천제지자天帝之子’가 되고 싶어했다. 477년에 웅략천황은 제사장祭祀場(祠)을 이세에 만들고 여기에 ‘이세대신’인 국가 최고신 타카미무스히 신을 제사한 것이다. 『일본서기』에 웅략천황 이전에 줄곧 ‘이세대신’으로 표기되어 있던 신은 타카미무스히 신이었다.<sup>25)</sup> 타카미무스히 신은 “고구려 경유의 태양신으로, 별명이 타카키(高木)의 신”이었다.<sup>26)</sup> 이 최고신은 큰 나무(高木)을 신체神體로 한 ‘고목의 신’이라고 불려졌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기록된 천손강림의 사령의 주체는 아마테라스 대신 보다는 타카미무스히 신이었다. 그리고 타카미무스히 신은 “천손강림의 신화와 함께 대륙에서 들어온 외래신外來神”이었다.<sup>27)</sup> 타카미무스히 신은 일본열도의 밖, 곧 대륙을 원향原郷으로 하는 지고신이었다.<sup>28)</sup> 초대 신무천황이 최초로 제사지냈던 신도 아마테라스 대신이 아닌 타카미무스히 신이었다.

타카미무스히 신은 『고사기』의 ‘신대기神代記’에 보이는 ‘조화삼신造化三神(天御中

앞당기려는 역사 왜곡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3) 我祖高皇產靈有預鑄造天地之功。..... 以磐余田獻我祖高皇產靈。(『日本書紀』)

24) 이 때문에 타카미무스히 신이 천황가의 선조신이자 수호신인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도 있다.

25) 이세신궁이 있는 숲도 고구려의 숲(高麗廣)이다. 『일본서기』에 伊勢大神이라 기록해 이세신궁에 아마테라스 대신이 모셔졌다고 생각토록 하는 것이 『일본서기』의 의도였다. 야마토 정권에서 타카미무스히 신을 제사하는 유력한 호족들-大伴씨, 忌部씨, 物部씨, 中臣씨 등-을 위한 배려였다(溝口, 전제서).

26) 是高木神者、高御產巢日神之別名。(『고사기』). “이 나무는 神木이다. 이 나라는 木國이다.”(景行天皇十八年, 是樹者神木。故是國宜號御木國。(『日本書紀』)). 이 高木은 동북아 소도에 세워졌던 神檀樹였던 것이다.

27) 武澤秀一, 『伊勢神宮の謎を解く-アマテラスと天皇の‘發明’』, ちくま新書, 2011, 60쪽.

28) 672년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天智천황 즉과 天武천황 즉이 전쟁(壬申의 亂)을 벌인 후 승리를 거둔 천무천황이 즉위하면서, 이세신궁에 재왕 파견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때 재왕이 봉사하던 신은 이전과 달리 타카미무스히 신이 아니라 아마테라스 대신이었다. 天武천황과 持統천황의 시대에, 국가 최고신이 타카미무스히에서 아마테라스로 轉換(‘국가 최고신의 교체’ ‘황조신의 전환’ 溝口隆子)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主尊, 高皇產靈尊, 神皇產靈尊)’ 중 한 신으로, 천손강림 때에 고천원高天原에서 니니기신(邇邇芸命)을 지상으로 내려보내 일본열도 평정을 명령한 신이다.<sup>29)</sup> 그러나 『미야시타문서』는 아메노미나카누시 신(天御中主尊)이 ‘천지어중세天之御中世’의 제1대 시조 신이며, 그 앞에는 ‘천지세天之世’의 ‘칠대七代’가 더 있고, 타카미무스히 신은 ‘천지어중세’의 제15대이며 가무무스히 신(神皇產靈尊)과 부부신이다.

구메 구니다케(久米邦武)는 일본의 “신도가 제천祭天의 옛 풍속”이라 지적하였다.<sup>30)</sup> 또 “일본 천황들은 아마테라스 대신을 모시고 제사지낸 것이 아니었다. 고대의 왜한倭韓은 모두 동일한 천신을 제사지냈다.”고 했다. 그는 일본 천황들이 본래 제사에서 받들던 신이 오늘날 천황가의 황조신인 아마테라스 대신이 아니라, 소도에서 제천 시에 받들었던 천신이었음을 지적했던 것이다. 기기에서도 고래의 신을 (조화)삼신으로 설정하려는 흔적들이 보여지고 있다.

### Ⅲ. 한·일 역사기록에 나타난 일본열도 진출

#### 1. 『환단고기』의 문화전파 기록

앞에서 보았듯이, 『환단고기』의 일본열도 문화전파 관련 기록은 『단군세기』의 3세 가락단군 조의 소시모리 기록, 35세 사벌단군 조의 언파불합 기록, 36세 매륵단군 조의 협야후배반명,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마한세가의 협야후 기록, 「고구려국본기」의 협보, 변진 구야국, 광개토태왕 기록, 「대진국본기」의 의려국 기록이다.

29) 『일본서기』에는 『고사기』의 ‘조화삼신’이 6개의 ‘一書」 중 네 번 께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서기』에도 천지가 개벽할 때 三神이 생겨났는데 『고사기』에서와는 달리 國常立尊, 國狹槌尊, 豐斟淳尊이다.(開闢之初, .... 便化爲神. 號國常立尊. 次國狹槌尊. 次豐斟淳尊. 凡三神矣. 그리고 『宮下文書』에는 高皇產靈尊과 神皇產靈尊은 부부이며, 그들의 자녀가 國常立尊(5子)과 國狹槌尊(7子)이며, 그들이 부모와 함께 봉래산의 연기를 목표로 가서 大海原에 天降해 高天原을 건국했다. 邇邇芸命은 國常立尊의 증손으로 西北大陸에서 大軍이 築紫를 공격함에 築紫에 천손강림하여 平定했다. 얼마 뒤에 邇邇芸命은 고천원으로 돌아가 ‘삼종의 신기’를 奉納하고 전승 보고하였다. 그 후 니니기 신도 고천원에서 死去하였다. 이에 대한 지역 비정으로 高皇產靈尊이 있던 곳은 醫巫閭山 지역(遼寧省 錦州市)이고 고천원을 한반도 남부로 보고 있다(佃收, 新「日本の古代史」, 星雲社, 2014)

30) 久米邦武, “神道は祭天の古俗”, 『史學會雜誌』 10-12월, 1891.

- ① 무신 10년(단기 161, BCE 2173)년에 두지주豆只州의 예읍濊邑이 반란을 일으키니 임금께서 여수기(余守己)에게 명하여 그곳 추장 소시모리素尸毛犁의 목을 베게 하셨다. 이로부터 그 땅을 소시모리라 불렀는데, 지금은 음이 변해서 소머리 나라(牛首國)가 되었다. 그 후손에 협야노陝野奴라는 인물이 있는데, 바다를 건너가 삼도三島를 점거하고 스스로 천왕이라 참칭하였다.<sup>31)</sup>
- ② (35세 사벌단군) 무오 50년(BCE 723)에 임금께서 장수 언파불합을 보내 바다 위의 웅습을 평정하였다.<sup>32)</sup>
- ③ (36세 매류단군) 갑인 38년(BCE 667)에 협야후 배반명을 보내 해상의 적을 토벌하게 하셨다. 12월에 삼도를 모두 평정하였다.<sup>33)</sup>
- ④ 갑인년(BCE 667)에 협야후에게 명하여 전선 500척을 거느리고 가서 해도를 쳐서 왜인의 반란을 평정케 하셨다.<sup>34)</sup>
- ⑤ 협보陝父가 남한南韓으로 달아나 마한산(지금의 평양)에 은거하고 있을 때, 따라와서 사는 자가 수백여 가구였다. … 협보가 장차 변란이 있을 줄 알고 … 해포海浦를 거쳐 몰래 항해하여 곧장 구야한국狗邪韓國에 이르니, 곧 가라해加羅海의 북쪽 해안이었다. 몇 달 지내다가 아소산阿蘇山으로 옮겨 살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다파라국多婆羅國의 시조이다.<sup>35)</sup>
- ⑥ 처음에 변진弁辰 구야국狗邪國 사람이 먼저 들어와서 모여 살았는데 이것을 구야한국狗邪韓國이라 하였다. 다파라多婆羅를 일명 다라한국多羅韓國이라 불렀다. 이곳 사람들은 홀본忽本(졸본)에서 이주해 와서 일찍이 고구려와 친교를 맺었으므로 늘 고구려 열제의 통제를 받았다. … 옛날에는 이곳에 웅성熊襲城(구마소성)이 있었는데, 지금의 큐슈 구마모토(熊本)성이 바로 그곳이다.<sup>36)</sup>

31) 戊申十年豆只州濊邑叛 命余守己斬其酋素尸毛犁 自是稱其地曰素尸毛犁 今轉音爲牛首國也 其後孫有陝野奴者 逃於海上 據三島 僭稱天王.(단군세기 3세 가락단군 조)

32) 戊午五十年帝遣將彥波弗哈 平海上熊襲.(『단군세기』) 35세 사벌단군 조)

33) 甲寅三十八年 遣陝野侯婁幣命 往討海上 十二月三島悉平.(『檀君世紀』) 36세 매류단군 조)

34) 甲寅命陝野侯 率戰船五百艘 往討海島 定倭人之叛.(『太白逸史』 「三韓管境本紀」 馬韓世家)

35) 陝父奔南韓 居馬韓山中 從而出居者數百餘家 … 陝父乃知將革 … 由海浦而潛航 直到狗邪韓國 乃加羅海北岸也 居數月轉徙于阿蘇山而居之 是爲多婆羅國之始祖也.(『高句麗國本紀』)

36) 初弁辰狗邪國人 先在團聚 是爲狗邪韓國 多婆羅一稱多羅韓國 自忽本而來 與高句麗早已定親故 常爲烈帝所制 … 舊

- ⑦ 정주正州는 의려국依慮國이 도읍한 땅이다. 의려국 왕이 선비鮮卑 모용외慕容廆에게 패한 뒤 꺾박당할 것을 근심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다. 이때 문득, ‘나의 영혼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어디에 간들 이루지 못하리오?’라는 생각이 들어, 은밀히 아들 부라扶羅(依羅)에게 왕위를 넘기고, 백랑산白狼山을 넘어 밤에 해구海口를 건너니, 따르는 자가 수천 명이였다. 마침내 바다를 건너 왜인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다. 스스로 삼신三神의 부명符命에 응한 것이라 하고, 여러 신하로 하여금 하례 의식을 올리게 하였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의려왕은 선비족에게 패하자 도망하여 바다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다. 자제들이 북옥저로 달아나 몸을 보전하다가 이듬해에 아들 의라依羅가 즉위하였다. 이 뒤 모용외가 또다시 침략하여 아국사람들을 약탈하였다. 의라가 무리 수천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마침내 왜인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다.”<sup>37)</sup>
- ⑧ (열제계서)한번은 바다를 건너 이르는 곳마다 왜인을 격파하셨는데, 당시 왜인은 백제를 돕고 있었다. 백제는 앞서 왜와 은밀히 내통하여 왜로 하여금 잇달아 신라 경계를 침범하게 하였다. … 이때에 백제·신라·가락(가야) 모든 나라가 조공을 끊이지 않고 바쳤다. 거란과 평량平涼이 다 평정되어 굴복하였고, 임나任那·이국伊國·왜倭의 무리가 신하라 칭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해동海東의 융성이 이때에 절정을 이루었다.<sup>38)</sup>

이상의 내용들은 고조선과 일본열도의 밀착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일본의 역사와 맞추어 보면 조몬시대(BCE 12000~BCE 300)와 야요이(彌生) 시대(BCE 3C~3C) 그리고 고분시대(3C후반~4C초~7C전반~8C초)에 전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조몬시대 일본열도와 접촉한 기록은 ①~④로, 3세 가락단군 재위 10년(BCE

---

有熊襲城 今九州熊本城是也.(『高句麗國本紀』) 熊襲城은 姬木城(히메키성)으로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시 國分町 야 북부에 있던 산성으로 히메노성, 쿠마소성으로 불린다.

37) 正州依慮國所都 爲鮮卑慕容廆所敗 憂迫欲自殺 忽念我魂尙未泯 則何往不成乎 密囑于子扶羅 踰白狼山 夜渡海口 從者數千 遂渡 定倭人爲王 自以爲應三神符命 使群臣獻賀儀 或云依慮王爲鮮卑所敗 逃入海而不還 子弟走保北沃沮 明年子依羅立 自後慕容廆 又復侵掠國人 依羅率衆數千 越海遂定倭人爲王.(『太白逸史』「大震國本紀」).

38) 一自渡海 所至擊破倭人 倭人百濟之介也 百濟先與倭 密通 使之聯侵新羅之境 … 時則百濟·新羅·駕洛諸國 皆入貢不絕 契丹·平涼皆平服 任那·伊·倭之屬 莫不稱臣 海東之盛於斯爲最矣.(『高句麗國本紀』)



2173)부터 35세 사벌단군 재위 50년(BCE 723), 36세 매륵단군 재위 38년(BCE 667)까지의 기록이다. ④의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마한세가의 기록은 36세 매륵단군 재위 38년(BCE 667)의 기록과 같은 내용이다.<sup>39)</sup> 이러한 조몬시대의 기록은 문화접촉(전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문화접촉을 통해 어느 정도의 문화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조몬시대 유적<sup>40)</sup>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볼 때 흙으로 빚은 모신상이나 옥기 중심의 제의문화가 이루어졌고, 특히 출토된 옥기들은 중국 동북지역의 옥기이며 제작방법도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sup>41)</sup> 제천의기, 제천시설 그리고 모신당을 중심으로 본다면 신교문화의 전파가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⑤⑥은 「고구려국본기」에 서로 연결된 내용인데, 일본에 세워진 고구려 분국과 고대 일본 속의 한국 건설과 관련된 내용을 구분한 것이다. 협보는 오이鳥伊, 마리摩離와 함께 주몽의 고구려 건국을 도운 개국공신으로, 유리왕瑠璃王 22년(서기 3년) 대보大輔 직위에 있으면서 유리왕에게 간언을 했다가 좌천당한 인물이다. 그리고는 고구려를 떠나 남쪽으로 가 버렸다. 고구려의 제2대 유리왕(재위 BCE 19~18) 때 활동한 인물이기 때문에 야요이 시대의 문화접촉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신교문화를 이어온 부여와 고구려인이기 때문에 일본열도로 이주했다면 신교문화를 전파하는데 혁혁한 활동을 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sup>42)</sup>

⑦은 서부여의 의려왕 또는 그 아들 의라가 285년 선비족 모용외慕容廆의 공격으로 나라가 와해되는 지경에 이르자 무리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가 왜를 평정하고 왕이 되었다는 기록으로 신교문화의 직접적인 일본 전파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39) 본고에서는 ①~④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나, 檀君朝와 고대 일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다. 일반적으로 협야후는 일본의 초대 천황으로 알려진 신무천황의 幼名이다. 일본에서는 사노(狹野) 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해서 '狹野尊'이라 했고 '東征'을 마친 뒤에는 '가무야마토이와레히코'라 했다. 이와레(盤余)는 나라현 櫻井市·檀原市 주변이다. 인파불함은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는 신무천황의 父로 알려졌고, 『竹內文書』 『宮下文書』 『上記』에서는 우가야 왕조를 연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①의 협야노와 ③④의 협야후 문제, ①과 ②의 관련성 등이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0) 대표적으로 相谷熊原遺蹟(滋賀県), 粥見井尻遺蹟(三重県), 打越遺蹟(埼玉県), 下鎌田遺蹟(群馬県) 등이다. 거주지를 형성하고 취락이 성립되면서 공동제사터와 묘지들이 구축되는데, 이러한 유적에서 환상열석 구조도 보인다.

41) 谷口康浩, 『縄文時代社會複雑化儀禮祭祀』, 同成社, 2017, 109-111쪽.

42) 여기서 보이는 구야한국, 다파라국, 다라한국 등 위치 비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다. 왜국의 왕이 된 의려국 왕이 ‘삼신의 부명(三神符命)에 따라 하례의식(賀儀) 행했다’고 하여 삼신문화가 일본열도에서 시작·전개되는 모습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는 3세기 후반으로 일본열도에서 야요이문화와 고분문화가 교체되는 시기로 부여족에 의해 왕권이 형성되고 고대국가의 성립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⑧은 고구려의 제19대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재위 : 391~412)의 업적으로, 본격적인 고분시대의 진행기에 해당하며 부여족의 기마민족 정복국가설과도 관련되는 내용이다. 『일본서기』와 『고사기』를 보면, 이 시기에는 한반도로부터 일본열도로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어 본격적인 문화접촉 시기로 신교문화의 전파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상의 여덟 개 기록은 신교문화의 일본열도 전파와 전개와 관련된 내용들이며, 이 중 ⑦의 서부여의 의려왕 또는 그 아들 의라왕 기록은 ‘삼신의 부명에 따라 하례의식을 행했다’고 하여 삼신문화의 전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⑦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신 문화에 바탕을 둔 고조선 말기에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하였다. 북부여가 세워진 후 만주의 진조선은 북부여에 흡수되고, 한반도의 막조선에는 낙랑국이 들어서고, 요서의 변조선은 망명객 위만이 차지하였다. 이로써 고조선의 삼조선 시대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다. 북부여는 4세 단군에 이르러 역사적인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BCE 109년, 흉노를 정복한 한의 무제(漢武帝)는 우거(위만의 손자)의 변조선을 침공하여 왕검성을 함락시켰고(BCE 108), 요동을 넘어 북부여를 침공하였다. 이때 고두막한高豆莫汗이 군사를 일으켜 한나라를 물리치고 졸본卒本에서 나라를 열어(BCE 108) 졸본부여라 했고, 북부여의 5세 고두막단군으로 즉위하였다(BCE 86). 그리고 이 고두막단군 때, 고두막한에게 권력을 빼앗긴 해부루(고우루단군의 아우)가 차릉 지역에 세운 부여국이 동부여이다. 해부루가 가섭원(지금의 흑룡강성 통하현)에 가서 나라를 세웠다 해서 동부여를 가섭원부여라고도 한다.

고두막단군의 등장으로 전기 북부여 시대가 끝나고 새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북부여는 고두막단군의 아들 6세 고무서단군에 이르러 182년(BCE239~BCE 58)의 짧은 역사를 끝내고 고구려로 계승된다. 고구려는 B.C. 37년 건국 직후부터 두만강 연안의 북



옥저北沃沮 지방을 정복(B.C.28년), 동부여를 위협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A.D. 21~22년 대무신왕大武神王이 부여국 정벌에 나섰고, 전쟁 중에 부여 대소왕帶素王이 사망하게 된다.

동부여는 2세 금와왕을 거쳐 3세 대소왕 때에 고구려 3세 대무신왕에게 망하여 갈사부여와 연나부부여로 나누어졌다. 갈사부여는 대소왕의 아우가 갈사수曷思水(지금의 두만강 유역)에 세운 부여이다. 연나부부여는 대소왕의 종제가 연나부(지금의 요령성 개원)에 세운 부여로, 모국인 동부여의 서쪽에 있었다 하여 서부여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연나부부여의 마지막 왕이 의려왕依慮王과 의라왕依羅王이다. 의려와 의라는 고구려 태조무열제 때 공손씨의 침략에 맞서 싸운 서부여 왕 위구태尉仇台의 후손이다. 곧 의려왕의 증조부는 위구태왕, 조부는 간위거왕簡位居王, 부친은 마여왕麻餘王이다. 의려왕은 마여가 죽자 6세의 나이로 즉위했으며 서진 무제武帝에게 자주 조공하며 친신을 도모했다.<sup>43)</sup> 그러던 중 285년 선비족 모용외의 공격으로 나라가 와해되는 지경에 이르는데 『진서晉書』 중에 내용이 자세하다.

서진의 무제 때에는 자주 와서 조공을 바쳤는데, 태강 6년(285년), 고구려 서천왕에 이르러 모용외의 습격을 받아 패하여 의려는 자살하고, 그의 자제들은 옥저로 달아나 목숨을 보전하였다. (중략) 이듬해에 부여의 다음 왕 의라는 하감에게 사자를 파견하여, 현재 남은 무리를 이끌고 돌아가서 다시 옛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며 원조를 요청하였다. 하감은 전열을 정비하고 가침賈沈을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호송하게 하였다. 모용외 또한 그들을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가침이 모용외와 싸워 크게 깨뜨리니, 모용외의 군대는 물러가고 의라는 나라를 회복하였다. 그 후에도 모용외는 매번 부여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중국에 팔았다.<sup>44)</sup>

부여는 285년에 선비족 모용외의 침략으로 의려왕이 자살하고, 왕자를 비롯한 왕실 가족들은 북옥저<sup>45)</sup>로 피신했다. 의려왕의 뒤를 이은 의라왕은 그동안 부여와 우호적

43)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44) 武帝時, 來朝貢, 至太康六年(285), 爲慕容廆所襲破, 其王依慮自殺, 子弟走保沃沮. (中略) 明年, 夫餘後王依羅遣求率見人還復舊國, 仍請援. 龕上列, 遣督郵賈沈以兵送之. 廆又要之於路, 沈與戰, 大敗之, 廆衆退, 羅得復國. 爾後每爲廆掠其種人, 賣於中國. (『晉書』 「東夷列傳」 夫餘)

관계였던 진의 도움으로 의라가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는 있었지만, 선비족의 계속되는 침략으로 나라는 점점 피폐해져 갔다.<sup>46)</sup> 이에 의라왕은 공격을 피해 백랑산白狼山을 넘어 발해渤海로 들어가, 바다(海)를 건너, 일본열도로 이동했다. 『한서지리지』에 의하면 백랑산은 우북평군右北平郡에 백랑현白狼縣이 있었다. 오늘날 중국 요녕성 조양시 객좌현喀左縣으로 알려져 있고, 그 동쪽에 백랑산이 있다.<sup>47)</sup> 백랑산 서쪽에 의려국의 도읍인 정주가 있다. 정주는 일명 비류군沸流郡이라 하는데, 대진국 오경五京의 하나인 서경압록부西京鴨綠府에 속한 압록 사주四州 중의 하나이다. 『요사』 「지리지」와 『발해국지』 「지리지」에 따르면, 압록 사주는 신주神州·환주桓州·풍주豐州·정주正州이다.<sup>48)</sup> 객좌현에서 백랑산을 넘으면 해안가가 나온다.<sup>49)</sup> 대릉하 하구를 말하며 「대진국본기」에서 말한 「백랑산을 넘고(踰), 밤에 해구를 건넜다(渡)」의 해구海口이다. 따르는 사람 수천 명과 함께 왔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열도로 이주한 것이다.

## 2. 『일본서기』와 『고사기』의 문화전파 기록

그러면 일본열도에서 문화전파에 중심을 두고 일본사의 전개와 일본 왕들의 변천사를 살펴보자. 주지하듯이 일본의 신석기 조몬문화는 벼농사와 금속기 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야요이(彌生) 문화로 교체되고, 이어 고분古墳문화가 나타난다. 앞에서 보았듯이,

45) 네 곳의 옥저가 있었다. 동옥저는 지금의 함경도 지방에, 남옥저는 요동반도에 있었다. 북옥저는 서간도 지역 즉 장춘 주위에 있었고, 서옥저는 만리장성 부근(요령성 백록산에서 燕山 부근까지)으로 바로 망명 부여가 자리잡았던 곳이다.

46) 같은 내용의 기사가 『資治通鑑』 「晉紀」 世祖武皇帝에도 전하며, 거의 모든 중국의 사서에서 의라 관련 기록은 『진서』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滿洲源流考』와 대부분의 한국 사료도 『진서』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이 종휘의 『東史』 「부여세가」, 한치윤과 한진서의 『해동역사』 제4권 「부여」, 許穆의 『東事』, 정약용의 『我邦疆域考』도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다만, 安鼎福은 『東史綱目』 「동사강목도상」 附부여국에서 “의려왕이 모용외에게 弑殺되었다”고 했고, 李裕元은 『林下筆記』 「文獻指掌編」 扶餘에서 “의라의 손자 왕 玄에 이르러 모용씨에게 병탄되었다”고 하였고,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의려왕이 자살하자 의라가 西曷思那의 삼림 속으로 달아나 결사대를 모집하여 선비 군사들을 쳐서 물리치고 지형이 험한 곳을 지켜서 새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다.

47) 右北平郡 … 白狼縣 莽曰 伏狄. 師古曰有白狼山故以名縣.(『漢書地理志』) 백랑현은 왕망 때는 伏狄이라 했고, 녹산은 白鹿山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白狼山(요령성 대릉하 상류)이다.

48) 涖州. … 渤海號西京鴨綠府. … 都督神·桓·豐·正四州事.(『遼史』 「地理志」)

49) 葫蘆島市로 라오닝성 남서부의 地級市인데, 발해만 북해안에 위치한 항만도시로 역사적으로 요서 회랑의 주요 거점이다. 옛 지명은 錦州市 서쪽에 있어 錦西였다.

조몬시대는 일본의 신석기 시대 중 BCE 300년까지이고, 야요이 시대는 BCE 3C부터 3C까지를 말하는데, 전기는 BCE 3C경부터, 중기는 BCE 1C경부터, 후기는 1C 중반부터 3C 중반까지로 구분한다.<sup>50)</sup> 그리고 일본사에서 3C 말·4C 초는 야요이 문화에서 고분문화로 넘어가는 전기로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 변화의 요인은 대부분 외부로부터의 인구이동과 외부문화의 전래 때문이다. 조몬문화도 그렇지만 야요이 문화는 만주·한반도 일대에서 선진적 금속·기마문화를 향유하던 단군조선이 와해되면서, 단군조선계 유이민들의 한반도·일본열도 이주과정에서 생겨난 변화였다. 그리고 고분시대의 출현은 몇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고분은 강력한 왕권의 출현과 연결되면서 천황가의 출현 및 천황제 기원을 찾는 실마리가 된다. 고분이라는 것은 강력한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의 사후에 높게 흙을 쌓아 올린 거대한 묘를 말하며 그 무덤에 많은 유물을 부장하여 생전의 지배자가 사후세계에도 영원한 권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일본열도에는 이러한 고분이 약 3세기 말과 4세기 초부터 7세기까지 많이 만들어졌다.<sup>51)</sup> 그리고 이러한 고분의 주인공인 생전의 지배자는 천손족과 연결되어 소도제천의 대상이 되면서 고분시대의 신앙과 의식은 현대 신도와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sup>52)</sup>

이를 일본천황들의 변천사로 본다면 초대 신무神武천황에서 26대 계체繼体천황(507-531)까지로 볼 수 있고, 또 일본 고대사에는 천손족天孫族의 도래와 왕조교체설이 주장되고 있다. 곧 천손족이 일본열도로 들어와 야마토(大和) 정권을 세웠으며, 왕조교체는 일본열도에서 이러한 천손족에 의해 몇차례 왕권이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이

50) 야요이 초기를 두어 BCE 5C 중반부터라 하기도 하고, 야요이 시대의 출발을 BCE 10C부터 보기도 한다. 야요이시대 유적은 요시노가리 유적이 대표적이며, 야마타이국, 히미코 등이 야요이시대와 연관을 맺고 있다.

51) 고분의 형성, 전파시기는 기내(畿内:大和[奈良],山城[京都],摂津[神戸],河内[大阪],和泉[和歌山 북쪽])지방이 3세기 후기~4세기 초, 동일본(美濃[岐阜県],尾張[名古屋],遠江[静岡 서편])·上野[埼玉 북서편]지방이 4세기 후반, 下野[埼玉 북동편]지방 5세기, 陸前지방[仙台 부근]이 5세기 후반~6세기 초이다.

52) 1948년 일본학계에서 江上波夫가 제기한 ‘기마민족(정복국가)설’은 일본열도의 고분시대를 열었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이다. 여기서 동북아시아계 기마민족이 신에 무기와 말을 수반하여 한반도를 경유해서 北九州나本州 서쪽 끝에 침입하여 4세기경에 畿内に 진출하면서 그곳에 강대한 세력을 지닌 大和정권을 수립하였다고 보았다.(江上波夫, 『日本における民族の形成と国家の起源』, 『江上波夫著作集8 倭人の国から大和朝廷へ』, 1984, pp.56~57) 예가미는 유라시아 도시문명을 연구하여 “선주민족은 농경민족이었으며 농경에 의해 부의 축적이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호족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기에 기마민족이 들어오게 되면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호족들과 협력해서 선주민을 지배하게 된다.”는 전제는 일본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江上波夫, 『江上波夫著作集7』 『日本人は何か』, 平凡社, 1975, p.76).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일본천황은 송신崇神천황부터 응신応神·인덕仁德천황<sup>53)</sup>이다. 에가미에 의하면, 천손족은 신화·전승이나 사회구조를 볼 때 부여나 고구려와 관련된 동북아시아<sup>54)</sup>계 민족이었으며 그들은 일본에 들어오기 전에 한반도 남부의 ‘임나’에 본거지를 두었다고 보았다.<sup>55)</sup> 천손족의 도래는 고분시대를 열었고, 고분시대는 전기와 후기의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문화로 나뉘어진다. 전기 문화의 고분은 부장품도 동경銅鏡 및 동검銅劍 등과 같이 주술적·평화적·종교적(祭祀的) 색채가 농후한데 비해, 후기 문화에서는 고분이 거대화巨大化되면서 무구武具 및 마구馬具 등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전사에서 후자로의 변화는 급격했으며 도저히 자연스런 추이로 생각할 수 없는 단절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sup>56)</sup> 동북아시아의 기마민족이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열도에 진출하고 왜인倭人을 정복·지배하여 통일국가를 수립한 사실이 반영된 것이다.<sup>57)</sup>

기기記紀의 천손강림天孫降臨 설화는 천황가의 선조가 한반도에서 규슈 북부에 도래한 것[소위 제1차 건국]을 말하고, 신무동정神武東征 설화는 그 세력이 북규슈에서 기내로 진출하여 통일적 정복국가인 아마토 조정을 수립한 이야기[제2차 건국]이다.<sup>58)</sup>

53) 応神천황의 실재에 대한 논란이 있다.(山中鹿次, 「中期大和王權の開始と始祖に關する覺書」 『日本書紀研究』 24, 塙書房, 2002, 423~431쪽) 실재한 경우, 4C 후반부터 5C 초에 실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井上光貞는 応神天皇 기록이 『記紀』의 事跡을 분석해 朝鮮의 역사서와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확실히 實在한 최초의 天皇’이라 하였다(井上光貞, 『日本の歴史1 神話から歴史へ』, 中央公論社, 1973). 吉村武彦는 応神天皇이 新羅와 百濟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토를 지배했다고 강조하면서 實在性을 지지했다(吉村武彦, 『ヤマト王權』, 岩波新書, 2010, p.93). 河内春人는 応神의 모델은 한반도 특히 백제와의 교섭을 개시한 인물이라 보았다(河内春人, 『倭の五王』, 中央公論新社, 2018, p.196) 한편, 岡田英弘·直木孝次郎 등은 応神天皇이 神이며 실재한 인물이 아니라 주장한다. 岡田는 『古事記』가 偽書이며, 『日本書紀』 応神天皇紀를 분석해보면, 応神天皇과 관련없는 說話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응신천황은 가공인물이며 초대 천황을 인덕천황으로 보았다(岡田英弘, 『倭国』, 中央公論新社, 1977, pp.189-190). 大仙陵古墳의 존재는 인덕천황의 실재를 의심하지 않게 하고 있으며, 最大の古墳이 初代天皇답다고 보았다.(岡田英弘, 『最新古代史論—“まほろばの国”ヤマトのあけぼの』, 学研プラス, 2009, pp.62-65) 또 直木孝次郎도 岡田說과 동일하였다.(直木孝次郎, 「応神天皇の實在性をめぐって」, 『人文研究』 第25卷 第10号, 大阪市立大学文学部, 1973, pp.910-928)

54) 고조선, 부여와 초기 고구려가 지배했던 지역이며 홍산문화의 제사 유적이 발굴된 지역이다.

55) 江上波夫, 「日本民族の成立過程と統一國家の出現」, 「東アジア史からみた騎馬民族の日本統一」, 『日本民族と日本文化』, 山川出版社, 1984.

56) 에가미는 기마민족이 한반도를 경유해서 단기간에 北九州나 本州 서쪽 끝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으나, 8년 후의 글에서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0년은 걸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세키네 히데유키,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와 기타 사다키치(喜田貞吉)의 일본민족 기원론」, 『동북아문화연구』 27, 2011, p.625)

57) 篠川賢, 「騎馬民族說」 『日本古代史研究事典』, 阿部猛 外編, 東京堂出版, 1995, pp.17-19; 穴沢味光, 「騎馬民族はやってきたのか」, 白石太一郎·吉村武彦 編, 『論点日本の歴史2 古代編1』, 新人物往來社, 1990, pp.75-78.

제1차 건국자는 송신천황이며, 송신천황은 4세기 초두에 북규슈에 ‘왜한연합왕국倭韓連合王国’의 왕이 되었고, 그 세력이 기내의 오사카평야(大阪平野)로 진출하여 거대고분을 조영하고 호족豪族과 합작하여 야마토 조정을 세웠다. 제2차 건국자는 응신천황으로, 그가 고분문화의 중심지인 기내를 정복한 시기는 4세기 말엽부터 5세기 초두이다.<sup>59)</sup>

이러한 천손족의 도래는 왕조교체설과도 연결되는데, 미즈노 유(水野 祐)는 만세일계萬世一系 천황계보를 부정하고, 천황은 혈통이 다른 고古·중中·신新 3왕조로 교체되었고, 제10대 송신천황과 제15대 응신천황 그리고 제26대 계천천황이 각 왕조의 시작이라고 주장하였다.<sup>60)</sup> 송신왕조는 이리왕조(イリ王朝)라고도 하며, 야마토의 미와지방(三輪地方)의 미와산록(三輪山麓)에 근거지를 두었기 때문에 미와왕조라 한다.<sup>61)</sup> 나라분지의 동남부 미와산 산록에 야마토(大和)·야나기모토(柳本)고분군이 전개되고, 시부타니무가이아마(渋谷向山)고분[景行陵으로 比定], 하시하카(箸墓)고분[일부는 卑弥呼의 墓로 추측], 안돈야마(行燈山)고분[崇神陵으로 比定]) 등 분구墳丘 길이 200~300미터의 거대고분들이 있으며, 이 정권의 성립연대는 고분시대의 전기(3C 중엽~4C 초)로 추측하고 있다. 이처럼 형식화形式化된 거대고분의 축조 등으로 볼 때, 정권의 성격은 ‘귀도鬼道を 섬기고 능히 사람들을 현혹시킨’<sup>62)</sup> 히미코(卑弥呼)를 여왕으로 한 야마대국邪馬台국처럼 주술적 정권에 머문 것이 아니라 종교적 성격을 지닌 권력적인 정권이었다.

응신왕조는 천황의 궁궁과 능陵이 가와치(河内)에 많기 때문에 가와치 왕조라고도

58) 江上波夫, 『江上波夫の日本古代史—騎馬民族說四十五年』, 大巧社, 1992, pp.214-221.

59) 吉村武彦, 『日本古代史② ヤマト王権』, 岩波書店, 2010, pp.99-101.

60) 水野祐, 『日本古代王朝史論序説』, 私家版, 1952(増訂版, 小宮山書店, 1954). 應神天皇을 가공의 천황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응신천황과 인덕천황을 동일 인격으로 보면서, 고왕조와 중왕조를 연결하기 위해 응신천황이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水野祐는 仁徳王朝를 말할 때 応神天皇부터 雄略天皇까지라 하였다.

61) 미와산 기슭에는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초에 형성된 대형고분 등이 곳곳에 있어 당시 그곳에 미와왕조가 존재했었던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大和盆地 東南部, 三輪山麓의 纏向遺跡은 弥生時代 末期부터 古墳時代 前期에 걸친 集落遺跡·複合遺跡이다. 一帯는 前方後円墳 発祥의 地라 보기도 한다. 그 외 邪馬台國의 중심지로 比定하는 설도 있다. 最古의 巨大前方後円墳인 箸墓古墳과, 그것보다 오래된 5개의 纏向型 前方後円墳이 분포되어 있다. 야마토왕권은 大和時代에 ‘히코(彦)’ ‘와케(別)’ ‘오오키미(大王)’ 등으로 불린 首長 또는 豪族連合에 의해 성립된 古代日本の 政治 및 軍事勢力이다. 4세기 이후는 關東·北陸·南九州 등도 통합했다.

62) 卑彌呼事鬼道能惑衆(『魏志』東夷伝 倭人条).



하며, 이 왕조에 속한 천황과 황족의 명칭에 ‘와케(別)’가 들어있어 와케왕조라고도 한다. 오사카평야에는 가와치의 후루이치(古市)고분군에 곤다야마(耨田山)고분[応神陵 비정], 이즈미(和泉)의 모즈(百舌鳥)고분군에 다이센(大山)고분[仁德陵 비정] 등 거대한 전방후원분이 축조되었다. 또 응신천황은 나니와(難波)의 오오스미궁(大隅宮), 인덕천황은 나니와의 코우츠궁(高津宮), 반정(反正)천황은 타지히(丹比. 大阪府松原市) 시바가키(柴垣)에 도읍을 설치했기 때문에, 가와치왕조 시대에 오사카평야는 강대한 정치권력의 거점이 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계체천황은 본래 오우미(近江) 혹은 에치젠(越前) 지역의 호족이었는데 황위를 찬탈해 계체 신왕조를 출발시켰다. 때문에 오우미왕조(近江王朝), 에치젠왕조(越前王朝)라고도 한다. 즉위 후에도 곧바로 야마토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가와치 북부 및 야마시로(山城) 남부를 전전하다 즉위 20년째에야 야마토로 들어갔다. 현 천황가는 계체왕조의 후예인 셈이다.

이렇듯 야요이문화 및 고분문화의 시기, 한반도 유이민들에 의한 일본 열도의 본격적인 개척 과정은 일본 고대문화의 정신적 구심이었던 신도神道문화가 정립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한반도 이주민들이 가져간 신교문화가 새로운 시대적, 지역적 조건을 맞아 신도神道로 문화변형된 것이었다. 일본열도에서 3세기 말·4세기 초의 전기 고분시대를 주도한 왕으로 송신천황, 또 4세기 말·5세기 초의 후기 고분시대를 주도한 왕으로 응신천황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세기 후반경 일본열도 내의 이러한 세력판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밝힌 자료가 없는 실정이지만, 『일본서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 1) 송신천황

송신천황은 대전大殿에 아마테라스 대신(天照大神)과 야마토노오호쿠니타마 신倭大國魂)을 제시지냈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였다. “아마테라스 대신과 야마토노오호쿠니 신, 두 신을 천황의 대전 안에 모셨다. 그러나 신의 기세가 두려워 함께 사는 것이 편안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딸인 “도요스키이리히메(豐鍬入姫命)에게 야마토(倭)의 카사누히 마을(笠縫邑)에서 아마테라스 대신을 모시도록 하고,



사카타성(磯堅城)에 히모로기(神籬)를 세웠다. 또한 누나키이리히메(淳名城入姫命)에게 야마토노오호쿠니타마 신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러나 누나키이리히메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야위어 모시는 일을 할 수 없었다”<sup>63)</sup>고 한다.

송신천황은 아마테라스 대신과 야마토노오호쿠니 신, 두 신을 대전에 모시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아’ 대전 밖으로 내보내어, 두 딸이 서로 다른 곳에서 각각의 신을 모셔 제사지내도록 했다. 그런데 송신천황의 두 딸 중 야마토노오호쿠니 신을 모셨던 누나키이리히메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야위어 제사모시는 일이 어려웠다’고 했다. 그 녀에게 야마토의 신[倭大國魂神]에 대한 제사는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의 고통이었던 것이다.<sup>64)</sup> 종교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송신천황도, 송신천황의 딸도 아마테라스 대신과 야마토노오호쿠니 신을 제사모시는 것은 고통이라고 했다. 그 두 신은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기록된 일본 고래의 신이며 왜인(야요이인)의 선조신先祖神이다.<sup>65)</sup> 송신천황은 야요이 시대부터 일본열도에 살고 있었던 야요이인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더욱이 송신천황의 시대에 역병疫病이 만연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국내에 유행병이 돌아서 사망하는 백성이 매우 많았다.”<sup>66)</sup> “백성이 유리하고 혹은 배반하였다. 그 기세가 덕으로 다스리기 어려웠다. 그래서 (천황이)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까지 삼가 신기神祇에게 죄를 빌었다.”<sup>67)</sup> 일본열도에 역병이 유행해 백성 대부분이 사망하면서, ‘백성은 토지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했다. 이상사태異常事態이다. 더욱이 ‘혹은 (천황에) 배반하는 자도 있고’라 했다. 백성이 천황에 배반한다는 것은 ‘송신기崇神紀’에만 있는 내용이다.

농경사회에서는 자연에서 매년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며 급격한 변화가 없다. 돌연 역병이 대유행하여 백성 대부분이 사망하는 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일어나기

63) 天照大神·倭大國魂二神，並祭於天皇大殿之內。然畏其神勢，共住不安。故以天照大神，託豐鍬入姫命，祭於倭笠縫邑。仍立磯堅城神籬，亦以日本大國魂神，託淳名城入姫命令祭。然淳名城入姫，髮落體瘦而不能祭。(『日本書紀』)

64) 마음이 불편하고 제사모시기 어려운 원인은 일반적으로 정성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신을 모신 경우에 발생한다.

65) 天照大神은 일본의 皇祖神이나 실제로 송신천황 때는 나타나지 않았고, 倭大國魂神은 倭國造의 祖神이며 大和國의 地主神(本居宣長) 또는 國津神의 主宰神인 大國主神으로 보기도 한다.

66) 五年 國內多疾疫，民有死亡者，且大半矣。(『日本書紀』)

67) 六年 百姓流離，或有背叛，其勢難以德治之。是以，晨興夕惕，請罪神祇。(『日本書紀』)

가 쉽지 않다. ‘역병이 유행해서 백성 대부분이 사망했다’는 것은 새롭게 일본열도로 들어온 사람들이 새로운 병원균을 갖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면역이 없는 원주민은 그 때문에 다수가 사망할 수밖에 없다. 『고사기』의 ‘역병이 빈번하게 발생해 죽어가는 백성들이 많았다’<sup>68)</sup>는 기록이나 『일본서기』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이다.

송신천황<sup>69)</sup>은 『고사기』에는 ‘처음 국가(初國)를 다스렸던 미마키천황’<sup>70)</sup>이라 했고, 『일본서기』에는 ‘조국肇國천황’<sup>71)</sup>이라 했다. ‘조국初國’과 ‘조국肇國’은 같은 뜻이며, 어느 것이든 국토의 최초 지배자라는 뜻의 ‘하츠쿠니시라스스메라미코도’라는 훈주訓註가 달려 있다.<sup>72)</sup> 송신천황은 ‘처음으로 천하를 다스린 천황’이며, 초대 천황으로 기록한 것이다. 또 송신천황의 왕통王統에는 모두 ‘이(리)’가 붙어있다. 송신천황(미마키이리히코이니에노미코토御間城入彦五十瓊殖), 수인천황(이쿠메이리히코이사치노미코토活日入彦五十狹茅), 수인천황의 아들인 이니사키이리히코노미코토(五十瓊敷入彦命), 경행천황의 아들인 이오키이리히코노미코토(五百木之入日子命) 등에는 ‘이리(入)’가 들어있다. 그런데 부여국 왕족들의 이름에도 ‘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부여왕 이큐다이(尉仇台), 칸이교(簡位居), 마요이교(麻余位居), 이교(位居), 이료(依慮) 등에는 항상 ‘이(리)’가 이름에 들어있다.<sup>73)</sup> 송신왕가의 주요 특징인 ‘이리’라는 호칭이 송신천황의 이름에 있는 이리(入, いり)를 원류로 하며, 송신왕가 왕족명 중에 유독 ‘이리’가

68) 役病(疫病)多起, 人民為尽(『古事記』崇神天皇段)

69) 송신천황은 御間城入彦五十瓊殖天皇(미마키이리비코이니웨노스메라노미코토)이다. 江上波夫는 기마민족 정복왕조설을 주장하며 미마키이리히코는 임나에서 大和로 들어온 왕이었다고 하고, 水野祐는 송신을 실재한 최초의 천황이자 송신왕조의 시조로 보았다.

70) 故, 称其御世, 謂所知初国之御真木天皇也。(『古事記』)

71) 故, 称謂御肇国天皇也。(『日本書紀』)

72) ‘하츠쿠니시라스스메라미코도’로 불렸던 천황은 神武(始馭天下之天皇)와 송신(御肇国天皇)이 있다. 생각해 본다면, 神武天皇과 崇神天皇은 同一人物이거나 崇神天皇이 本来의 ‘하츠쿠니시라스스메라미코도’이며, 皇室의 起源을 옛날로 맞추기 위해 神武天皇을 創出하였다고 볼 수 있다. 古田武彦는 『盗まれた神話』(朝日新聞社, 1994)에서 ①神武天皇의 「始馭天下之天皇」에 ‘하츠쿠니시라스스메라미코도’라는 訓註가 달려있는 것은 平安時代 이후였다. 奈良時代の 古写本에는 訓註가 없다. ②崇神天皇의 「所知初国之御真木天皇」은 ‘初國을 다스린 天皇’이다. ‘初國’에 상대하는 말은 ‘本國’이다. ‘本國’은 ‘本國(원래의 나라)’이며 故郷이다. 거기에 대해 ‘初國’은 ‘다스린 첫 나라’이다. 송신천황의 ‘本國’은 일본열도 밖이며, ‘(일본열도의) 첫 나라(初國 = 日本列島)’를 다스린 천황으로 보았다. 송신의 ‘御肇国天皇’은 초대 천황다운 칭호로 아마도 정권의 초대 천황으로 추측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73) 夫餘王尉仇台更遼東。(中略) 尉仇台死, 簡位居立, 無嫡子。有華子麻余位居。死諸加共立麻余牛加兄子名位居為大使。(中略) 麻余死。其子依慮年六歲立, 以為王。(『三国志』夫餘伝)

많아 승신왕조는 ‘이리왕조’로 불릴 정도였다.

승신천황은 ‘관리들(群卿)을 선발하여 사방(四方)에 파견하였다’고 했다. 사방은 ‘북륙北陸’ ‘동해東海’ ‘서도西道’ ‘단바(丹波)’이며 파견된 사람들을 ‘사도장군四道將軍’이라 부르고 있다. “변경의 사람들은 아직 신중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 왕화의 덕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경群卿들을 뽑아 사방에 보내어 법을 알리겠다.”<sup>74)</sup> 이와 함께 인수(印綬)를 주어 장군으로 임명하였다.<sup>75)</sup> “오직 해외<sup>76)</sup>의 거친 백성들만 소동을 아직 멈추지 않고 있구나. 사도四道장군 등은 지금 급히 출발하라.”고 명령하였다.<sup>77)</sup> “사도장군이 용이(戎夷)를 평정한 상황을 아뢰었다.”<sup>78)</sup>

이렇듯 ‘사방’에 ‘사도장군’을 파견한 것은 부여의 ‘사출도四出道’와 동일한 것이다. 부여는 도읍(都)에서 사방으로 나가는 도로(道)를 제가(諸加=長官)가 지배·관리하고 있다. “나라에 군주가 있고, 모두 육축六畜으로 이름하였다. (중략) 제가諸加는 별도로 사출도를 관리하고, 대자大者는 수천 가家, 소자小者는 수백 가를 관리했다.”<sup>79)</sup> 부여에서는 이 ‘사출도’를 제가諸加가 지배·관리했고, 승신천황도 ‘사도장군’을 파견하여 부여족의 지배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고사기』에는 승신천황의 ‘봉년간지崩年干支가 ‘무인년戊寅年 12월’로 기록되어 있다. 『고사기』에 적혀있는 최초의 ‘봉년간지’이다.<sup>80)</sup> 당시 일본열도에 ‘간지干支’는 아직 보급되지 않았고 간지가 널리 사용된 것은 중국과 한반도였다. 승신천황이 외부에서 들어왔다면 일본열도에서 간지 사용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승신천황 때 의마지

74) 猶不受正朔。是未習王化耳。其選郡卿，遣于四方。令知朕憲。(『日本書紀』)

75) 以大彥命遣北陸。武渟川別遣東海。吉備津彥遣西道。丹波道主命遣丹波。因以詔之曰，若有不受教者，乃舉兵伐之。既而共授印綬爲將軍。(『日本書紀』)

76) 원문은 海外이지만, 畿内に 대한 畿外를 뜻한다. 『古事記』 『日本書紀』의 승신기에는 다수의 「海外」 용어가 등장한다. ‘亦有海外之國’ ‘唯海外荒俗’ ‘海外既歸化’(『日本書紀』) 등 승신천황이 海外의 나라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천하에 매우 중요한 선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海外」를 의식하였기 때문이다.(船者天下之要用也。其令諸國，倭造船舶。『日本書紀』)。

77) 唯海外荒俗，騷動未止。其四道將軍等，今急發之。(『日本書紀』)

78) 四道將軍，以平戎夷之狀奏焉。(『日本書紀』)

79) 國有君主。皆以六畜名官有馬加·牛加·猪加·狗加大使·大使者·使者。邑落有豪氏。名下戶皆爲奴僕。諸加別主四出道。大者主數千家。小者數百家。(『三國志』 夫餘傳)

80) 이 戊寅年을 258년 또는 318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사기』 사본인 『國寶眞福寺本古事記』(1371~1372년간)에는 15명의 천황(崇神, 成務, 仲哀, 應神, 仁德, 履中, 反正, 允恭, 雄略, 繼體, 安閑, 敏達, 用明, 崇峻, 推古)의 沒年 干支를 싣고 있다. 마지막 推古의 沒年 간지인 무오년(628)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역대 천황의 沒年 간지를 서력으로 계산하면, 승신은 318년에 사망한 것이 된다.

依網池가 조성되었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저수지로 알려져 있다. “농업은 천하의 대본이다. (중략) 관개용 저수지와 도랑을 많이 파서 백성의 농업을 넓히라고 명령했다. 겨울 10월에 요사미노이케(依網池)를 만들었다.”<sup>81)</sup> 승신천황 때 오사카 야마토강(大和川) 일대에 최초의 저수지로 의라지(依羅池, 依網池, 요사미노이케)를 위시하여 가루사가이케(苅坂池)·사가오리이케(反折池)가 조성되었다.

이 지역<sup>82)</sup>에는 의라依羅·대라大羅 두 마을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고대 씨족인 요사미씨(依羅氏, 依網氏), 요사미노아비코(依網我孫)가 거주했던 곳이었다. 『일본서기』 인덕천황 때는 고대 왕권직할지인 요사미 둔창屯倉이 설치되었으며, 둔창의 경영은 의라씨 일족이 관여했다. 또 요사미(依網)지역은 요사미노미야츠코(依羅造)·요사미노무라지(依羅連)·모노노베노요사미노무라지(物部依羅連) 등이 본관本貫으로 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 자리잡은 대의라신사大依羅神社도 조정에서 중요시되었다. 대의라신사의 봉재씨족奉斎氏族도 의라씨 일족이었다. 야마토왕권이 요사미 둔창을 경영할 때 대의라신사가 수호신으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대의라신大依羅神은 타케토요하즈라와케 왕(建豐波豆羅和氣王)으로 『고사기』에서 ‘요사미노아비코(依網之阿毘古) 등의 조상’이며 의라씨의 시조가 된 인물이다. 타케토요하즈라와케 왕 외에 스미요시 삼신(住吉三神: 底筒男命·中筒男命·上筒男命)이 모셔지고 있으며, 스미요시 삼신은 『일본서기』를 보면 신공황후가 신라정벌할 때 스미요시 삼신의 신탁을 따라 전승과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였다. 그 때 요사미노오타루미(依網男垂見)<sup>83)</sup>가 스미요시 삼신을 제사하는 제주(祭主)의 역할을 맡았다. 의라는 야마토왕권을 수립·확장한 인물로 이후에도 그 후손들이 가와치 지역에서 야마토왕권을 함께 경영 협조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81) 「農, 天下之大本也, (中略) 其多開池溝, 以寬民業。」冬十月, 造依網池。十一月, 作苅坂池·反折池。(『日本書紀』)

82) 주변에는 依羅小學校, 大依羅神社 등이 있고, 『歴史民俗用語辭典』에 의하면, 依羅는 강의 물결(江波)과 바다의 파도(海波)가 만나는 곳이며 별칭이 依網이다.

83) 依網男垂見는 『日本書紀』에서 전해지는 인물로, ‘依網吾彥男垂見’로 표기되었으며 ‘吾彥(아비코)’는 原始的의 인명이다. 이를 出自로 하는 依羅氏(依網氏)는 摂津国 住吉郡 大羅郷(현재 大阪市 住吉区 我孫子·庭井 주변)과 河内国 丹比郡 依羅郷(현재 松原市 天美地区 주변)를 본거지로 한 고대 씨족이다. 依羅氏는 처음에 ‘依羅我孫(依網吾彥)’이라는 姓을 칭하다가, 750년에 ‘依羅宿禰’라는 姓으로 賜姓되었다. 원래 ‘我孫(吾彥)’은 5C 경 地方官의 官職名에 유래하는 원시적인 姓으로, 阿毘古·阿弭古·吾孫으로도 표기되었다. 이 姓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依羅氏를 고대부터 야마토왕권과 관계있는 씨족으로 본다.

## 2) 응신천황

『일본서기』에서 이름은 호무다노스메라미코토(鰐田天皇)이다. 응신과 인덕천황은 4세기 후반에 시작된 가와치(河内)왕조 혹은 나니와(難波)왕조를 연 시조적 존재이며, 6세기 초에는 계체왕조가 등장한다. 곧 응신천황을 그 이전의 황통皇統과는 관련없는 인물로 생각하고 새롭게 일어난 새로운 왕조의 창시자라 보고 있다.<sup>84)</sup> 그의 출생과정은 일반적 형태와는 달리 특이하다.<sup>85)</sup> 『일본서기』에 의하면, 응신천황은 모친 신공황후가 신라와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쓰쿠시(筑紫)의 우미宇彌<sup>86)</sup>에서 중애천황 9년에 태어났다.<sup>87)</sup> 섭정을 맡은 모친에 의해 신공황후 3년인 3세 때 태자가 되었다가, 모친이 죽자 다음 해 즉위했다.

따라서 응신천황은 사실성이 부정되고 있는 신공황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신공황후 설화는 신공황후와 그 아들 응신천황이 일체가 된 제왕 이야기로 평가된다.<sup>88)</sup> 전반부는 중애천황이 스미요시 삼신의 신탁을 불신하여 급사하자 황후가 신조神助에 힘입어 회임한 채 신라를 정벌했고, 귀환 도중 쓰쿠시에서 응신을 출산한 이야기이다. 후반부는 모자가 귀환할 때 응신의 배다른 형제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응신이 오미(淡海)·와카사(若狹)를 거쳐 쓰루가(角鹿)에서 재계하여 게히대신(氣比大神)과 이름을 바꾸고(易名), 마침내 야마토(大和)에 입성, 신공황후가 그에게 헌주獻酒하는 것으로 끝난다.<sup>89)</sup> 또 응신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황자, 황녀를 낳고 있는데 이것도 시사적이다. 황

84) 直木孝次郎, 「応神王朝論序説」, 吉井巖, 「崇神・垂仁の王朝について」, 中西進, 「古事記抄-応神記-」, 75-78쪽.

85) 특정 왕조의始祖가 비범하게 출생하는 이야기는 흔하다. 殷의 시조契, 周의 시조后稷, 老子도 출생이 비범했으며, 민중의 마음에는 초월적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특이하다. 응신천황은 모친 신공황후가 적자인 신라를 정벌하는 요소까지 가미되어 있다.

86) 神功皇后紀에는 宇彌로 福岡県 糟屋郡 宇美町, 또는 応神天皇紀에는 카다(蚊田)로 筑後国 御井郡 賀駄郷 또는 筑前国 怡土郡 長野村 蚊田이다.

87) 이는 仲哀천황이 사망한 뒤 10월 10일 후이기 때문에 応神天皇을 胎中天皇이라고도 하며, 또 仲哀天皇의 실제 자녀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88) 西宮一民, 1991 「神功皇后・應神天皇の物語」 『國文學:解釋と教材の研究』 36-8, 學燈社.

89) 신공 설화는 6세기 계체·흥명조 때 구상되었고(津田左右吉, 1963a, 『日本古典の研究』 上(津田左右吉全集第1卷), 岩波書店(初出 1948), 87~116쪽), 7세기 3명의 여제[추고·제명(황극)·지통], 특히 제명천황을 모델로 하여 신공의 인물상이 조형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直木孝次郎, 1959 「神功皇后傳説の成立」 『歴史評論』 103, 歴史科學協議會: 1964, 『日本古代の氏族と天皇』, 塙書房, 153~172쪽). 中村恵司는 계체·흥명조 무렵 天日槍 계 도래씨족 吉士氏の 전승이 신공설화의 원형일 것으로 본다(中村恵司, 2000 「神功皇后傳説の成立と難波連大形の役割」 『立正史學』 88, 立正大學史學會). 高寛敏은 신공이 7세기 추고·서명조 때 만들어진 인물이며, 당시 설화에는 熊襲 정벌 사실만 있었다고 한다. 이후 천무·지통조에 이르러 천황에게 신속한 百濟王氏의



후 나카츠히메노미코토(仲姬命)<sup>90)</sup>를 제외하고도 10명의 비妃가 있었고, 자녀들은 모두 28여 명이었다.

일본의 5세기는 ‘기술혁신의 시대’로 칭해지는데, 한식토기나 그 영향을 받은 스에키 생산, 말과 마구의 도래, 단야鍛冶·금공金工 기술의 도입 등 도래인들을 매개로 한 기술의 전래·정착 양상이 구체화되고 있었다.<sup>91)</sup> 기기記紀에 의하면 응신천황은 한반도로부터의 도래인을 이용하여 국가를 발전시켰다. 특히 4세기 후반~5세기에 걸쳐 기내지역에는 안라를 비롯한 남부가야 및 백제 서남부의 영산강 유역을 출자로 하는 도래인이 다수 건너왔다.<sup>92)</sup> 이 시기 이름이 있는 도래인으로는 궁월군(弓月君), 아직기阿直岐, 왕인王仁, 아지사주阿知使主 등이 있었고, 아지사주는 야마토노아야씨(東漢氏), 궁월군은 하타씨(秦氏)의 조상이었다.

- 궁월군(弓月君)<sup>93)</sup>이 백제에서 와서 ‘신은 저희 나라의 인부人夫 120현縣을 이끌고 귀화하고자 하였으나 신라인이 방해하여 모두 가라국加羅國에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해구리노츠쿠노스쿠네(平群木菟宿禰), 이쿠하노토다노스쿠네(的戶田宿禰)를 가라에 보내 궁월의 인부를 거느리고 습진언과 함께 돌아왔다.<sup>94)</sup>
- 백제왕<sup>95)</sup>이 아직기阿直伎<sup>96)</sup>를 파견하여 좋은 말 두 마리를 바쳤다. (중략) 아직기는 경전<sup>97)</sup>도 잘 읽었으므로 태자 토도치랑자菟道稚郎子(우지노와키이라츠코)의

존재와 신라가 백제 고지를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모순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신라정벌 설화가 부가되었다고 보았다(高寬敏, 2001 「神功物語の形成」 『倭國王統譜の形成』, 雄山閣, 69~79쪽; 2002 앞의 논문, 125쪽; 2003 「神功皇后物語の形成と展開」 『東アジア研究』 38, 大阪經濟法科大学アジア研究所, 68쪽).

90) ‘이리’ 계통의 五百城入彦皇子(이오키이리히코노미코)의子在 品陀眞若王이며 그의 딸이다.

91) 熊谷公男, 『大王から天皇へ』(日本の歴史3), 講談社, 2001, 53~66쪽; 龜田修一, 「遺跡・遺物にみる倭と東アジア」, 『東アジア世界の成立』(日本の對外關係1), 吉川弘文館, 2010, 294~300쪽

92) 大橋信彌, 「安羅加耶と倭國の初期交流-倭漢氏の出身地をめぐって-」, 『한국민족문화』 5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古代の地域支配と渡來人』, 吉川弘文館, 2019, 354~381쪽

93) 『古事記』에는 「秦造之祖 韓直之祖 (중략) 參渡來也」라 했다. 秦氏는 신라 방면(울진)에서 건너간 도래인 집단으로 본다. 秦氏는 山背國의 葛野, 紀伊郡을 중심으로 近江國 愛智와 太上郡을 비롯해 美濃, 越前, 攝津, 播磨國 등 전국 각지에 퍼져 있었다.

94) 遣平群木菟宿禰・的戶田宿禰於加羅. (中略) 乃率弓月之人夫, 與襲津彥共來焉. (『日本書紀』)

95) 백제왕력을 토대로 볼 때 404년, 백제 阿莘王 14년이다.

96) 『古事記』에는 阿知吉師로 나오며 그를 왜국에 보낸 백제왕을 照古王, 즉 近肖古王(재위: 346~374)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日本書紀』 응신천황 20년 추9월조에 등장하는 阿知使主와 아직기를 동일인물로 보기도 한다.



스승으로 삼았다. (중략) 아직기는 아치키노후비토(阿直岐史)<sup>98</sup>의 시조이다.<sup>99</sup>

- 왕인<sup>100</sup>이 왔다. 태자 토도치랑자는 왕인을 스승으로 삼았다. (중략) 왕인은 후미노오비토(書首)<sup>101</sup>의 시조이다.<sup>102</sup>
- 야마토노아야노아타이(倭漢直)의 조상 아치노오미(阿知使主)<sup>103</sup>와 그의 아들 츠카노오미(都加使主)가 그들이 이끄는 무리 17현縣을 데리고 왔다.<sup>104</sup>
- 아지사주와 도가사주를 오뒷나라<sup>105</sup>에 보내어 봉공녀縫工女를 구하게 하였다.

비록 야마토 중심의 도래인 기록들이 남겨졌지만, 이 무렵에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이주민들이 끊임없이 몰려들고 이에 따라 문화접변이 일어났던 것이다. 왕인을 야마토로 모셔오면서 논어와 천자문, 곧 유교문화가 전래되었고 한자가 전해졌다. 가야에서 일본열도로 도래한 아치노오미와 아들을 오뒷나라에 보내 옷을 짓는 장인을 구하는 등 의복문화의 변화도 모색했다. 또 도래인들에게 저수지를 만들게 했고 일본열도 내에 복속하지 않은 무리들[蝦夷 및 海人]을 평정했다. “고구려, 백제, 임나, 신라인이 함께 내조하였다. (중략) 여러 한인韓人에게 연못을 만들도록 하였다. 그 연못을 한인지韓人池<sup>106</sup>라고 불렀다.”<sup>107</sup>

97) 유교 관련 서적을 말한다. 『古事記』에도 阿知吉師(阿直岐)는 암수 말 두 마리를 献上하고, 阿直史의 祖가 되었다. 論語 十卷、千字文 一巻 등을 갖고 왔고 이를 통해 儒敎와 漢字가 伝來되었다.

98) 『古事記』에는 阿直史로 나온다. 『新撰姓氏錄』에 ‘安勒連 百濟國魯王後也.’라고 되어 있다. 史는 야마토 정권에서 문서기록을 담당했던 씨족에게 주는 姓으로 주로 도래계 씨족이 사성받았다.

99) 百濟王遣阿直伎, 貢良馬二匹. (中略) 阿直岐亦能讀經典. 即太子菟道稚郎子師焉. (中略) 其阿直岐者, 阿直岐史之始祖也. (『日本書紀』)

100) 『古事記』에서는 和邇吉師로 나오며, 論語 10권과 千字文 1권을 가지고 건너가 文首氏(西文氏)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도래 시기는 『古事記』의 경우 照古王(近肖古王)의 시대로 전하고 있지만, 『日本書紀』에서는 應神天皇 15년으로 이는 백제 전지왕 원년(405)에 해당된다.

101) 文首는 王仁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씨족이다. 西文氏는 西文氏는 姓이 首로 문필 담당의 史 집단 위에 있었던 존재로 河內國 古市郡(현재 大阪府 羽曳野市)을 중심으로 야마토 정권에서 문서행정을 담당했던 문필씨족이었다. 이후 忌寸, 宿禰로 사성 혹은 改姓되었다.

102) 王仁來之. 則太子菟道稚郎子師之. (中略) 所謂王仁者, 是書首等之始祖也. (『日本書紀』)

103) 阿智王이라고도 하며 야마토 지역을 본거지로 하는 倭漢直은 東漢氏라고도 한다. 東漢氏는 5세기 말에서 6세기에 걸쳐 河內에 본거를 둔 西漢氏와 비교하여 주로 大和國 高市郡 檜前郷(현재 奈良縣 明日香村)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東漢氏 혹은 倭漢氏라고 불렀다. 西文氏와 함께 蘇我氏 휘하에서 정치, 군사, 재정, 각종 기술 등 다방면에 걸쳐 활약한 대표적인 도래계 씨족이다. 원래 가야제국 가운데 安羅國 사람들이 이주해 갔기 때문에 ‘아야’라고 부르다가, ‘漢’으로 정착했다고 보기도 한다.

104) 倭漢直祖阿知使主, 其子都加使主, 並率己之黨類十七縣, 而來歸焉. (『日本書紀』)

105) 東晉 또는 南朝宋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應神天皇 37년은 426년이 된다.

응신천황은 한반도와 매우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야마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왕인과 같은 인재들을 데려오고, 백제·신라·가야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을 일본열도로 받아들였다. 백제와 탁순국의 통교, 367년 백제와 왜의 통교, 372년 백제와 왜의 교섭, 그리고 백제와 신라 그리고 가야 사이의 싸움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등 한반도 국가들과의 교류에 적극적이었다.<sup>108)</sup> 야마토 왕권은 지극히 군사적 색채가 강한 성격으로 변질되고, 종래의 교토부 북쪽 해안[丹後] 방면의 한반도 루트보다 세토내해(瀬戸内海)를 통한 한반도 루트를 중시하며, 한반도와 적극적인 교류를 진행했다.

응신천황은 즉위 전 14세(신공황후 섭정 13년)에 죄 및 부정不淨을 씻어내는 미소기(禊)를 위해 쓰루가(角鹿. 敦賀)의 게히 대신(筥飯大神)에 참배하였다. 쓰루가(敦賀)는 북쪽 해안가 곧 동해에서 기내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대외적으로도 한반도 및 대륙 북동부 지역으로의 현관에 해당하는 중요한 길이다. 게히신궁(氣比神宮)은 입지조건 상 ‘북쪽 해안의 총진수(北陸道總鎮守)’로 불리워지며 조정에서 특히 중시되는 신사神社였다. 주제신主祭神은 이자사와케(伊奢沙別/去来紗別)로 게히신궁 특유의 신으로, 이를 신라에서 온 아메노히보코(天日槍)로 보기도 한다.<sup>109)</sup> 이 때 응신천황과 이자사와케 신은 서로 이름을 교환하였다.<sup>110)</sup> 응신천황은 죽어서 군신軍神인 하치만신(八幡神)이 되었고, 하치만 삼신(八幡三神)<sup>111)</sup> 중 하나로 제사된다.

즉위 41년 갑오년에 111세로 세상을 떠났다. 『고사기』에서는 130세라 했다.

106) 현재 奈良縣 磯城郡 田原本町에 있는 唐古池로 추정되고 있다. 『古事記』에는 建内宿禰命이 도래한 신라인을 이끌고 ‘百濟池’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07) 高麗人·百濟人·任那人·新羅人, 並來朝. (中略) 韓人等作池. 因以, 名池號韓人池. (『日本書紀』)

108) 年代에 관해, 『日本書紀』에는 応神天皇 3년(272년)에 백제의 辰斯王이 薨去했다는 기록이 있고, 『三國史記』의 『百濟本紀』에도 辰斯王이 死去한 해는 392년으로 연대가 2주갑 인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日本書紀』의 応神天皇 8년(277년), 応神天皇 16년(285년), 応神天皇 25년 11월에도 동일하다. 이처럼 神功皇后 摂政 55년(375년)부터 応神天皇 25년(414년)까지는 実年이 特定可能하다. 한편 津田左右吉은 『百濟記』의 木滿致와 『三國史記』의 蓋鹵王代 木菰滿致를 동일하게 보아 神功 62년과 應神 25년의 3주갑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고(津田左右吉, 「百濟に關する日本書紀の記載」,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8, 東京帝國大學文學部, 1921 : 『日本古典の研究』 下(津田左右吉全集 第2卷), 岩波書店, 1963, 214~215쪽) 山尾도 이러한 3주갑 인상을 지지했다.(山尾幸久,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岩波書店, 1983, 200~213쪽 : 앞의 책, 1989, 111~127쪽).

109) ‘敦賀津(角川)’ 1989. 『角川日本地名大辞典 18 福井県』 角川書店, 1989年. 「氣比神宮」、「常宮神社」、「敦賀郡」、「敦賀津」.

110) 『日本書紀』는 分注에 一伝으로 ‘菅田別尊의 본래 이름은 去来紗別尊이라 하고 氣比神宮의 筥飯大神과 이름을 交換하여 菅田別尊이란 이름을 얻었다’고 했다.

111) 菅田別命을 主神으로, 모친 神功皇后, 比売神이다.

## IV. 맺음말

『환단고기』에는 삼신문화와 이러한 삼신문화가 체현되는 소도제천 의례를 주요 요소로 하는 신교문화의 내용과 세계적 전개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신교문화의 전파는 불교문화의 전래 이전의 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일본 열도에는 불교가 백제를 통해 538년 혹은 552년에 처음 전해졌고, 그 이후 신교와 불교의 문화전쟁은 여러 천황을 거치면서 50년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문화가 일정 경계를 넘어 공간적으로 전파되는 계기는 고대사회의 경우 전쟁이나 민족이동·이주를 통한 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한데, 고조선 때부터 조선조의 조선통신사에 이르기까지 일본열도로의 문화전파는 한반도의 정세변화 곧 전쟁, 침략, 국가의 멸망 등에 따른 집단 이주현상(민족이동)으로 모두 직접적인 문화접변 현상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내용은 『환단고기』의 기록 등 한국의 기록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록까지 포함하여 신교문화가 일본의 야마토 정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래되었는가를 확인하여 보았다.

『환단고기』에는 일본열도 관련 기록이 11회 정도 나타나는데, 그 중 8회가 문화전파와 관련된 내용이다. 『단군세기』의 3세 가락단군 조의 소시모리 기록, 35세 사벌단군 조의 언파불합 기록, 36세 매륵단군 조의 협야후배반명,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마한세가의 협야후 기록, 「고구려국본기」의 협보, 변진 구야국, 광개토태왕 기록, 「대진국본기」의 의려국 기록이 그것이다. 기기에는 스사노오 신(素戔嗚尊)의 신라국 소시모리(曾尸茂梨) 기사, 수인천황垂仁天皇 때의 아메노히보코(天日槍) 기사가 있고, 특히 응신·인덕기應神·仁德紀에는 다수의 도래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신황기』에도 현재 일본에서 최고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아마테라스 대신(天照大神) 이전에 천지세天地世 7대와 천지중세天地中世 15대, 그리고 고천원세高天原世의 천신天神 7대가 존재했음을 알려주면서, 이 때의 신들은 중국 동북지역 및 한반도 지역과 연결되었음을 추정케 해준다. 이러한 천신 곧 천손족이 일본열도로 진출하여 지배권력(왕가)을 형성하는 이야기가 천손강림天孫降臨과 신무동정神武東征 신화이다.

이러한 기록들 가운데 신교문화의 일본 전래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적인

기록이 『태백일사』 「대진국본기」에 나타난 ‘의려국왕의 일본열도 이동 기록’이나 『일본서기』의 ‘아메노히보코 관련 기록’ 등으로 많은 편이 아니다. ‘의려국왕은 수천 명을 데리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왜인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고, 스스로 삼신의 부명(三神符命)에 응한 것이라 하고, 여러 신하로 하여금 하례 의식(賀儀)을 올리게 하였다’ 하였고, ‘신라왕자 아메노히보코가 옥과 칼과 거울(삼종의 신기) 그리고 곰(熊)의 히모로기(神籬) 등 7개의 신물神物을 갖고 일본에 왔다’고 하였다. 일본으로 이동하여 왜국의 왕이 된 의려국 왕은 곧 ‘삼신의 부명에 따른 하례의식’을 행하고 일본열도로 ‘삼종의 신기와 웅족의 신단神壇’을 갖고 온 내용들은 삼신문화가 일본열도로 전파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신교의 소도제천은 제천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소도였음을 이르는 말이다. 각 나라는 천신지기, 시조신을 대상으로 일정 지역에서 각자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그 일정지역이 ‘소도’였다. 이러한 소도제천 문화는 일본열도에도 전해졌다. 일본 최초의 국가인 야마토(大和) 정권이 가장 먼저 탄생한 지역이 나라지역의 미와산(三輪山) 주변이었고, 이 곳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신사로 알려진 나라지역의 오오미와신사(大神神社)는 그러한 야마토 정권의 정신적(종교적) 토대가 되었던 신사이다. 이후에, 현재 일본 신사들 중 최고 위격에 있는 그리고 소위 황조신皇祖神인 아마테라스 대신(天照大神)을 제신으로 모신 이세신궁伊勢神宮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제도화된 재왕의 이세신궁 파견은 대략 5세기 후반 웅락천황의 시대에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유력시되어, 웅락천황 대에 이세신궁이 창사創祀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때 처음 모셨던 이세대신은 아마테라스 대신이 아닌 ‘천지창조의 시기 하늘에서 내려와 처음에 나라를 세운 신’으로 조화삼신의 하나인 타카미무스히 신이었다. 웅락천황이 재위한 5세기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공격으로 왜 뿐만 아니라 친정집과도 같은 백제도 국가존망의 위기에 직면한 시기로, 강렬한 국가의식으로 국가신을 제사하는 이세신궁을 창사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구메 구니다케는 일본의 ‘신도가 제천祭天의 옛 풍속’이라 지적하였다. 또 ‘일본 천황들은 아마테라스 대신을 모시고 제사지낸 것이 아니었다. 고대의 왜한倭韓은 모두 동일한 천신을 제사지냈다’고 했다. 그는 일본 천황들이 본래 제사에서 받들던 신이 오늘날

천황가의 황조신인 아마테라스 대신이 아니라, 소도에서 제천 시에 받들었던 천신이었음을 지적했던 것이다. 「대진국본기」의 의려국 이야기는 서부여의 의려왕 또는 그 아들 의라가 285년 선비족 모용외의 공격으로 나라가 와해되는 지경에 이르자 무리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가 왜를 평정하고 왕이 되었다는 기록으로 신교문화의 직접적인 일본 전파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 때는 3세기 후반으로 일본열도에서 야요이문화와 고분문화가 교체되는 시기로 부여족에 의해 왕권이 형성되고 고대국가의 성립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일본 고대사에는 천손족天孫族의 도래와 왕조교체설이 주장되고 있다. 곧 천손족이 일본열도로 들어와 야마토 정권을 세웠으며, 왕조교체는 일본열도에서 이러한 천손족에 의해 몇차례 왕권이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일본천황은 송신천황과 응신·인덕천황이다. 천손족의 도래는 고분시대를 열었다. 미즈노 유도 만세 일계 천황계보를 부정하고, 천황은 혈통이 다른 3왕조로 교체되었고, 제10대 송신천황과 제15대 응신천황 그리고 제26대 계체천황이 각 왕조의 시작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토대로 송신천황과 응신·인덕천황을 살펴보면, 송신왕조는 이리왕조, 미와왕조로 불리며 송신천황 때의 아마테라스 대신과 야마토노오호쿠니타마 신(倭大國魂)의 제사 문제, 전염병 발생과 사도장군, 의라지 조성 등은 부여족의 이동을 추측하게 해주고 있다. 또 가와치(河內)왕조, 와케왕조를 알려진 응신왕조는 기술혁신의 시대로 칭해지는데, 백제에서 도래한 사람들은 유교문화와 한자를 전하고, 말과 마구의 도래, 단야·금공 기술의 전래·정착을 도모하면서 5세기말 이후 야마토 정권의 정치와 문화를 건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철수, 2009, 『일본고대사와 한민족』, 상생출판.
- 노성환 역주, 2009, 『古事記』, 민속원.
- 안경전 역주(계연수 원저), 2013, 『桓檀古記』, 상생출판.
- 이근우 등 역주, 2013, 『日本書紀』, 동북아역사재단.
- 이능화, 2007, 『조선신사지』, 동문선.
- 정인갑 역(김부식 원저), 2024, 『三國史記』, 경진.
- 角川日本地名大辞典 編纂委員会, 1989, 『角川日本地名大辞典 18 福井県』, 角川書店.
- 江上波夫, 1984, 「日本における民族の形成と国家の起源」, 『江上波夫著作集 8 倭人の国から大和朝廷へ』, 平凡社.
- 江上波夫, 1984, 「日本民族の成立過程と統一国家の出現」, 「東アジア史からみた騎馬民族の日本統一」, 『日本民族と日本文化』, 山川出版社.
- 江上波夫, 1975, 「日本人は何か」, 『江上波夫著作集 7』, 平凡社.
- 江上波夫, 1992, 『江上波夫の日本古代史—騎馬民族説四十五年』, 大巧社.
- 岡田英弘, 1977, 『倭国』, 中央公論新社.
- 岡田英弘, 2009, 『最新古代史論—“まほろばの国”ヤマトのあけぼの』, 学研プラス.
- 岡田精司, 1970, 『古代王權の祭祀と神話』, 塙書房.
- 高寛 敏, 2001, 「神功物語の形成」『倭國王統譜の形成』, 雄山閣.
- 高寛 敏, 2003, 「神功皇后物語の形成と展開」, 『東アジア研究』 38, 大阪経済法科大学アジア研究所.
- 古田武彦, 1994, 『盗まれた神話』, 朝日新聞社.
- 谷口康浩, 2017, 『縄文時代社會複雑化儀禮祭祀』, 同成社.
- 龜田修一, 2010, 「遺跡・遺物にみる倭と東アジア」, 『東アジア世界の成立』(日本の對外關係1), 吉川弘文館.
- 吉村武彦, 2010, 『ヤマト王權』, 岩波新書.
- 吉村武彦, 2010, 『日本古代史② ヤマト王權』, 岩波書店.



- 大橋信彌, 2019, 『古代の地域支配と渡來人』, 吉川弘文館.
- 武光 誠, 2006, 『「古代日本」誕生の謎』, PHP研究所.
- 武光 誠, 1999, 『古事記・日本書紀を知る事典』, 東京堂出版.
- 武澤秀一, 2011, 『伊勢神宮の謎を解く-アマテラスと天皇の‘發明’』, ちくま新書.
- 山尾幸久, 1983,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岩波書店.
- 三輪義熙, 1922, 『神皇紀』, 隆文館.
- 篠川 賢, 1995, 『騎馬民族説』, 『日本古代史研究事典』, 阿部猛 外 編, 東京堂出版.
- 水野 祐, 1954, 『日本古代王朝史論序説』, 私家版, 1952(増訂版, 小宮山書店).
- 熊谷公男, 2001, 『大王から天皇へ』(日本の歴史3), 講談社.
- 佃 收, 2014, 『新「日本の古代史」』, 星雲社.
- 井上光貞, 1973, 『日本の歴史 1 神話から歴史へ』, 中央公論社.
- 直木孝次郎, 1964, 『応神王朝論序説』, 『古代河内政權の研究』, 塙書房.
- 直木孝次郎, 1964, 『日本古代の氏族と天皇』, 塙書房.
- 津田左右吉, 1963, 『日本古典の研究』上(津田左右吉全集第1卷), 岩波書店.
- 津田左右吉, 1963, 『日本古典の研究』下(津田左右吉全集 第2卷), 岩波書店.
- 河内春人, 2018, 『倭の五王』, 中央公論新社.
- 穴沢咏光, 1990, 『騎馬民族はやってきたのか』, 白石太一郎・吉村武彦 編, 『論点日本の歴史 2 古代編1』, 新人物往来社.

#### (논문)

- 세키네 히데유키,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와 기타 사다키치(喜田貞吉)의 일본민족기원론」, 『동북아문화연구』 27, 2011.
- 大橋信彌, 「安羅加耶と倭國の初期交流-倭漢氏の出身地をめぐって-」, 『한국민족문화』 5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 山中鹿次, 「中期大和王權の開始と始祖に關する覺書」, 『日本書紀研究』 24, 塙書房, 2002.
- 中西 進, 「古事記抄-應神記-」, 『成城國文學論集』 8, 1976.
- 直木孝次郎, 「神功皇后傳説の成立」 『歴史評論』 103, 歴史科學協議會, 1959.
- 直木孝次郎, 「應神天皇の實在性をめぐって」, 『人文研究』 第25卷 第10号, 大阪市立大

세계환단학회지 (12권 1호)

学文学部, 1973.

- 津田左右吉, 「百濟に關する日本書紀の記載」,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8, 東京帝國大學文學部, 1921.
- 久米邦武, 「神道は祭天の古俗」, 『史學會雜誌』 10-12월, 1891.
- 西宮一民, 「神功皇后・應神天皇の物語」, 『國文學:解釋と教材の研究』 36-8, 學燈社, 1991.
- 中村恵司, 「神功皇后傳説の成立と難波連大形の役割」, 『立正史學』 88, 立正大學史學會, 2000.

## The *Samshin*(三神) Culture of the *Hwandan Gogi*(『桓檀古記』)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Yamato*(大和)

Kim, Chul-Soo (Prof. Jungwon University)

In the *Hwandan Gogi*(『환단고기』), the contents of the *Shinkyo*(신교) culture, which mainly consists of the *Samshin*(삼신) culture and the *Sodojecheon*(소도제천) ritual that embodies this *Samshin* culture, and the global development process are recorded. In the *Kojiki*(『고사기』) and *Nihon Shoki*(『일본서기』), the spread of *Shinkyo* culture can be confirmed through records prior to the spread of Buddhist culture. Buddhism was first introduced to the Japanese archipelago through *Baekje*(백제) in 538 or 552, and the cultural war between *Shinkyo* and Buddhism was fiercely fought for 50 years after that, passing through several emperors. In ancient societies, the occasion for culture to spread spatially beyond a certain boundary was often a collective event through war or migration, but the cultural spread to the Japanese archipelago was a direct cultural contact phenomenon due to the group migration phenomenon (migration) caused by political changes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war, invasion, and the fall of the country. The content examined in this paper includes not only Korean records such as the *Hwandan Gogi*, but also Japanese records to confirm how *Shinkyo* culture was specifically spread to the *Yamato*(大和) regime in Japan. In the *Hwandan Gogi*, records related to the Japanese archipelago appear around 11 times, and 8 of them are related to cultural transmission. In Japanese records, there is an article about *Soshimori*(曾尸茂梨) of *Silla* by *Susanoo Shin*(素戔鳴尊), an article about *Amenohiboko* during the reign of Emperor *Suin*(垂仁), and in particular, many stories of immigrants are recorded in the *Oshin* and *Nintokuki*(應神·仁德紀). The *Sodo-jecheon* culture was also transmitted to the Japanese archipelago. The *Yamato* government, the first state in Japan, was first established in the area around Mt. *Miwa*(三輪山) in the *Nara* region, and the oldest shrine located there, *Oomiwa Shrine*(大神神社) in the *Nara* region, is a shrine that served as the spiritual (religious) foundation of the *Yamato* government. Afterwards, it was moved to *Ise Jingu*(伊勢神宮), which enshrines *Amaterasu Daishin*(天照大神), the highest ranking deity among current Japanese shrines and the so-called imperial ancestor goddess. The story of *Uiryeo* in the *Daejin Guk Bon-gi* is a record that when the

country was on the verge of collapse due to the attack of the *Xianbei* tribe's *Murong Wei* in 285, King *Uiryeo* of Western *Buyeo* or his son *Uira* led several thousand men across the sea to subdue *Wae* and become king, which confirms the direct transmission of *Shinto* culture to Japan. In ancient Japanese history, the arrival of the *Tenson* tribe(天孫族) and the theory of a change of dynasty are asserted. That is, the *Tenson* tribe entered the Japanese archipelago and established the *Yamato* regime, and the change of dynasty refers to the fact that the royal authority changed several times in the Japanese archipelago by these *Tenson* tribes. The Japanese emperors to watch during this process are Emperor *Sungshin* and Emperors *Oshin* and *Nintoku*. The arrival of the *Tenson* tribe opened the *Kofun*(古墳) period. The *Sungshin* Dynasty is also called the *Iri* Dynasty and the *Miwa* Dynasty, and the issues of the ancestral rites of the *Amaterasu Daishi* during the reign of Emperor *Sungshin*,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the *Sado* General, and the establishment of *Uiraji* suggest the migration of the *Buyeo* people. In addition, the *Oshin* Dynasty, known as the *Kawachi* Dynasty and the *Wake* Dynasty, is called the era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t can be seen that the people who arrived from *Baekje* introduced Confucian culture and Chinese characters, introduced horses and saddlery, and promoted the introduction and establishment of forge and metalworking technologies, and established the politics and culture of the *Yamato* regime from the late 5th century.

Key words: Hwandan Gogi, Samshin culture, Shinkyo, Shinto, Sodojecheon, Yamato

접수일: 2025. 4. 30. / 심사완료: 2025. 5. 16. / 게재확정일: 2025. 5. 21.

## 『世界桓檀學會誌』 논문 투고규정

### 1. 투고자의 자격

- 1)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의 자격은 회원, 준회원에 한한다.  
단 공동연구자의 경우, 비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 2) 공동연구자가 있는 경우 제1 저자를 가장 먼저 표기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표기한다.
- 3)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논문의 마지막에 ‘교신’이라 적고, 저자 이름, 우편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의 순으로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다.
- 4) 투고자는 투고 시점에서 회비 납부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투고

- 1) 학회지의 발행은 연 2회, 발행일은 매년 6월 1일, 12월 1일이다.
- 2) 투고 마감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로 투고할 수 있다.
- 3) 투고자는 학회 홈페이지(<http://www.hwandan.org>)에 게시된 이메일로 논문 원고와 KCI 유사도 검사지를 첨부하여 투고한다. 게재가 확정된 뒤에는 편집위원장의 이메일로 최종 논문, 저작권이양동의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첨부하여 송부한다.
- 4) 투고자는 원고의 투고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게재확정 후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3. 원고의 종류와 분량

- 1) 원고의 종류는 학술논문, 서평, 자료, 논평, 번역문 등으로 한다.
- 2) 투고하는 원고는 타 학술지 및 공개된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게재된 후에도 중복게재나 표절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게재

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 3) 연구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작성하며, 그림과 표를 포함해 인쇄한 분량이 20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4) 인쇄 분량이 20쪽을 초과하거나 부분적으로 컬러 인쇄를 요청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 4. 저자의 표기

- 1) 저자의 이름은 한글로 표기한다. 공동저자가 있을 경우, ‘\*’의 개수로 저자의 소속을 구분한다. 저자 사이에는 ‘.’을 넣어 구분한다.

※ 예: 김철수\*.홍길동\*\*

- 2) 영문명의 표기는 성, 이름의 순서로 표기하며, 다수의 저자는 ‘.’을 넣어 구분한다.

※ 예 : Kim, Chul-Su\*.Hong, Gil-Dong\*\*

- 3) 단독저자 및 공동연구 모두 저자 이름을 명기하며, 논문 첫 페이지 각주에 각 저자의 소속기관과 현 직위를 병기한다.
- 4) 교신저자는 마지막에 국문과 영문으로 성명, 소속, 소재지, 우편번호, 국가명, 연락 전화, 이메일 순으로 기재한다.

#### 5. 원고의 집필요령

- 1) 원고는 워드 프로세서(한글, MS 워드 등)를 사용하여 A4용지에 글자 크기 11.4pt, 줄 간격 175%의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고는 논문 제목, 저자, 목차, 요약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목, 저자, 소속 포함)의 순으로 작성한다.
- 3) 국문초록은 400단어, 영문초록은 500단어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며, 말미에 각각 5개 내외의 주요어(Key words)를 삽입한다.
- 4) 논문의 장절 항목은 I, 1, 1), (1), ①의 순서로 표기한다.



- 5) 본문 중에 기술된 인용문은 한국어 번역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문의 표기가 필요할 경우 각주로 처리한다. 본문 속의 간략한 인용문은 큰 따옴표(“ ”)로 처리하며, 단순 강조 표시는 작은 따옴표(‘ ’)로만 처리한다. 간략한 한자어의 원문 표기는 괄호없이 한글과 병기하며(예, 한국韓國), 한자를 표기할 필요가 있으나 본문과 음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괄호로 표기한다.
- 6) 본문에서 별도의 문단으로 구분해 장문의 원문 혹은 번역문을 인용할 경우, 위아래로 각각 한 행씩 띄우고 본문과 같은 글자크기로 하며, 문단의 좌우 여백을 15pt씩 둔다.
- 7)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한 국한문 도서와 서첩, 지도집 등 자료의 이름은 겹썬쇠(『』)로, 원전의 편명, 논문과 지도집 안에 수록된 그림, 지도명은 홑썬쇠(「」)로, 원전의 편의 제목명은 「」 안에 표기한다.
- 8) 본문에 문헌을 각주에 표시할 때에는 문헌명, 권수, 제목 등 출처와 원문을 표시한다.
- 9) 인용 출처의 표기
  - (1) 본문 내에서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각주로 표시하며, 각주에는 문헌의 저자, 발행연대, 인용한 쪽수를 (○○○ 2004, 7-10)의 형식으로 출처를 표기한다. 또한 본문에 특정 연구를 지시할 경우 ‘저자명(발행연도)’로 기재할 수 있다. 단, 번역서를 인용할 경우, ‘(원저자 저, 번역자 역 번역출판년, 쪽수)’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 (2) 각주를 통해 인용된 동일한 논저를 다시 인용할 때에는 ‘저자명, 출판연도, 위의 책(논문), 페이지’로 표기할 수 있다.  
※ 홍길동, 2015, 위의 논문(책), 11-12.
- 10) 그림과 표의 작성
  - (1) 그림과 사진의 일련번호는 ‘그림 1., 2., 3.’으로 하며 제목과 설명은 하단에 기재한다.
  - (2) 표의 일련번호는 ‘표 1., 2., 3.’로 하며 제목은 상단에 기재하고, 표에 대한 설명과 인용 문헌의 출처는 하단에 표기한다. 단, 자료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 출처는 ‘자료:’라 표기한 다음에 기재한다.

## 11) 참고문헌의 표기

- (1) 원전(고문헌, 고지도 등 자료),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순으로 작성하며, 각 항목은 국내문헌, 동양문헌, 서구문헌의 순으로 작성한다. 단, 인터넷 자료는 국내외 해외 구분 없이 작성한다.
- (2) 참고문헌은 국내 및 동양권 문헌은 한글자모, 서구문헌은 알파벳 순서대로 기재한다. 동일 저자 혹은 편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며, 동일 연도에 출간된 문헌은 발행연도 다음에 a, b, c ..를 추가하여 구분한다.
- (3) 본문과 미주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으로 정리해 제시하며, 저자, 제목, 출처 등의 표기에 사용된 문자와 각종 기호는 가감 없이 원전에 충실하게 인용한다. 단, DOI가 있는 문헌의 경우 DOI 정보도 문헌의 맨 끝에 제시한다.

### (4) 참고문헌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원전: ‘서명’의 방식으로 표기하며 자료에 출판연도, 소장처 등의 정보가 있는 경우 ‘서명(저자, 출판연도, 소장처, 관리번호)’로 작성한다. 고회화나 고지도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장처 및 소장처에서 부여한 유물번호를 명기한다.

※ 朝鮮王朝實錄

擇里志(李重煥 著, 朝鮮光文會, 1912)

- 단행본: ‘저자, 출판연도, 서명, 출판사.’로 표기한다.

※ 신채호, 2012, 조선상고사, 비봉출판.

- 번역서: ‘역자, 저자, 출판연도, 서명, 출판사.’로 표기한다.

※ 李翼成 역, 李重煥 著, 1971, 擇里志, 乙酉文化社.

- 학위논문: ‘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 ○○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으로 표기한다.

※ 홍길동, 2015, 조선시대 궁궐 후원의 체제와 운영 양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논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쪽번호, 출판연도.’로 표기한다.

※ 홍길동, 「桓檀古記를 통해서 본 三國遺事 古朝鮮記 해석」, 『세계환단학회지』 5(2), 38-85, 2015.

- 단행본 및 학술발표회 자료집 내 논문: ‘저자, 「논문제목」, 단행본 제목, 출판사, 쪽번호, 출판연도’로 작성한다.

- ※ 홍길동, 「홍익인간 사상의 역사성과 문화사적 이해」, 2022년 세계환단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88-112, 2022.
- ※ 이봉호, 「한국의 신선사상과 방해인 이광현의 참동계 연단술」, 한국의 신선사상, 상생출판, 15-58, 2022.
- 신문기사: '신문명, 날짜 「기사명」(웹주소, 검색일)'로 작성한다.
  - ※ 조선일보, 1985.10.04. 「일제 "한민족혼 말살" 새 사실 밝혀져- 사서 20여만권 압수 불태웠다」 ([https://archive.chosun.com/pdf/i\\_service/index\\_new\\_s.jsp?Y=1985&M=10&D=04](https://archive.chosun.com/pdf/i_service/index_new_s.jsp?Y=1985&M=10&D=04), 2015년 1월 5일 검색)
- 웹 자료: '웹사이트 이름(웹 주소)'으로 작성한다.
  - ※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http://kyujanggak.snu.ac.kr/index.jsp>)

## 세계환단학회 논문 공모

세계환단학회는 학제적인 방법론으로 우리 고대사를 복원하고 인류 시원문화의 원형을 탐구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학술단체입니다. 2014년 6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창립총회와 기념 학술발표회를 가진 바 있으며, 매년 춘계와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국통을 바로잡고 인류보편의 흥익이념 및 광명의 역사정신을 세상에 드러낸 『환단고기』의 사학적, 문화적 가치를 환히 드러내고자 공식 학술지인 세계환단학회지를 연2회(6월, 12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홍산문화 발굴과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분석기법으로 연구하는 사학풍토가 조성되면서 『환단고기』의 사료적 가치는 더욱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에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우리의 역사에 관한 사실이 300건 이상 포함되어 있고, 이미 그중의 20여건은 최근의 천문학, 고고학, 해양학, 국제정치학, 군사학과의 융합연구를 통하여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세계환단학회는 환단고기에 기술된 우리의 역사진실과 인류의 원형문화, 철학, 사상, 언어, 풍속 등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고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공유하기 위해 사단법인 대한사랑에서 지원하는 소정의 지원금으로 논문을 공모합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당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100만원의 원고료(우수 논문은 200만원)을 지급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세계환단학회장

## 世界桓檀學會誌

Journal of Hwandan History and Culture

(12권 1호)

발행일      檀紀 4357년, 西紀 2025년 6월 30일

발행처      世界桓檀學會

발행인      이강식

편집인      세계환단학회 편집부

등    록      2014년 11월 11일 등록번호 110-80-20998

주    소      대전시 중구 선화서로29번길36(선화동)

인쇄처      **상생출판** 대전시 중구 선화서로 29번길 36(선화동)

전    화      070-8644-3156

인쇄일      2025년 6월 30일

ISSN 2383-7829